

면지

행사 일정



| 시 간 | 내 용 |
|-------|---|
| 13:00 | 등 록 |
| 13:30 | <p>개회인사 이철호 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p> <p>축 사 박인구 회장 (한국식품공업협회)</p> |
| 14:00 | <p>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전략 노영호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p> |
| 14:30 | <p>식품산업의 해외농업개발의 성공과 실패 김용택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
| 15:00 | 휴 식 |
| 15:10 | <p>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전망 황한준 교수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p> |
| 15:50 | <p>식품산업의 식량공급기능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박태균 박사 (중앙일보 식품전문기자)</p> |
| 16:30 | <p>종합토론 - 좌 장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토론자 : 권익부 ILSI Korea 이사장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이필형 농수산물유통공사 곡물사업팀장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기식 한국식품공업협회 이사 전해경 국립식량과학원장</p> |
| 18:00 | 폐 회 |

목 차



| | | |
|---------|---|-----|
| * 개 회 사 |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1 |
| * 축 사 | 박인구 회장 (한국식품공업협회) | 3 |
| * 주제발표 |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전략 노영호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7 |
| | 식품산업의 해외농업개발의 성공과 실패 김용택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1 |
| | 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전망 황한준 교수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 69 |
| | 식품산업의 식량공급기능에 대한 한·일 비교 박태균 기자 (중앙일보 식품전문) | 111 |
| * 좌 장 | -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 * 토론내용 | - 권익부 이사장 (ILSI Korea) | 141 |
| | - 김성훈 교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 149 |
| | - 이필형 팀장 (농수산물유통공사 곡물사업팀) | 155 |
| | - 이정희 교수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 163 |
| | - 이기식 이사 (한국식품공업협회) | 169 |
| | - 전해경 원장 (국립식량과학원) | 175 |

개 회 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 철 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제3회 식량안보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4월에 설립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연차 식량안보 세미나를 시작하여 제 1회에는 “식품안전 표시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제 2회 세미나에서는 “식량안보정책 개발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비교연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 3회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본 재단의 연구과제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관한 연구 - 현황과 전망”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변화된 우리나라의 식량공급 패턴에 맞추어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을 양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입니다. 식품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5천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주체로, 또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간산업으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중앙일보 식품전문기자이신 박태균 박사님이 연구책임자를 맡아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와 황한준 교수님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오늘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연구발표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노영호 사무관께서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전략”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택 박사님께서 “식품산업의 해외 농업 개발의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산업계, 학계, 정부를 대표하여 권익부 이사장님, 김성훈 교수님, 이필형 팀장님, 이정희 교수님, 이기식 이사님, 전해경 원장님이 지정 토론자로 말씀해 주시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시는 박태균 박사님과 황한준 박사님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세미나를 후원하시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인구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시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사님들과 후원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재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이 좀 더 구체화 되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31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 철 호**

축 사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장 박 인 구



존경하는 이철호 이사장님, 이정희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식품업계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식품업계는 국제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대내적으로는 식품위생법 및 불가정책 등이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철호 교수님께서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식품산업을 단순한 안전성 규제 대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식품공급 주체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식량안보는 기본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비축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그 대상을 곡물위주의 식량안보 개념에서 전체식품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 식량안보도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은 물론 식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과 수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인도와 중국의 소득향상에 따라 식량소비가 증가하고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연료 생산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세계 곡물가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을 금지하면서 식량 민족주의가 표출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의 기상이변과 원유가상승, 도시화, 사막화 등으로 인한 경지면적의 감소로 식량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쌀의 소비가 줄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 과일과 채소의 소비증가를 국내공급이 따르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곡물위주의 식량안보의 개념도 이제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먹을거리를 포괄하는 식품안보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쌀 중심의 식량자급률의 개념을 채소와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까지 확대하여 설정해야 하겠 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국내공급의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생산기반은 유지 되어야 하나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부족한 식량자원, 식품원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농업개발과 해외 수산자원개발을 통하여 국제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모두에게 건강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량의 70%를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곡물중심의 식량안보정책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 식량안보의 공간적 범위를 국내에서 세계로 확대하고 식량안보의 구성요소도 모든 국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필요한 주요제품을 망라해야 하겠습니까. 정부가 식량안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식품업계 입장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첫째로 식품산업을 규제 대상 또는 단순히 끼니나 때우게 하는 정도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주요산업의 하나로 인식 되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는 식품원료의 역관세 사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원료의 관세는 30%~40% 수준이나, 가공식품의 완제품 관세는 8%의 단일세율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식품완제품 수입관세율은 20%내외입니다. 자급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값싸고 질 좋은 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식품원료의 관세는 지속적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셋째로는 식품산업을 수출과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해 또는 어떠한 기상이변에서도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행중인 Food Stamp 제도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식품안보정책이 새롭게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신 이철호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25일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장 박인구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전략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노영호 사무관





Profile

노 영 호

학 력

서울대학교 농학과 졸

경 력

46회 행정고시(2002년) 합격

2003년 농림부 입사

녹색성장위원회(2009년)

현 식량정책과 기획담당(식량자급률, 중장기 식량정책 수립)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전략

2011. 3. 30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노영호

목 차

- I. 기후변화 현황
- II. 국제곡물시장의 특성 및 전망
- III. 우리의 식량수급 상황
- IV. 대응방안



I. 기후변화 현황

전세계 현황

전세계는 지구온난화로 폭염, 가뭄, 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 발생

- (폭염, 가뭄) 열대.아열대 지역에서 가뭄지속, 강도 증가
* '03년 유럽폭염으로 약 35천명 인명피해
- (집중호우, 태풍) 발생빈도가 광범위하게 증가, 피해 확대
* 05년 미국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1,836명사망, 09년 대만 모라꽃 670명 사망

미래 기후변화 양상의 다변화 및 재해취약지역 위험성 심화

- 해수면 상승으로 매년 수백만명 홍수피해 예상(아시아, 아프리카)
- 열대.아열대지역의 가뭄 심화(아프리카, 20년까지 75~250만명 물부족)
- 히말라야 빙하 해빙(20~30년내 아시아 지역 홍수와 산사태 증가)
- 극지방 빙하.빙상의 해빙으로 해안침식 증가



국내 현황

한반도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세계 평균을 상회

- 지난 100년간 1.7°C 상승(세계평균 0.74°C)
* 2020 1°C, 2050년 2°C, 2100년 4°C 상승 전망
- 해수면은 40년간 22cm 상승(세계평균 7cm)

이상기상 현상으로 강수량 증가, 가뭄 심화

- 100년간 강수량 19% 증가, 강우일수는 14% 감소

태풍, 일조부족 등 기상재해가 강화되는 추세

- 최근 초강력 태풍 피해 다발
* (03) 매미 농업피해액 8.6천억원, (06) 에위니아 2.8, (10) 곤파스 2.7
- 대규모 비정형 기상재해(일조부족, 냉해) 확대
* 10년 일조부족 시설채소 14천ha, 냉해로 농작물 39천ha 피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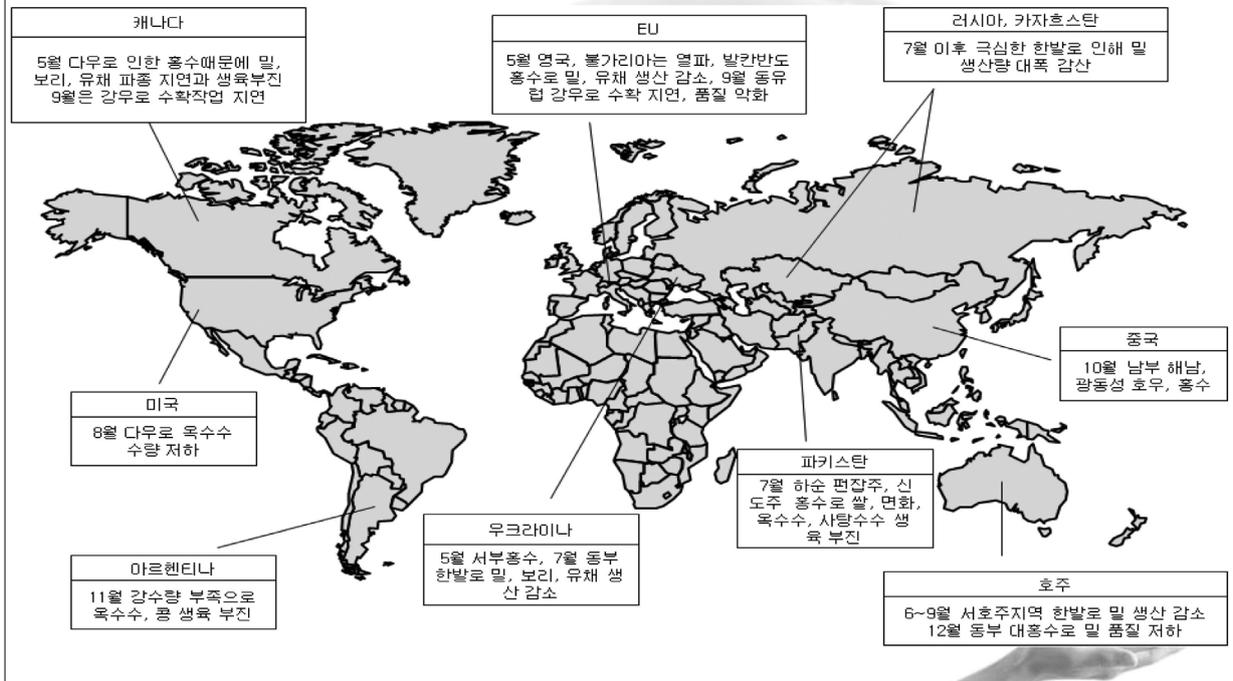
- 호주 이상고온과 100년만의 최악의 가뭄(2006)
- 밀 생산 차질로 농촌사회 마비, 농촌 토지 가격 곤두박질



- 러시아 가뭄으로 밀 생산량 감소 27%(2010)
- 수출 중단 → 세계 곡물가 상승



곡물수급에 영향을 미친 2010년 이상기후



II. 국제곡물시장의 특성 및 전망

국제곡물시장의 특성

교역물량 비중이 낮고 수출국가, 유통회사 등이 한정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의 작은 변화에도 가격이 크게 변화하는 Thin-market

- 전세계 생산량에 비해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 생산 대비 교역비율(%) : (08/09) 12.7 → (09/10) 13.0 → (10/11) 12.5
- 곡물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에 한정
 - * 상위 5대국가 점유율 : 밀 73%, 옥수수 89, 쌀 82, 콩 97
- 주요곡물 메이저가 시장을 장악
 - * 카길, ADM, 루이드레뤼스, Bunge, 콘아그라 등이 교역량의 80% 점유
- 곡물 수요증가, 공급축소에 비해 가격이 훨씬 큰 폭으로 상승
 - * 10년 곡물생산량 증감상황 : 밀 -5.5%, 콩 -1.5%, 옥수수 0.5%
 - * 10년 대비 11. 3월 가격상승 : 밀 50.4%, 콩 34.2%, 옥수수 68%



국제곡물시장의 여건

수요 증가

- 세계인구 증가 : (1920) 25억명 → (2010) 69 → (2025) 85
-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바이오연료(옥수수, 사탕수수) 수요 확대
-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국의 소비 증가
 - * 중국 1인당 육류 소비량 : (01) 49.2kg → (10) 59.9
-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공급량 증대 한계

공급능력의 둔화

- IT, BT, NT 등에 비해 농업기술 진보의 상대적 둔화
- 전세계적으로 과도한 방목, 산림의 벌채, 사막화 및 도시화
- 지하수 오염과 산업용수 수요증가로 농업용수 부족
- 환경보전 관심 고조로 농업생산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곡물부족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안(1)

● 2011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소요사태 동시 다발

- 중동국가내 소득 양극화 구조가 악화되는 가운데 곡물가와 식료품 부족이 결정적 원인
- 튀니지를 시작으로 알제리, 이집트 등 주변 중동 국가로 확산
-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정권붕괴 초래

| 국가 | 주요 사태 | 국가 | 주요 사태 |
|-----|----------------------|-----|------------------|
| 이집트 | 민주화 시위, 대통령 퇴진 | 튀니지 | 14명 사망, 정권붕괴 |
| 알제리 | 사망5명, 부상800, 투옥1,000 | 예멘 | 반정부 시위, 대통령 퇴진요구 |
| 모로코 | 경제문제와 집권층 부패 시위 | 요르단 | 식료품 가격폭등 항의 시위 |

곡물부족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안(2)

● 2008년 세계 각국에서 소요사태 발생

| 국가 | 주요 사태 | 국가 | 주요 사태 |
|-------|-----------------|--------|-------------------|
| 아이티 | 시위로 6명 사망, 총리퇴진 | 아프카니스탄 | 국경엄거래 사회불안 가중 |
| 태국 | 쌀 도둑 방지 위해 군대경비 | 필리핀 | 쌀배급 감독, 대통령 퇴진요구 |
| 방글라데시 | 식량폭동으로 28명 부상 | 카메룬 | 24명 사망, 1500명 부상 |
| 이집트 | 빵 구입 줄서기중 6명 사망 | 예멘 | 식량폭동 12명 사망 |
| 아이보리 | 1명 사망, 20명 부상 | 카자흐스탄 | 빵값 상승, 300만명 고통 |
| 소말리아 | 시위대에 발포, 5명 사망 | 인도네시아 | 콩, 쌀 부족, 만명 이상 시위 |
| 모로코 | 식량폭동 혐의로 34명 투옥 | 모리타니아 | 2명 사망, 10명 부상 |

곡물부족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안(3)

● 2010년 주요수출국의 수출입통제 사례

| 국가명 | 종류 | 조치 내용 | 적용기간 |
|-------|-------------------|-----------------|-------------------|
| 러시아 | 보리, 밀, 옥수수 | 수출 금지 | 10/8/15~ |
| | 곡물 | 수출금지조치 연기 | 10/10/1~ |
| 중 국 | 옥수수전분, 주정 등 43 품목 | 수출세 환급 취소 | 10/07/15~ |
| | 유전자변형 옥수수 11종 | 수입허용 | 10/07/30~ |
| 베트남 | 쌀 | 최저 수출가격 인상 | 10/8/23~ |
| 인 도 | 쌀, 밀 | 수출제한 | 10/9/24~ |
| 우크라이나 | 밀, 보리 | 수출할당 | 10/9/1~10/12/31 |
| 카자흐스탄 | 밀 | 수출량의 20%를 국내 판매 | 07/10월 상순~ |
| | 밀 | 수출세 부과(110만 부셀) | 08/2/25~ |
| 세르비아 | 밀, 옥수수 | 수출금지 | 07/8/4~08/3/5 |
| | 소맥분, 분쇄옥수수 | 수출할당 | 07/11/4~08/3/5 |
| 이집트 | 쌀 | 수출제한 | 10/09/21~11/10/31 |
| 파키스탄 | 밀, 소맥분 | 수출세 | 07/9~ |

국제곡물 수급전망(1)

● 2010. 7월 흑해 연안국의 가뭄피해로 국제곡물가격 상승세 지속

옥수수 → 전년대비 54% 상승(11.3.15 현재)

밀 → 전년대비 35% 상승

대 두 → 전년대비 27% 상승

쌀(조곡) → 전년대비 5% 상승

● 올해 세계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2.3%감소, 기말재고 10.5%감소 전망

아르헨티나(1월, 가뭄) → 콩 옥수수 생육부진

호주 동남부(1월, 홍수) → 밀 품질저하 및 생산량 감소 예상

❖ 4월이후 미국, 캐나다, EU 등 기상 상황이 생산량을 좌우

<2010/11 국제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 2008/09 | 2009/10 | 2010/11 (전망) | 2009/10 대비 | 2008/09 대비 |
|-------|----------|----------|-----------------|---------------|---------------|
| 생산량 | 2,242.44 | 2,230.87 | 2,178.77 | -2.3% | -2.8% |
| 교역량 | 285.64 | 289.58 | 268.37 | -7.3% | -6.0% |
| 소비량 | 2,158.39 | 2,197.01 | 2,229.94 | 1.5% | 3.3% |
| 기말재고량 | 452.85 | 486.71 | 435.55 | -10.5% | -3.8% |
| 기말재고율 | 21.0% | 22.2% | 19.5% | -2.7%p | -1.5%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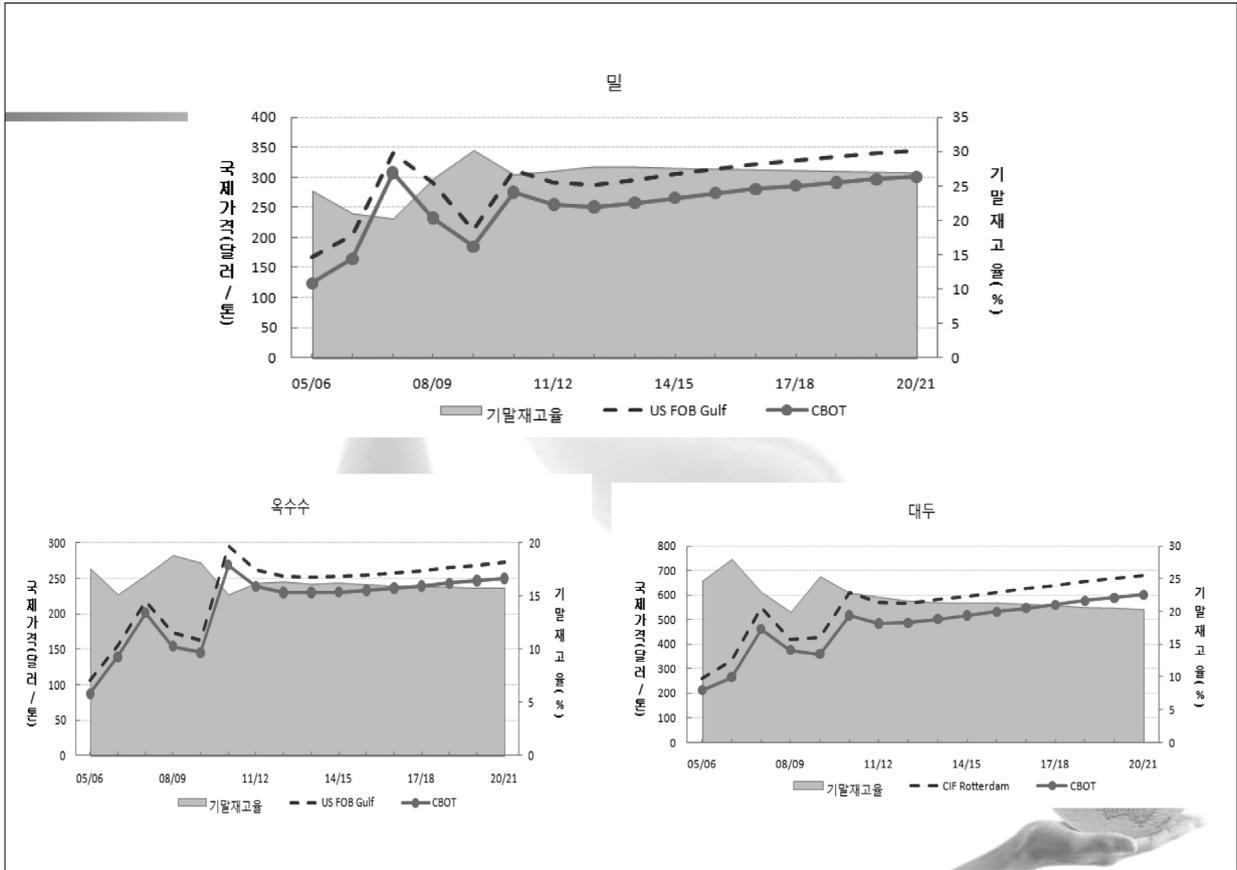
국제곡물 수급전망(2)

- 기후변화로 공급감소,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국 수요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당분간 가격상승 지속 전망 [한은]

- 2020년까지 재고율 회복이 어려워 가격상승세 유지 전망 (FAPRI)

< 주요 품목의 재고율 및 가격 전망 >

| 품 목 | 2010/11년 | 2020/21년 |
|-----|----------------|----------------|
| 밀 | 26.7%, 275달러/톤 | 27.1%, 301달러/톤 |
| 옥수수 | 14.6%, 269달러/톤 | 16.4%, 288달러/톤 |
| 콩 | 22.8%, 517달러/톤 | 20.6%, 601달러/톤 |



Ⅲ. 우리의 식량수급 현황

국제곡물가 급등에 취약(1)

높은 해외 의존도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 80%이상
- 4대 곡물메이저 회사의존도가 70%이상
- 해외농업개발(30만ha)은 초기단계
- 국내소요 곡물의 70%이상을 해외에서 조달

가격급등시 대처능력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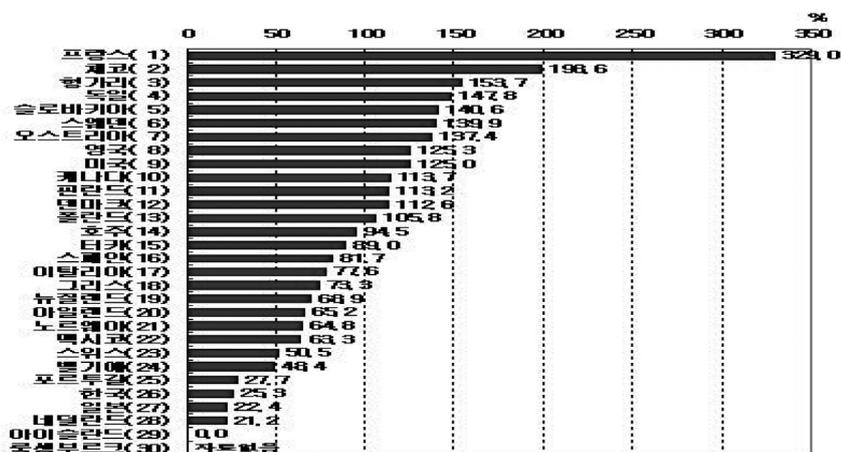
- 쌀에 한해 공공비축 실시(72만톤)
 - * 연간 국내소비량(426만톤)의 17%수준인 72만톤 공공비축
- 콩, 옥수수, 밀 등 기타 곡물은 비축미실시로 대응여력 부재
 - * 콩, 보리는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소량 구매(단, 보리는 12년 구매폐지)



국제곡물가 급등에 취약(2)

낮은 식량자급률

- 2006년에 15년도 식량자급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계속 하락 추세
 - * 주식자급률 : (05) 65.9% → (07) 64.6 → (09) 70.3 → (15) 54
 - * 곡물자급률 : (05) 29.4% → (07) 27.2 → (09) 29.5 → (15) 25
- OECD회원국중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최하위권



자료: FOOD BALANCE SHEETS (<http://faostat.fao.org>) 2003년



밀·옥수수·콩의 수입 수요량 및 확보 현황

| 품 목 | 연간 수입수요량 | 3.8 현재 확보량 | 확보율 |
|-------------|--------------|--------------|-----|
| 계 | 1,332만톤 | 927만톤 | 69% |
| 밀 (식용/사료용) | 350(200/150) | 266(136/130) | 76 |
| 옥수수(식용/사료용) | 860(210/650) | 593(120/473) | 69 |
| 콩(식용/사료용) | 122(32/90) | 68(17/51) | 56 |



IV. 대 응 방 안

기본모형

주요 곡물의 안정생산, 조달체계 구축

○ 국내생산 확대

○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 수입곡물 수요감축

○ 해외농업개발

주요곡물 국가비축 도입 : 국내소비량의 12~17% 수준

인프라 구축 : 국제곡물관측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1. 국내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률 제고(1)

● 농지이용계획 제도화, 통합이용모델 구축

- 지자체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 통합관리체계 구축

< 농지이용 모델(예시) >

| 논 | | | 밭 | | | | |
|-----|-------------|--------|---|-----|-----|----|----|
| 밭살용 | 기능성 가공용쌀 | 지역특화작목 | 콩 | 옥수수 | 조사료 | 잡곡 | 기타 |

● 하계 논농업 다양화로 콩, 사료, 잡곡생산 확대

- 13년까지 매년 4만ha 논 대상으로 타작물 재배시 소득차 보전(300만원/ha)
- 논콩, 사료작물 재배확대로 식량자급률 향상

● 밭작물 산업육성으로 콩, 옥수수, 잡곡생산 확대

- 밭작물 기반정비확대 : (10년까지) 20천ha → (15) 25
- 밭작물 기계화 촉진 : (10) 46% → (15) 60
- 생산·유통·저장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 마련

추진과제 1. 국내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률 제고(2)

- 2모작 활성화, 겨울철 유휴농지에 밀, 조사료, 녹비작물 재배 확대
 - 10년 겨울철 재배농지는 417천ha, 15년까지 추가로 164천ha에 동계작물 재배
 - 국산밀 재배확대 : (10) 13천ha → (15) 53
 - * 12년까지 숙기단축(6월상순 → 5월하순), 밀 건조·저장시설 확대(10년/12개소 → 15/58)
 - 동계조사료 재배확대 : (10) 155천ha → (15) 240
- 2015년 국내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
 - 주식자급률 : (기존) 54% → (15) 70, 밀 자급률 : (기존) 1% → (15) 10
 - 식량자주율 개념도입 : (10) 27% → (15) 57
 - * 국내생산 뿐만아니라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생산·유통하는 물량까지 포함
- 국내생산기반 확충 총력대응체계 구축
 -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농업기술센터 등이 연계하여 콩, 밀, 조사료 등의 생산확대 추진



추진과제 2. 곡물 수입의존도 축소

- 축산사료 수요감축 (사료용 48만톤 수입축소)
 - 젓소, 한우 등 국산조사료 급여확대 : (10) 조사료 5 : 배합사료 5 → (12) 6 : 4
 - 적정사육두수 유지로 사료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
- 밀가루 대체용 쌀가루 생산·소비 확대 (밀 40만톤 수입대체)
 - 외식업소의 쌀가루 혼합(10%) 유통체제로 전환시 연 3~4만톤 소비 확대
 - 가정용 등 모든 분야로 확산시 연 20~40만톤 소비 가능
 - * 심각단계에서는 모든 제분업체에 쌀 밀가루 유통권고 지도
- 콩 두부를 쌀 두부로 대체 (콩 7~14만톤 수입대체)
 - 군·학교 등 공공급식부터 쌀두부로 대체하고, 대형유통업체에 쌀두부 입점 유도로 소비자 인식제고
 - 쌀 가루 20% 혼합시 연간 7만톤 쌀소비 확대(40% → 14만톤)



추진과제 3. 안정적인 해외조달 시스템 구축(1)

- 2015년까지 민관합동 『해외곡물 유통망』 조기구축
 - 유통공사와 민간기업(4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곡물유통회사를 설립, 밀·콩·옥수수의 국내도입 추진
 - * 11년 콩·옥수수 10만톤 도입, 15년 400만톤 도입역량 구축
 - 구매, 저장, 운송, 판매에 이르는 종합유통체계 구축

- 『민관합동협의회』 구성, 다양한 방식의 공동도입 추진
 - 농식품부, 농진청, 곡물유통회사, 농어촌공사, 제분회사, 사료협회 등으로 구성
 - 현지 계약재배, 도입특약체결, 선물거래, 베이스스거래, 해외농장 개발 등을 통해 물량 확보
 - 농자재(종자·비료 등) 지원, ODA등 국제원조, 영농기술 전수 등과 연계하여 해외 생산 곡물의 국내도입 계약 체결 추진



국가곡물조달 목표

2015년까지 총 400만 톤 국내도입
 (연간 수입량 1,400만 톤의 30% 도입)

(연간 수입량 1,400만 톤의 30% 도입)

옥수수 250만 톤

밀 100만 톤

콩 50만 톤

2020년까지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정착
 (연간 수입량 1,400만 톤의 70%(980만 톤) 민·관이 도입)

(연간 수입량 1,400만 톤의 70%(980만 톤) 민·관이 도입)

추진과제 3. 안정적인 해외조달 시스템 구축(2)

● 해외농업개발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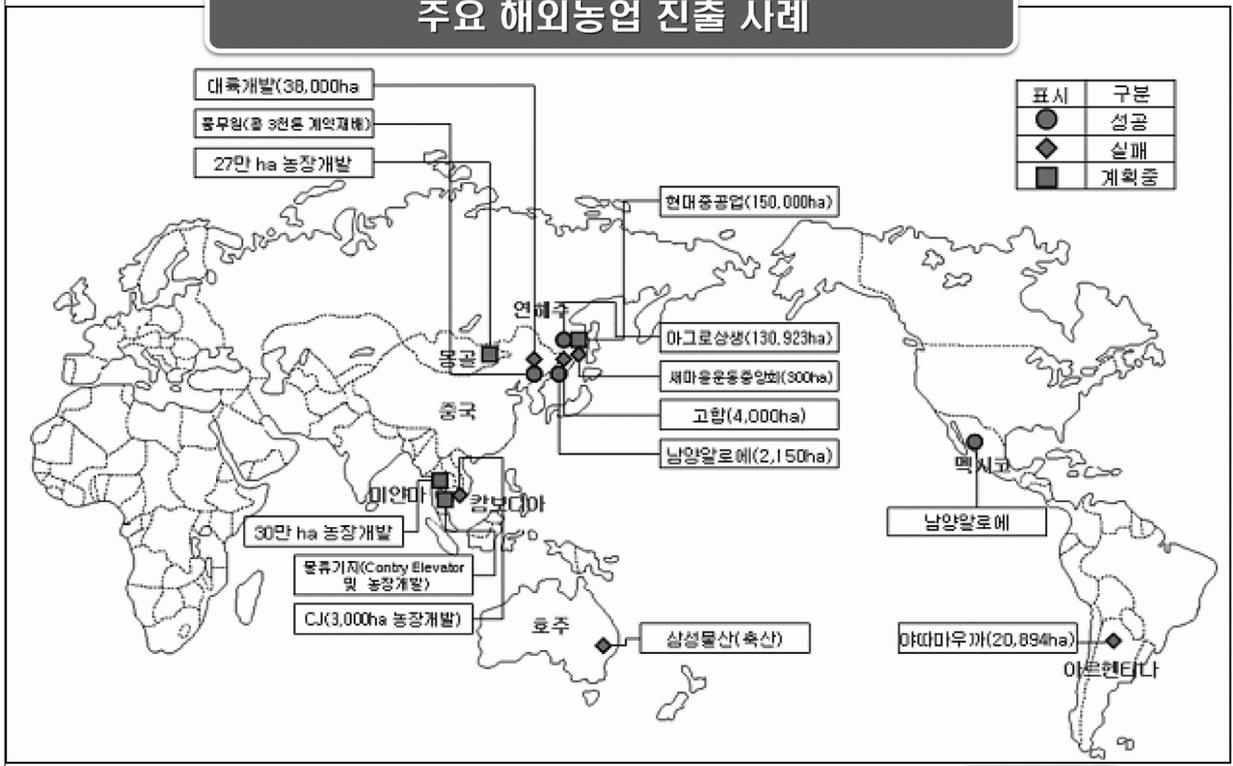
-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2009. 6월)
- 2018년까지 138만톤 수준의 해외공급망 확보 추진(10년말 7개국, 18개기업 진출)
- 해외농장개발(농기계, 부대시설)과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 지원
- 국제곡물수급 불안정시 해외 생산량의 국내도입 추진(밀.콩.옥수수 우선반입)
- 해외 농업 투자의 안전성 확보장치 마련
 - 진출국가와의 상호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 외교적 협력 강화

< 해외개발 경험 >

- [60-70년대] 정부주도, 남미농장 5개소 : 부적지 선정, 영농의지 부족 등 실패
- [80년대-2007] 민간 주도, 경험부족 및 유통망 미확보 등으로 실패
 - 풀무원(중국), 남양알로에(연해주) 등 실수요자가 진출한 경우 안정적으로 사업 정착
- [08년이후] 민간주도, 정부는 장기전략 수립 및 금융.기술 등 지원
 - 민간합동 진출의 시범모델로 필리핀 MIC사업 추진 중



주요 해외농업 진출 사례



해외농업 개발사업 추진체계

용자사업

농장형 : 현지생산

- 농기계구입, 부대시설 비용

* 토지 임대 및 매입비용 제외

유통형 : 현지곡물 수송

- 건조, 가공, 저장 시설 비용

보조사업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 정부주도조사
- 기업주도조사

해외농업개발지원

-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 **D/B** 구축 및 컨설팅

사업분석 및 평가

- 심의회 운영
- 평가단 운영

농장형 해외농업 개발사업



유통형 해외농업 개발사업



일본 메이저 기업의 동향(1)

● 곡물 및 식품산업에 초점

- '신흥개도국의 육류소비가 늘고,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는 메가트렌드에 따라 곡물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곡물, 식품사업 투자 강화

● 신흥개도국에 집중 :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

- 금융위기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하면서도, 향후 폭발적인 수요증대가 기대되는 중국 식품시장에 공격적 진출
- 북남미에서 구입한 대두 등을 납품하면서 중국시장 판로 확보

일본 메이저 기업의 동향(2)

| 업 체 명 | 주요 동향 |
|-------|---|
| 마루베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영 곡물비축기업인 시노그레인과 대두 조달량의 10%를 안정적으로 사주는 계약 체결(2008) □ 브라질 곡물 집하업자 '아마지', 아르헨티나 식품업체 '모리노 카뉴에라스'와 업무 제휴(2009. 5월) □ 러시아와 동유럽 판로를 위한 현지업체 인수합병 계획 |
| 이 토 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X팬오션(20%), 병기(51%)사와 미국 곡물터미널사업 진출(2009. 6월) □ 대만의 대형 식품유통체인 당신에 출자(지분20%) 예정 □ 최근 중국 최대 곡물도정업체인 코프코(cofco)와 제휴관계 체결 □ 미국 태평양 연안에 물류 터미널시스템 완공, 1,100만~1,200만톤 정도인 곡물 거래 규모를 2,000만톤 까지 끌어 올릴 계획(2011) |
| 미쓰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미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곡물의 집하와 출하 기능 강화 계획 |
| 미 쓰 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에서 10만ha 규모의 농장 매입, 현재 추가 투자처 물색 중 |

국가곡물조달 시스템



- 미국 유통망의 메이저 점유율 : 강변 EL 174개중 117(67%), 수출 EL 58개중 25(43%)
- 일본은 30년전부터 자국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현재 수입량(27백만톤)의 70%를 도입

추진과제 4. 주요곡물 국가비축제도 도입확대

- **비축현황** : 쌀에 대한 공공비축 72만톤(국내소비량의 17%) 실시 중
- **비축계획** : 쌀 이외, 밀.콩.옥수수 연간 소비량의 12~17% 수준
 - [기본비축] 연간소비량의 12% 수준(식용+가공용 552천톤)
 - [추가비축] 가격급등 예상시 17%수준으로 확대(230천톤 추가)
- **비축원칙** : 비용 최소화, 시장왜곡 발생방지, 필요시 적기 시장공급
- **도입 및 비축방식**
 - 시카고 곡물거래소 등을 통해 선물거래(현지보유), 베이스거래(현지보유), 일부 국내비축+베이스거래(현지보유) 등 다양한 방식 검토중



< 실행방안 검토 >

| 구분 | Basis 거래(1안) | 현물비축 + Basis(2안) | 선물거래(3안)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관리비용 절감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 현물 확보와 동시에 곡물 가격 변동위험 회피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폭등 등 비상시 즉시 곡물공급 가능 ○ 시장 불안심리 해소를 투기적 가수요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관리비용 절감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 현물 매입을 하지 않아 운송비 등 비용 절감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폭등 등의 비상시 신속한 대처 곤란 ○ 확보한 현물 처리시 손실 발생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보관에 따라 재정 부담 증가 ○ 비축창고(188천톤 규모) 건축시 약 9백억원 소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을 현물로 전환시 필요물량 확보에 애로 ○ 가격폭등 등의 비상시 신속한 대처 곤란 |



추진과제 5. 국제곡물 관측시스템 구축

- 국제곡물 정보수집을 위한 해외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요원 확충, 각국 농업뉴스 항시 모니터링, 주요국 관측연구소와 제휴
- 국제곡물 관측모형 개발
 - USDA, FAPRI 등과 공동연구로 품목별 국제수급과 가격예측 시스템 구축
 - 관측모형을 통해 국내파급영향 분석, 정책방향 제시
- 국제곡물관측센터 설립 추진 : 농업관측센터 내 별도팀 신설
- 국제곡물분석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곡물수급 단계별 조기경보 발령
 - 발령단계(5단계) : 정상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위기단계 진입시 민관합동 곡물수급 비상대책반을 구성, 신속 대응



식품산업의 해외농업개발의 성공과 실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택 박사





Profile

김 용 택

학 력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 학사

경 력

한국농업경제학회 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센터장
한국농업경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본부 선임연구위원
농림기술관리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소장

농식품산업 해외직접투자의 실패와 성공¹⁾

1. 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농식품산업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갈수록 국내 농식품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 번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기로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식품기업은 갈수록 높아지고 불안정해지는 국제곡물가격에 대비하여 원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만 하였다.

지난 10년간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국가 간에 생산요소, 상품,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었고, 국민경제와 함께 국내 식품시장도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대형 할인마트, 협동조합, 식품회사들의 계약생산이 확대 되고, 농업생산, 가공, 식품판매 등이 빠르게 통합 되면서 국내 식품산업구조와 글로벌 식품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 농식품기업은 단순히 글로벌 차원의 생산 단계를 넘어서 전후방산업 단계로 기능을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제 국내 농산물가격은 해외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에 따라 달라진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국내외 식품시장에서 국내생산을 해외생산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생산 농산물만으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려는 것은 농산물 수출국과의 가격경쟁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인건비와 임차비가 싼 해외에서 생산한 후 이를 현지 판매하거나 인근 대규모 소비지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이 농산물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소비자 입맛의 탈계절화와 탈지역화이다. 고품질의 신선식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식품원료의 해외조달이 필요해졌다. 특히 국내 생산이 안 되거나 계절적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신선식품을

1) 김용택외, 『식량안보에 대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2/3차년도)』 중의 일부를 재조정하여 작성하였음.

대상으로 이런 경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식품유통을 주도하는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 농산물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해외 공급망을 확대할 경우, 국내 농업이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식품산업의 세계적 공급체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농업생산과 보완되는 지역 또는 농업생산이 유리한 지역에 농업생산기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소비시장이다. 향후 한·중·일 식품소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해외농업투자를 통하여 중국시장과 일본 시장 등에 진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후 국내 농식품기업의 해외투자가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근 국내 농식품산업의 해외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과가 어떤지를 분석해 보며, 보다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과 성공사례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2.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2.1. 외국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전 세계적으로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잔액(stock)은 132.8억불로 전체 업종의 0.08%에 불과하다. 2006년~2008년의 전 세계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291백만불로 1990년~1992년 투자금액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농림어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농업 부문에 대한 높은 산업 규제, 외국인들에 대한 농지 소유권 제한, 직접 경작보다는 전후방 산업의 공급망(Supply Chain) 지배를 선호하는 기업 전략 등에 기인한다. 유출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투자 비중이 높고, 유입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는 개도국의 경제 상황에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중요 산업이며, 개도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경작을 위한 토지 이용의 용이성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세계 식음료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투자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식음료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2008년 중 624.5백만불을 기록하여 1990년~1992년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전체 업종 대비 비중은 5.8%에서 3.3%로 하락하였다. 식음료제조업의 경우 유출과 유입 측면 모두 선진국의 투자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는 가치사슬상의 농업 관련 산업 중 고부가가치 활동이 대부분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 세계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

| | FDI 유량(Flows) | | | | FDI 저장(stock) | | | |
|------------|---------------|-----------------|---------------|-----------------|-----------------|------------------|-----------------|------------------|
| | 유입 | | 유출 | | 유입 | | 유출 | |
| | 1990-92 | 2006-08 | 1990-92 | 2006-08 | 1990 | 2008 | 1990 | 2008 |
| 선진국 | 13 (0.01) | 170 (0.01) | 472 (0.23) | 756 (0.04) | 3,733 (0.22) | 13,271 (0.11) | 4,000 (0.19) | 10,688 (0.07) |
| 개도국 | 696 (1.49) | 4,651 (1.02) | 35 (0.76) | 533 (0.29) | 4,851 (1.26) | 15,841 (0.47) | 359 (1.56) | 2,568 (0.15) |
| 남동유럽 및 CIS | - | 1,379 (0.91) | - | 1 (0.04) | - | 2,676 (0.84) | - | 20 (0.13) |
| 세계 | 709 (0.4) | 6,200 (0.35) | 508 (0.24) | 1,291 (0.07) | 8,584 (0.41) | 31,789 (0.21) | 4,359 (0.21) | 13,275 (0.08) |

주: ()은 각 그룹의 전체 산업 중 농림어업의 비중임.

〈표 2〉 세계 식음료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

| | FDI 유량(Flows) | | | | FDI 저장(stock) | | | |
|------------|-----------------|------------------|------------------|------------------|------------------|-------------------|------------------|-------------------|
| | 유입 | | 유출 | | 유입 | | 유출 | |
| | 1990-92 | 2006-08 | 1990-92 | 2006-08 | 1990 | 2008 | 1990 | 2008 |
| 선진국 | 4,708 (3.68) | 56,707 (4.84) | 12,369 (5.90) | 59,146 (3.51) | 76,117 (4.48) | 466,979 (3.96) | 84,989 (4.12) | 483,364 (3.33) |
| 개도국 | 2,394 (5.14) | 8,138 (1.79) | 77 (1.67) | 3,277 (1.79) | 11,039 (2.88) | 61,838 (1.83) | 341 (1.48) | 3,470 (0.21) |
| 남동유럽 및 CIS | 56 (3.75) | 4,909 (3.25) | - | 30 (1.33) | - | 12,763 (4.02) | - | 491 (3.12) |
| 세계 | 7,159 (4.07) | 69,754 (3.93) | 12,446 (5.81) | 62,453 (3.34) | 87,156 (4.19) | 514,580 (3.50) | 85,331 (4.09) | 487,326 (3.01) |

주: ()은 각 국 그룹의 전체 산업 중 식음료 제조업의 비중임.

미국의 농림어업 분야의 순대외직접투자¹⁾는 2009년 약 1.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전체 업종 대비 농림어업의 순대외직접투자 비중이 매우 낮다. 중국의 농림어업 분야 순대외직접투자는

1)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에서 유입액을 뺀 국제수지표 작성 기준 금액임.

2005년 1.1억불에서 2009년에는 3.4억불로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순대외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에 전년대비 36.8% 감소하였지만,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투자증가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일본의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순대외직접투자는 2005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순유출을 유지했다. 일본은 2008년까지 순대외직접투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2009년에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후 2009년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한 것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식음료 제조업 투자는 전체 투자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량자원을 안보 차원으로 인식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중국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대외 투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2008년까지 꾸준히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미국은 동 분야의 대외직접투자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기 3개 국가는 세계 및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자과 같이 농림어업 직접투자 규모보다 식음료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 미중일의 농림어업 및 식료품제조업 순대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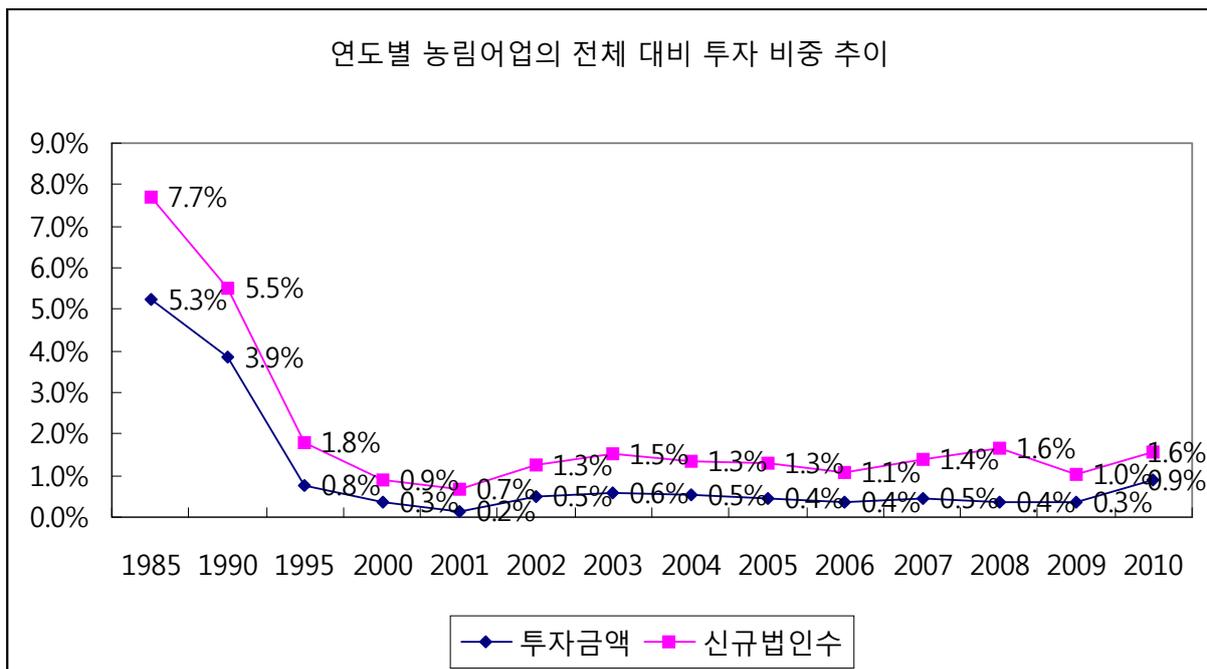
(단위: 천\$)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미국 | 농림어업 | 169,000 | 80,000 | 150,000 | -37,000 | 117,000 |
| | 식료품 제조업 | 1,171,000 | 2,736,000 | 11,045,000 | 3,939,000 | 3,429,000 |
| 중국 | 농림어업 | 105,360 | 185,040 | 271,710 | 171,830 | 342,790 |
| 일본 | 농림어업 | -21,000 | 70,000 | 157,000 | 178,000 | 46,000 |
| | 식료품 제조업 | 1,685,000 | 1,025,000 | 12,776,000 | 3,601,000 | 8,954,000 |

2.2.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²⁾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신규법인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업종대비 각각 0.2~0.9%, 0.7~1.8% 수준으로 전체 업종 대비 농림어업투자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그림 > 참조).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1985년에는 농림어업이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상회한 바 있으나, 1990년대 이후 타 업종 해외직접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비중이 감소하였다. 농림어업 분야 투자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의 인도네시아 벌목업 투자를 시작으로, 2010년 9월 현재까지 전 세계 72개국에 걸쳐 총 796개의 법인이 설립되었고, 금액 기준으로 약 9억 2백만불이 투자되었다(<그림 1> 참조). 농림어업 투자는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와 투자금액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다.

〈그림 1〉 연도별 전체 업종 대비 농림어업의 투자 비중



2) 농림어업과 식음료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보고 농업관련 도소매업과 농자재 제조업 등은 제외함.

식음료 제조업은 1972년 삼양식품의 브라질 투자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60개국에 걸쳐 총 1,571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33억 1백만불의 금액을 투자(<표 4> 참조) 하였다. 이는 농업 연관 산업 전체 금액의 88.6%, 농림어업과 농업 연관 산업을 합친 금액의 71.5%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 업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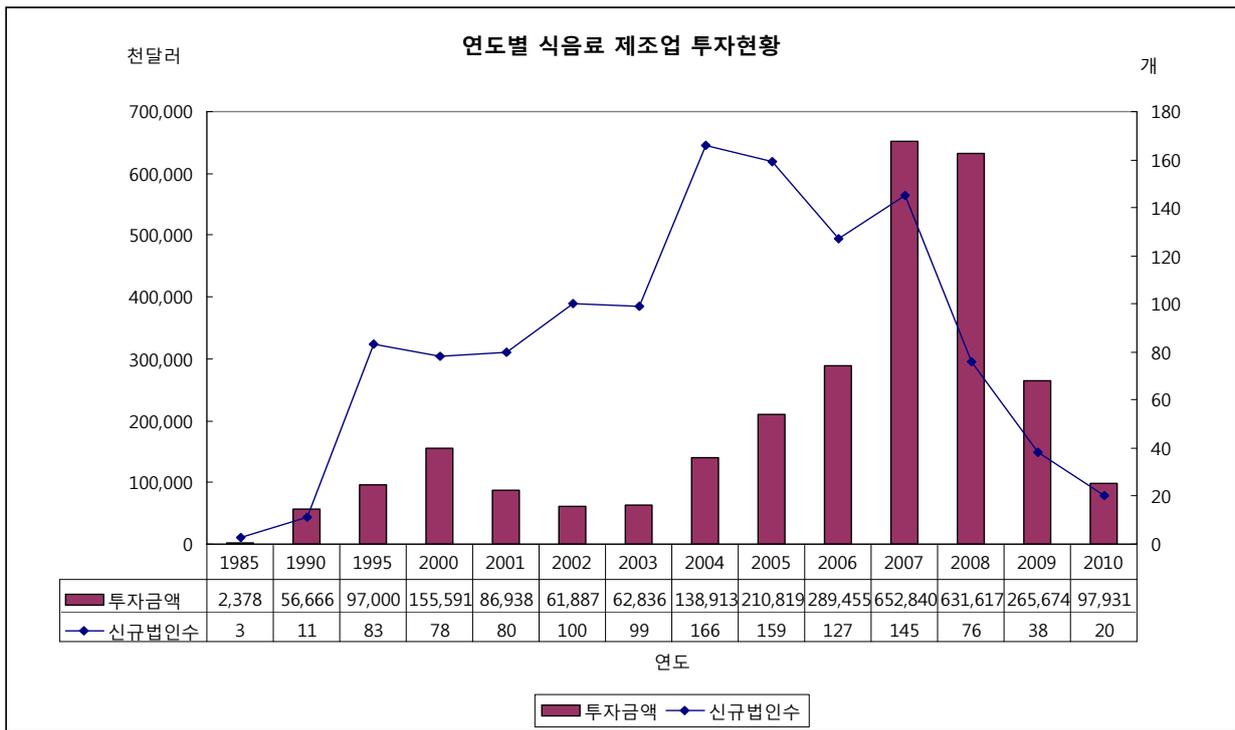
〈표 4〉 농림어업과 농업연관산업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2010. 10 현재)

(단위: 개, 천\$)

| 업종 대분류 | 업종 중분류 | 신규법인수 | 투자금액 |
|--------------------|-----------|-------|-----------|
| 농업, 임업 및 어업 (1) | 농업 | 452 | 373,239 |
| | 임업 | 66 | 294,981 |
| | 어업 | 278 | 233,558 |
| | 소 계 | 796 | 901,778 |
| 농업연관산업 (2) | 농산물 도소매업 | 504 | 306,555 |
| | 식음료산업 | 1,571 | 3,301,362 |
| | 농자재제조업 | 119 | 116,504 |
| | 소 계 | 2,194 | 3,724,421 |
| 합계(1 + 2) | | 2,990 | 4,626,199 |

식음료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신규법인수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투자금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과 2008년 들어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2〉 연도별 식음료 제조업 투자현황



농림어업은 전체 신규법인 수의 59.7%와 전체 투자금액의 40.2%가 아시아에 투자되고 있어 농림어업 투자가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다. 투자 금액 측면에서 보면 對 대양주, 對 중남미 투자 순서이며,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표 5〉 농림어업의 지역별 투자

(단위: 개, 천\$)

| | | 합 계 | 아시아 | 중동 | 북미 | 중남미 | 유럽 | 아프리카 | 대양주 |
|-----------|------|---------|---------|-----|--------|---------|---------|-------|---------|
| 투자 금액 | 농림어업 | 901,778 | 362,773 | 145 | 90,848 | 129,091 | 105,161 | 9,775 | 203,985 |
| | 농업 | 373,240 | 178,771 | 145 | 35,250 | 15,668 | 99,274 | 1,241 | 42,893 |
| 신규 법인수 | 농림어업 | 796 | 475 | 1 | 99 | 83 | 59 | 24 | 55 |
| | 농업 | 452 | 317 | 1 | 60 | 9 | 35 | 2 | 28 |

주: 1968년부터 2010년 9월까지의 누적치

식음료 제조업은 전체 신규법인 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80.8%인 1,270개, 전체 투자금액의 56.1%가 아시아에 투자되었다. 전체 신규법인수 대비 66.3%인 1,042개가 설립된 중국이 최대 설립 국이며 그 뒤로 미국(163개), 베트남(46개), 인도네시아(37개),

필리핀(35개) 순으로 설립되었다.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28.9%에 해당하는 954백만 불의 투자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538백만 불), 네덜란드(430백만 불), 인도네시아(369백만 불), 러시아(183백만 불)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6〉 식음료 제조업의 지역별 투자

(단위: 개, 천\$)

| | 합계 | 아시아 | 중동 | 북미 | 중남미 | 유럽 | 아프리카 | 대양주 |
|-----------|-----------|-----------|--------|---------|---------|---------|------|--------|
| 투자금액 | 3,301,362 | 1,851,748 | 16,514 | 543,331 | 111,763 | 707,245 | 521 | 70,240 |
| 신규 법인수 | 1,571 | 1,270 | 3 | 181 | 36 | 38 | 3 | 40 |

〈표 7〉 식음료 제조업의 국가별 투자 상위 5개국

(단위: 개, 천USD)

| 신규법인수 | | | 투자금액 | | |
|-------|-------|--------|-------|-----------|--------|
| 합계 | 1,571 | 100.0% | 합계 | 3,301,362 | 100.0% |
| 중국 | 1,042 | 66.3% | 중국 | 953,683 | 28.9% |
| 미국 | 163 | 10.4% | 미국 | 537,596 | 16.3% |
| 베트남 | 46 | 2.9% | 네덜란드 | 430,243 | 13.0% |
| 인도네시아 | 37 | 2.4% | 인도네시아 | 368,504 | 11.2% |
| 필리핀 | 35 | 2.2% | 러시아 | 183,373 | 5.6% |

3. 국내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³⁾

3.1. 국내 농식품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업력, 판매처

지역별 투자 잔액은 아시아가 47.8%로 가장 높고, 북미가 27.4%, 유럽이 13.6%이며, 기타 중남미 7.8%, 아프리카 1.9%, 대양주 0.8%, 중동 0.7% 순이다. 기업 규모별 투자 잔액은 대기업이 38.6%, 중소기업이 47.4%, 개인 1.5%, 개인기업 0.4% 순서이다.

〈표 8〉 현지법인의 지역별 잔액

(단위: 천\$)

| | 대양주 | 북미 |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 중남미 | 중동 |
|---------|--------|---------|-----------|--------|---------|---------|--------|
| 농림어업 | 12,168 | 13,506 | 69,866 | 39,907 | 49,628 | 10,404 | - |
| 연관도소매업 | - | 89,348 | 86,834 | - | 10,661 | 550 | - |
| 식음료제조업 | 3,618 | 437,288 | 657,761 | - | 223,843 | 106,932 | 15,190 |
| 농자재제조업 | - | 25,648 | 77,434 | - | - | - | - |
| 바이오연료산업 | - | - | 108,643 | - | - | 45,200 | - |
| 연구개발업 | - | 6,855 | - | - | - | - | - |
| 합계 | 15,786 | 572,645 | 1,000,538 | 39,907 | 284,132 | 163,086 | 15,190 |
| 비중(%) | 0.8 | 27.4 | 47.8 | 1.9 | 13.6 | 7.8 | 0.7 |

2009년말 기준으로 영업개시 이전인 현지법인을 제외할 경우,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평균 업력은 약 6.3년이였다. 업종별 업력은 농림어업 5.6년, 연관 도소매업 6.2년, 식음료 제조업 7.1년, 농자재 제조업 6.1년 등 평균 6.3년이며, 최근 들어 투자가 본격화된 바이오 연료산업의 경우 2.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판매처별 매출 비중은 현지매출 42.3%, 한국 매출 39.3%, 제3국 매출 18.4% 순이었다. 농림어업 투자는 해외에서 자원 등을 취득하여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타 업종과 비교할 때 현지매입 비중이 더 높고, 한국 매출 비용이 더 높은

3) 분석대상인 현지법인수는 2009년 말 기준 215개로 해당 업종의 전체 법인수 대비 11.0% 수준이나, 투자 잔액은 2,091백만불로 전체 대비 65.6%에 해당한다.

특징을 보인다. 매입처별 매입비중⁴⁾은 현지 55.7%, 한국 26.2%, 제3국 18.1% 순이다.

〈표 9〉 농식품 산업의 생산물 판매처(2009년)

(단위: 천\$, %)

| | 현지 | | 한국 | | 제3국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농 립 어 업 | 2,763,960 | 42.3 | 2,569,089 | 39.3 | 1,200,451 | 18.4 |
| 전 체 업 종 | 226,524,621 | 63.8 | 55,113,636 | 15.5 | 73,626,165 | 20.7 |

3.2. 대상 농식품기업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2009년 농림어업의 매출액은 총 7천 6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영업 손실 3백만불과 당기순손실 972만불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률 -4.1%, 당기순이익률 -12.9%로 영업수익성은 열악한 편이며, 우리나라 전체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2.3%, 당기순이익률 1.3%에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표 10〉 2009년 농림어업 매출 현황

(단위: 천\$, %)

|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률 |
|---------|-------------|-----------|-------|-----------|--------|
| 농림어업 | 75,934 | -3,088 | -4.1 | -9,772 | -12.9 |
| 전 체 업 종 | 364,491,076 | 8,455,826 | 2.3 | 4,768,799 | 1.3 |

3.3. 해외직접투자 농식품기업의 재무건전성

농림어업 해외현지법인의 재무건전성은 전체 현지법인 대비하여 열악한 수준이다. 2009년말 기준 부채비율 266.1%, 유동비율 118.0%, 차입금의존도 57.9%, 이자보상배율 -1.0배 등 제반 재무안정성 지표가 부진한 편이다.

4) 매출원가 중 원재료 매입액은 농림어업이 76.5%(농업은 67.0%)를 차지, 전체 산업 평균의 95.4% 비해서 크게 낮음.

〈표 11〉 농림어업 재무 현황(2009년)

(단위: %, 배)

|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차입금의존도 | 이자보상배율 |
|------|-------|-------|--------|--------|
| 농림어업 | 266.1 | 118.0 | 57.9 | -1.0 |
| 전체업종 | 176.2 | 114.3 | 25.7 | 3.5 |

농림어업 투자자는 대부 투자 이자로 43만 1천불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당기순손실 규모가 커서 전체 투자수익률은 -4.6%를 기록하였다. 2009년 중 한국 투자자에 17만 6천불의 배당금을, 한국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494만 1천불을 지급하였다.

〈표 12〉 농림어업 투자수익(2009년)

(단위: 천미불, %)

| | 투자자순수익 (A) | 로열티 (B) | 대부이자 (C) | 투자수익합계 (A+B+C) | 투자수익률 |
|------|---------------|------------|-------------|-------------------|-------|
| 농림어업 | -8,862 | - | 431 | -8,431 | -4.6 |
| 전체업종 | 3,197,104 | 2,868,025 | 61,835 | 6,126,964 | 8.7 |

주: 투자자순수익 = 당기순이익 × 지분율, 투자수익률 = 투자수익합계 ÷ 투자잔액

농림어업 부문 현지법인은 총 1,999명을 고용하였으며, 이 중 176명이 한국인에 해당한다. 직종별로는 임원 3.0%, 관리직 11.2%, 영업직 3.5%, 생산직 82.4% 순으로 생산직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임원은 한국인 비중이 높으며 생산직의 경우 현지인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투자 잔액 백만불 당 고용 효과는 10.2명으로 전체 업종의 15.2명 대비 낮은 편이다.

〈표 13〉 농림어업 고용 효과(2009년)

(단위: 명, 천\$, 명/백만\$)

| | 총 고용 수 | 투자 잔액 | 고용효과 |
|------|-----------|------------|------|
| 농림어업 | 1,999 | 195,479 | 10.2 |
| 전체업종 | 1,070,092 | 70,241,167 | 15.2 |

3.4. 국내 농식품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의향 조사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목적을 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 37%, 수출 촉진 18%, 자원 개발 16.2% 등이었다. 농림어업 52개 현지법인 중 현지 시장 진출이 2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9개 현지법인은 수출 촉진이 목적이었다.

〈표 14〉 해외 진출 목적

(단위: 개)

| | 자원 개발 | 수출 촉진 | 보호 무역 타개 | 저임 활용 | 원자재 확보 | 선진 기술 도입 | 현지 시장 진출 | 제3국 진출 | 기타 | 응답수 |
|-------------|----------|----------|----------------|----------|-----------|----------------|----------------|-----------|----|-----|
| 농림 어업 | 5 | 9 | - | 6 | 4 | 1 | 21 | 1 | 5 | 52 |
| 연관 도소매업 | 3 | 7 | - | - | 1 | | 12 | 1 | 3 | 27 |
| 식음료 제조업 | 18 | 15 | 1 | 11 | 2 | 2 | 36 | 2 | 11 | 98 |
| 농자재 제조업 | 6 | 6 | 1 | 2 | 1 | - | 9 | - | 3 | 28 |
| 바이오 연료산업 | 3 | 1 | - | 1 | - | - | 2 | - | 2 | 9 |
| 연구 개발업 | - | 1 | - | - | - | - | - | - | - | 1 |
| 연관 산업전체 | 35 | 39 | 2 | 20 | 8 | 3 | 80 | 4 | 24 | 215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현지 업체와의 경쟁관계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 비중이 50.7%로 가장 많았고, 양호가 24.7%, 열악이 12.6% 비중을 기록하였다.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응답이 전체의 79.1%로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현지법인의 영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통 이상의 응답이 농림어업 76.9%, 연관도소매업 81.5%로 평균과 유사한 비중을 기록하였다. 또 바이오 연료 산업 88.9%, 연구 개발업 100%를 기록하여 진출기업들이 경쟁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업종별 현지업체와의 경쟁관계

(단위: %, 개)

| | 매우열악 | 열악 | 보통 | 양호 | 매우양호 | 응답수 |
|---------|------|------|------|-------|------|-----|
| 농림어업 | 7.7 | 15.4 | 40.4 | 28.8 | 7.7 | 52 |
| 연관도소매업 | 14.8 | 3.7 | 55.6 | 22.2 | 3.7 | 27 |
| 식음료제조업 | 8.2 | 13.3 | 56.1 | 20.4 | 8.2 | 98 |
| 농자재제조업 | 3.6 | 17.9 | 42.9 | 32.1 | 3.6 | 28 |
| 바이오연료산업 | 11.1 | - | 66.7 | 22.2 | - | 9 |
| 연구개발업 | - | - | - | 100.0 | - | 1 |
| 합 계 | 8.4 | 12.6 | 50.7 | 24.7 | 3.7 | 215 |

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인사 및 재무 관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복수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 인사 18.1%, 재무 17.6%, 생산 16.5%, 마케팅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은 재무와 생산요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농자재제조업은 인사와 재무, 식음료제조업과 연관도소매업은 인사 요인이 큰 애로사항이었다.

현지법인이 소재한 현지의 법규나 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세제, 노동, 금융 관련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은 세제와 노동관련 법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하였다. 식음료제조업의 경우, 금융관련 법규나 제도 개선의 비중이 20.8%로 높은 편이었다.

〈표 16〉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개)

| | 인사 | 생산 | 마케팅 | 재무 | 사회간접 | 현지정부 | 기타 | 응답수 |
|---------|------|------|------|------|------|------|-------|-----|
| 농림어업 | 12.2 | 16.7 | 12.2 | 22.2 | 12.2 | 11.1 | 13.3 | 90 |
| 농자재제조업 | 21.3 | 17.0 | 17.0 | 19.1 | 10.6 | 4.3 | 10.6 | 47 |
| 바이오연료산업 | 15.0 | 25.0 | 5.0 | 15.0 | 15.0 | 10.0 | 15.0 | 20 |
| 식음료제조업 | 20.0 | 16.6 | 16.0 | 17.7 | 11.4 | 11.4 | 6.9 | 175 |
| 연관도소매업 | 20.9 | 11.6 | 20.9 | 7.0 | 16.3 | 9.3 | 14.0 | 43 |
|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100.0 | 1 |
| 합 계 | 18.1 | 16.5 | 15.2 | 17.6 | 12.2 | 10.1 | 10.4 | 376 |

〈표 17〉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

(단위: %, 개)

| | 노동 | 토지 | 분쟁 | 세제 | 금융 | 회계 | 기타 | 응답수 |
|---------|-------|------|------|-------|------|-----|------|-----|
| 농림어업 | 20.0 | 4.0 | 6.7 | 26.7 | 18.7 | 8.0 | 16.0 | 75 |
| 농자재제조업 | 20.5 | 13.6 | 6.8 | 31.8 | 13.6 | 4.5 | 9.1 | 44 |
| 바이오연료산업 | 31.3 | 6.3 | - | 25.0 | 12.5 | 6.3 | 18.8 | 16 |
| 식음료제조업 | 19.5 | 8.2 | 6.3 | 27.7 | 20.8 | 9.4 | 8.2 | 159 |
| 연관도소매업 | 28.2 | 5.1 | 10.3 | 23.1 | 15.4 | 5.1 | 12.8 | 39 |
| 연구개발업 | - | - | - | 100.0 | - | - | - | 1 |
| 연관산업전체 | 21.3% | 7.5 | 6.6 | 27.5 | 18.3 | 7.8 | 11.1 | 334 |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향후 투자 계획을 보면, 현상유지가 전체 응답의 59.1%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확대는 30.2%로 현지법인을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89.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연관도소매업, 농자재제조업에서 투자확대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투자축소와 철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8〉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단위: %, 개)

| | 철수 | 투자축소 | 현상유지 | 투자확대 | 응답수 |
|---------|-----|------|-------|------|-----|
| 농림어업 | 5.8 | 1.9 | 67.3 | 25.0 | 52 |
| 연관도소매업 | 3.7 | 7.4 | 44.4 | 44.4 | 27 |
| 식음료제조업 | 3.1 | 9.2 | 61.2 | 26.5 | 98 |
| 농자재제조업 | 7.1 | 7.1 | 46.4 | 39.3 | 28 |
| 바이오연료산업 | - | - | 66.7 | 33.3 | 9 |
| 연구개발업 | - | - | 100.0 | - | 1 |
| 연관산업전체 | 4.2 | 6.5 | 59.1 | 30.2 | 215 |

4. 해외농업투자의 사례 : 실패와 성공

4.1. 과거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사례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수리남, 벨리제 등과 같은 중남미 국가로 농업 이민을 가면서 시작되었다. 이민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현지 이주자들의 현지 적응 실패, 사전조사의 미비, 영농의지가 없는 인원의 선발, 무계획적인 영농 등으로 요인으로 해외농장개발이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1970년 초 국제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다시 해외농업개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으며, 농업개발수입과 농업이민정책이 같이 결부된 다목적 해외 농업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브라질 십자성 농장, 아리랑 농장이 개척되고 통일교가 신생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농업이민사업에 정부는 지원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수입이 시작되었다. 선경그룹(현재 SK)이 미국 워싱턴주에 옥수수 농장을 경영한 바 있으며 삼성그룹이 일본 미쓰이 그룹과 함께 베트남 메콩강 유역에 주정용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두산그룹은 베트남에 왕새우 양식장을 조성하고 이를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였다. 또한 고합그룹은 연해주의 대륙연구소 농장을 인수하였으며, 대륙연구소는 중국 흑룡성강의 삼강평원에 진출하였고 현대그룹은 연해주에 별목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농산물시장개방이 본격 시작되면서 해외농업개발수입이 논의되지 않았다.

1995년부터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해지면서 식량안보를 재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개발수입논의가 재개되었으며 2003년 이후부터 해외농업개발투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민간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농산물 수입도 증대하였고, 북한 식량문제가 계속 거론되었으며 해외농업개발에 대하여 기업이 점차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투자 사례를 요약한 것이 <표 19>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여부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논의었다.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면 곡물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식량의 해외개발수입이 논의되지만, 국제곡물 가격이 안정되면 해외개발수입 논의가 사라졌다. 단기간의 국제곡물가격 파동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이 논의되면서 관련 정책도 잠깐 논의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외농업개발이 다른 정책목표를 가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거나 정부의 지원 없이 철저한 준비 없이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다 보니 대부분 해외농업개발이 정착되지 못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대부분 이었다. 그리하여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이 공표되기 전까지 해외농업개발 투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과거 해외농업개발투자가 실패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 20>이다(김용택, 2007).

<표 19> 과거(2009년 이전) 해외농업개발 투자사례(요약)

| 기간 | 주요 특징 | 주요 투자 사례 |
|-------------------|--|---|
| 1기 (1962~1979) | · 농업이민 | · 해외 이주법(1962) · 중남미 국가로 농업이민 · 해외농업개발공사 파라과이 산페드로 공장 구입 |
| 2기 (1980~1992) | · 농업이민과 해외농업개발 병존 | · 브라질 십자성 농장, 아리랑 농장 · 통일교 콩고민주공화국에 농업단지 조성 · 선경그룹 미국 옥수수 농장 경영 · 삼성그룹 베트남 메콩강 유역 주정용 벼재배단지 조성 · 고합그룹 : 연해주 농장 · 대륙연구소 : 중국 흑룡성강 삼강평원 · 현대그룹 : 연해주 벌목사업 |
| 3기 (1995~2002) | · 연해주 중심 진출 | · 고합, 대순진리회, 유니베라, 한농복구회, 대경, 새마을운동 중앙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 |
| 4기 (2003~2008) | · 민간 중심의 해외농업개발 | · 정부 지원없이 민간 주도로 해외농업개발 진행 |
| 5기 (2009년 이후) | ·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 · 민간 주도, 정부 간접 지원 | · 해외진출 농기업 지원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 7개국 18개업에 대한 해외농업개발자금 지원 |

〈표 20〉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성과 부진 사유

| 항 목 | 사 유 |
|---------------|---------------------------------------|
| 사전타당성 검토 | 자연조건(기후조건, 토양, 수자원, 농지 등)에 대한 검토 미흡 |
| | 법과 제도 등에 관한 정보 미흡 |
| | 정치, 사회, 문화, 관습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 | 현지노동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
| | 현지 조방농업과 관련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 미흡 |
| | 지역과 생산인프라 및 사회간접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 |
| | 형식적인 조사단 활동(농업인 참여 배제, 짧은 기간의 타당성 검토) |
| 전문 경영인 | 전문 경영인 및 현지 전문가 확보 실패 |
| 유통 및 판매전략 |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 실패 |
| 사후관리 | 시범사업 이후에 관련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 정책 지원 | 정책자금 지원 전무 |
| | 관련 기술과 자재 지원 부족 |
| 명확한 비전과 전략 부재 | “진출해야만 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 |
| | 뚜렷한 전략이나 재무계획 없이 후발주자로 해외 진출 |
| | 성사가능한(낙관적인) 경우만을 고려한 해외 진출 |
| | 파트너 잘못 선정 |

4.2. 국내 농식품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성공사례

가. CJ 제일제당의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

CJ 제일제당은 국내 식품기업으로 여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지만 국내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CJ 제일제당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거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히 현지화 하였다. 둘째, 현지인들의 입맛을 반영한 국가별 특화된 제품으로 해외 수출을 증가시켰으며, 셋째, 해외 시장 M&A를 적극 추진하였다. CJ제일제당은 1998년 8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PT. Cheil Jedang Indonesia(이하 ‘PT. CJI’)를 설립, 라이신, 핵산, 쓰레오닌, MSG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사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였다.

〈표 21〉 PT. CJ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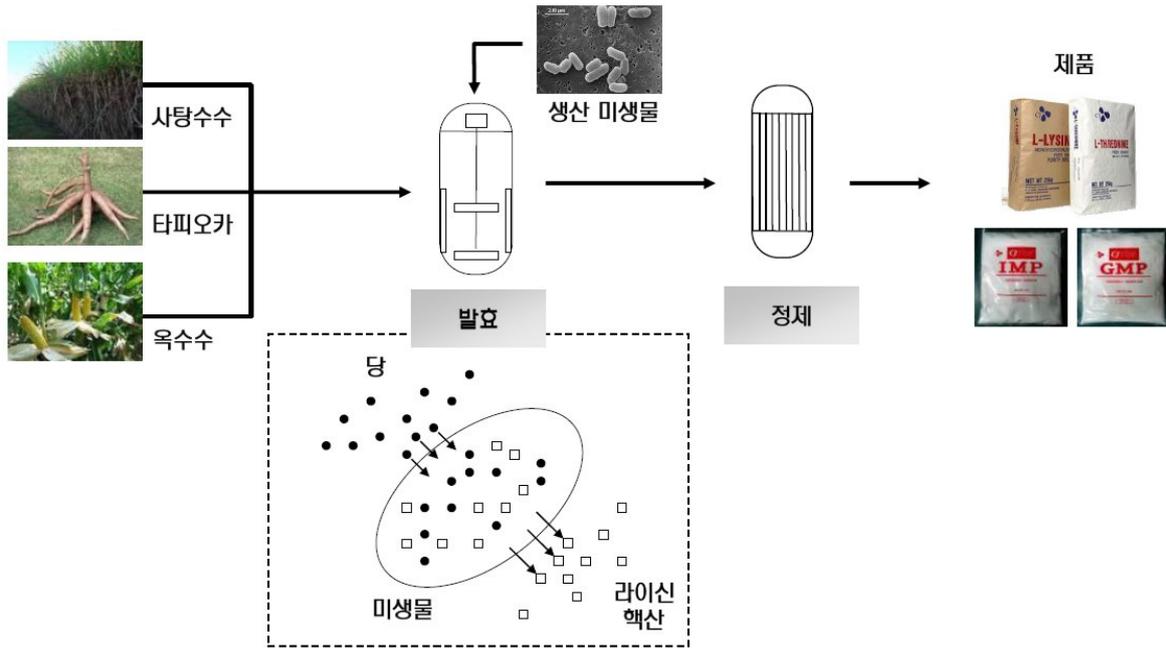
| 품 명 | LYSINE | THREONINE | M S G |
|-------|-------------|-----------|-------------|
| 주요 원료 | 원당, 포도당 | 포도당 | 당밀 |
| 용 도 | 사료원료 첨가물 | 사료원료 첨가물 | 조미료 |
| 성 상 | 연황색 분말 | 연황색 분말 | 백색 결정 |
| 시장 규모 | 90 만톤 | 4 만톤 | 200 만톤 |
| 주요 시장 | 유럽, 미국, 아시아 | 유럽, 미국 | 유럽, 미국, 아시아 |

인도네시아는 CJ 제일제당의 첫 번째 해외 생산 거점으로써 해외 진출과 세계화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3개의 사료법인과 1개의 축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사료사업의 다각화와 종계/유통 사업의 확대를 위한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CJ 제일제당의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성공적인 롤 모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CJ 제일제당의 동남아시아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사의 제품은 사탕수수, 타피오카, 옥수수 등을 1차 가공한 원당, 포도당, 당밀 등의 원재료를 발효, 정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으며, 70% 가량은 태국,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30% 가량은 인니 현지 구매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과거 직접 재배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그룹 차원에서 직접 원재료를 생산하는 방안은 리스크가 높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구매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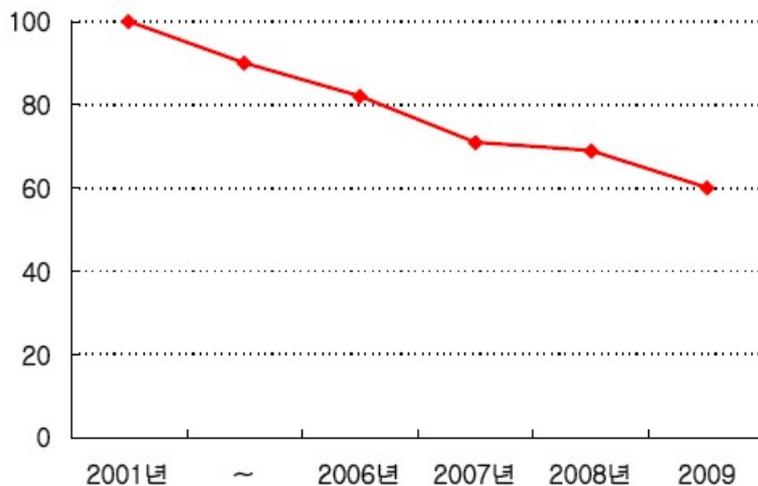
생산된 제품은 인니 현지에서 15% 정도를 내수 판매하고, 나머지는 CJ제일제당의 해외 판매 법인을 통해 아시아, 유럽, 미주 등에 수출하고 있다. 동사는 인니 현지법인의 안정적 사업 수행 이후, 2004년 중국(CJ Liaocheng Biotech), 2006년 브라질(CJ do Brasil) 등 3개국 4개의 지역별 생산 거점을 두고,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3〉 PT. CJI 제품 공정도



동사는 인니 진출 초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저가의 원부재료와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통한 수율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인니 현지 법인의 2009년 당기순이익은 406억원 수준으로 본사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5,293억원과 비교하여 그룹 내 핵심 자회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 원가율 추이



자료: 모기업 IR 자료

CJ 제일제당의 인니 진출 전략은 첫째, 기업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에 공헌(장학금, 봉사대, 구호물자 제공)한다. 둘째, 인적자원관리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군부 출신의 고위인사를 영입한다. 셋째,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넷째, 현지인의 감정과 문화를 고려한 처우 개선을 위해 모스크를 건설하고, 대화를 좋아하는 특징 등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오리온의 베트남 진출 사례

1993년 이후 국내 제과업이 성숙산업으로 들어서면서 국내시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과자의 주 소비층인 저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패스트푸드와 외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오리온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국내적으로는 초코파이를 차별화하고, 국외적으로는 초코파이를 현지화 하는 동시에 가격인상을 통하여 원가구조를 10% 개선하고 품질과 중량을 개선하여 유사제품과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국내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국내 제과산업의 고성장이 일단락되고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 여건이 마련되었다. 해외진출 초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수출에 대한 회사 내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다. 전략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시기에는 제품 홍보, 현지문화 이해, 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하였고, 해외 사업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물류와 영업망을 구축하는 시기에는 해외시장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적 유통 판매 전략을 활용하였고, 다음 단계에는 강력한 시장 확대 전략인 master sole system 전략을 적용하였으며, 그 다음 단계로 Area sole system 유통 전략을 적용하였다.

오리온은 '05년 11월, 베트남 시장에서의 과자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호치민에 Orion Food Vina Co., Ltd를 설립하였고 현재 호치민 및 하노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중 밀가루, 설탕 등은 본사 및 해외 법인들과의 글로벌 소싱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씨감자의 경우 소요량의 70% 상당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80ha 상당의 보유경지에서 약 30%, 현지 농부와의 계약에 의한 재배에서 소요량의 40% 정도의 씨감자를 조달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개발한 감자 종자를 수입하여, 현지 기후에 맞는 종자로 개량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하노이 농대와

산학협동을 맺고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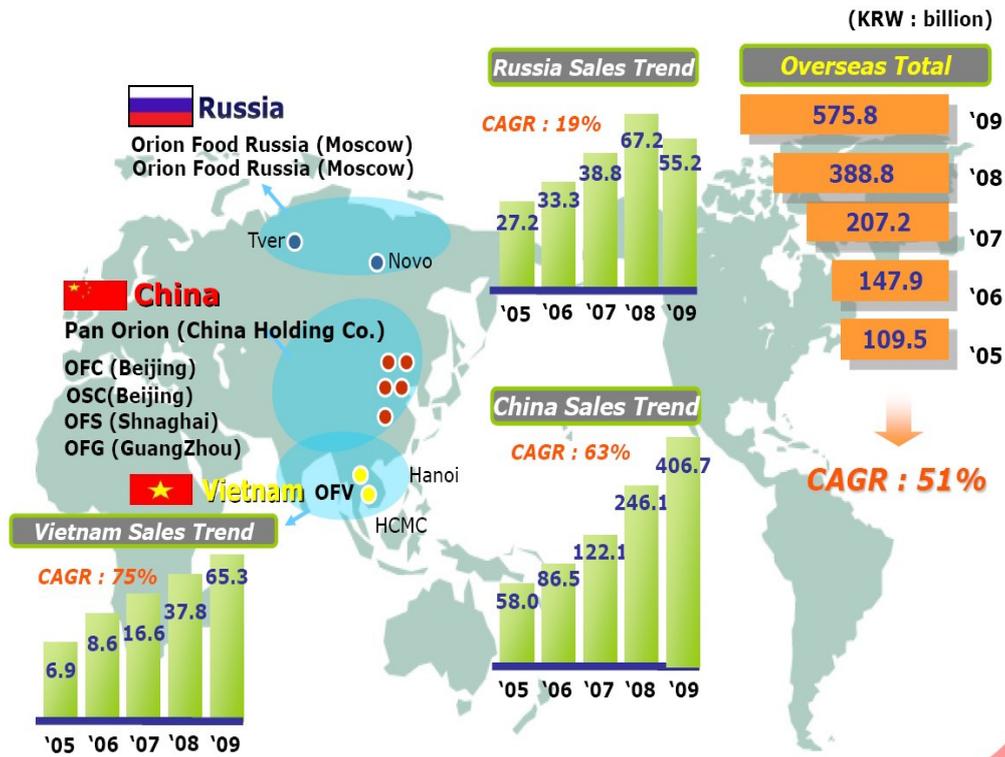
생산된 제품의 약 70%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본사와의 삼각무역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및 높은 인구증가율, 30대 미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과사업 확대에 유리한 인구분포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의 성장률이 세계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본사가 동남아, 일본, 중동, 남미 등 세계 각국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베트남 생산 공장에서 계약 체결 업체로 생산 제품을 직접 배송한다.

동사는 '05년 11월 설립 이후, 공장건설 및 시설투자 등의 비용 발생으로 초기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06. 12월 생산 개시 이후 '07년부터 생산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영업흑자 전환과 함께 매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9년 매출액은 806억을 기록하였으며, 40억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오리온의 해외진출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품질 전략으로 머쉬멜로우와 초콜릿 비스킷을 혼합하고 수분 평형을 유지하여 차별화된 맛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둘째, 차별적인 촉진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정(情)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 각 나라에 맞는 정이라는 컨셉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셋째, 디자인 오리온 초코파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 개념을 표시하는 도안을 포장에 도입하고, 각 국가에 맞는 포장 제품 패키지를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철저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각 국가 별로 선호하는 색상으로 포장하였다. 넷째, 경영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바이어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으며, 한 번 개척한 시장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기본 마인드를 토대로 한 장기 시장개발 전략을 수립·시행하였다.

오리온은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뿐만 아니라, '92년 기 진출한 중국(Orion Snack Company Co., Ltd)과 '03년 러시아(Orion Food Russia Company)에서도 주력 제품인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지화 작업 및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림 5〉 오리온 해외 현지법인 판매 현황



자료: 오리온 IR 자료

다. 유니베라의 해외농업개발 투자⁵⁾ : 에코넷 모델(Econnet Model)

유니베라는 과거 남양알로에라는 기업으로 활동하였으나 기업명을 유니베라로 변경하면서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에코넷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에코넷(ECONET)이란 ‘생태적(Ecological)’과 ‘경제적(Economic)’의 에코(Eco-)와 네트워크(Network)가 결합된 용어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생태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원료의 재배와 가공, 유통,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개발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기업 네트워크이다.

과거 유니베라의 해외진출 과정을 살펴보면, 1988년 미 현지법인 알로콕을 설립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원료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텍사스 주 할링젠 지역의 농장(60만평)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1989년의 냉해로 해외진출 시도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 기후조건 및 생산조건이 뛰어난 멕시코 마누에 지역에 탐피코농장(120만평)과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정부의 지원프로그램 아래

5) 장세진(2005),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영 사례집』을 참조하였음.

생산비 절감, 수입대체 및 제3국 수출로 외화절감 등의 효과는 물론 외화획득의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핫산군 크라스키노 지역의 농장(2,150ha, 650만평)에서 현재 황금(Scutellaria)등의 약초를 중심으로 대규모 영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0년 현재 유니베라 에코넷은 전 세계에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1,046만평을 확보하여 총 40여 개국, 700여개 기업에 알로에 원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천연물관련 특허도 총 414개를 보유하고 있다.

유니베라는 감초에 대해 세계최고의 기술과 정보로 전 세계를 석권한 일본기업과 화분(꽃가루) 하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한 스웨덴 기업을 벤치마킹해 알로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85년 국내 최초로 알로에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유니베라의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생산요소를 절감하였다. 멕시코 탐피코 농장은 경작지 지가 및 (1ha = 미화 3천불) 인건비(미화 1불/시간)가 한국보다 저렴해 제조원가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멕시코농장이 위치한 지역은 멕시코 내 교통 요충지 및 미국의 정제시설에 인접한 곳일 뿐 아니라, 탐피코항이 인근에 위치해 운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수출항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유니베라가 해외 농장을 위치할 때 고려하는 것으로는 토양, 기후조건, 물류 등으로 연 평균기온 섭씨 23도 이상, 풍부한 일조량과 배수 등이다. 그리고 에코넷의 해외농장은 원료재배적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Natures's Best)'라는 ECONET 기업철학 및 이념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한다.

둘째, 현지화의 성공이었다. 알로에의 질, 양, 원가는 경영자와 직원들 간의 조화가 핵심이므로 멕시코농장을 인수 후 경영진은 농장일꾼들과 같이 일하는 등의 노력 끝에 현재 알로콧은 미국 및 멕시코농장에서 성공적인 현지화를 이루었다. 미국 알로콧의 경우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모범적인 유기적 영농농장으로 공인받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있으며 알로콧 본사 앞에는 주정부기와 태극기 그리고 알로콧 사기가 걸려있다.

셋째,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 1996년 세계 4대 생명 공학단지인 미국 덴버에 진출해 천연 생명공학 전문회사인 "유니베라 파머슈티컬

(UPI)"을 설립하였다. 1997년에 국제 알로에 기준 심의협회(I. A. S. C)에 가입하였으며, 1988년 알로에 연구재단(A. R. F)을 설립해 전 세계에 산재한 모든 알로에 관련 정보를 수집해 알로에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알로에 연구 결과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품질개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의 10% 이상을 매년 연구비로 재투자하고 있다.

넷째, 효과적인 판매 및 유통 전략의 시행이다. 국내에서는 남양알로에는 국내시장에서 대리점을 통한 생활건강 설계사의 방문판매라는 유통구조를 취하는데 이는 건강보조식품의 특성 상 소비자와 판매사 간 직접대면을 통해 신뢰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방문판매로는 신물질, 신제품 효능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잠재적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에서는 주 수출품인 원료 외에 완제품의 해외진출을 시작하면서 국가별로 다른 방식을 사용했는데 미국시장의 경우 대리점형 방문판매업과 함께 미국 내에서는 일반화된 다단계 판매방식도 겸용하였다.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여 대리판매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직접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해외 홍보 측면에서는 기존의 소극적인 마케팅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환해 주요 박람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품의 홍보와 수출에 적극 노력해 왔다. 이처럼 에코넷의 경쟁력은 ECONET의 꿈과 비전이 있었고, 알로에, 천연물, LOHAS 비즈니스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하였으며, 에코넷 시스템과 핵심역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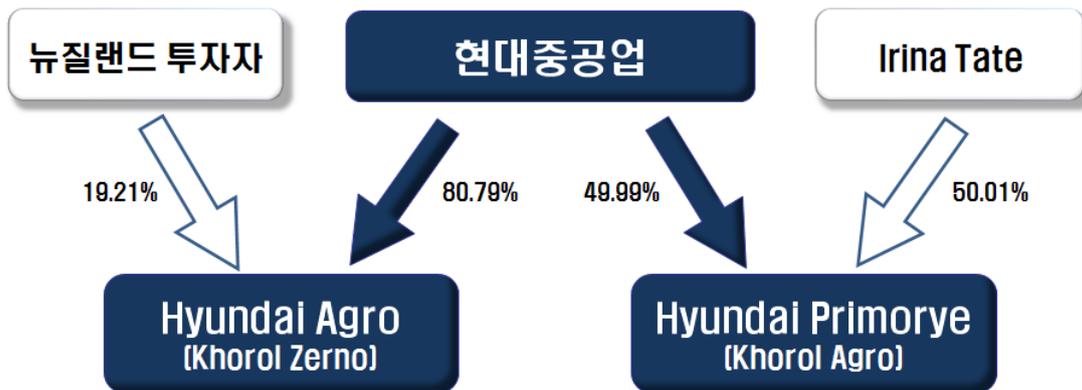
라. 현대종합상사의 연해주 진출사례

현대종합상사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연해주 농장에 진출하였으며 2012년까지 농지 3만 ha를 확보하여 곡물 10만톤을 확보하는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9년부터 경작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9,000ha를 확보하고 2012년까지 3만ha를 확보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농장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대종합상사는 연해주 농장을 위하여 2009년 6월에 뉴질랜드 투자자들이 연해주에 설립한 2개의 농업회사 Khorol Zerno와 Khorol Agro를 인수하였다. Khorol Zerno는 영농전문회사, Khorol Agro는 농지를 소유한 회사이다. Khorol Zerno

80.79%, Khorol Agro 49.99%의 지분을 인수하고, 두 회사의 경영권은 현대종합상사가 가지고 있다. Khorol Zerno는 Hyundai Agro로, Khorol Agro는 Hyundai Primorye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림 6〉 현대중공업의 연해주 농장의 지분구조



현대종합상사가 해외 진출에 적합한 농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대규모 농지 확보 가능성, 곡물 재배 안정성(기후, 토양), 물 수출입 제한(곡물수출국 우선 고려), 지리적 입지조건(물류 Infra, 항구 접근성), 인구 밀도(민원 발생, 농업 노동력 확보), 환경적 요인(개발제한 구역, 환경적 이슈), 법적·제도적 개방성(영농 Infra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현대중공업의 연해주 농장 진출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확보 전략으로는 안정적인 농지사용권의 확보(사유화된 농지지분을 확보),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를 확보, 수평배수가 가능한 경사지 농지나 물류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위치를 갖춘 양호한 입지를 선정, 추가 개간 비용이 없거나 농지확보 비용이 저렴한 개간이 완료된 집단농장을 인수하였다. 둘째, 지분인수 전략을 활용하였다. 운영 중인 회사 지분을 인수하여 효율적인 영농조직을 확보, 영농 노하우 및 현지 정보 접근이 용이, 기존 영농 인프라 활용으로 신규 투자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셋째,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였다. 법과 제도를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법무, 회계, 세무 등), 진출지역, 전략, 방법 선택을 위한 충분한 연구를 시행하는 등 사정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진출하였다. 넷째, 현지화 전략을 사용하였다. 현지 인력에 의한 책임운영으로

문화적 마찰을 최소화, 한국인 주재원 파견이 없이 현지관리인을 통한 간접 관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현지화 전략을 적극 활용하였다. 다섯째,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미국인 영농전문가와와의 컨설팅 계약, 영농회사 경영 전문가 지원(한국, 뉴질랜드 전문경영인), 현지 직원의 미국 연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등과 같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최신 영농기법을 도입하고 최신 농기계를 도입하여 이를 적절히 영농시기와 연계하여 농기계 도입 효과를 최대화 하였다.

마. 둘나라 한농의 브라질 진출 사례

1994년 친환경 유기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농은 15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각 나라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여 대단위 농업개발을 시행해 왔다. 필리핀 지부는 유기농 농장 조성에 성공함으로써 필리핀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자체 농장 및 계약 재배로 유기농 밀을 재배하여 한국으로 수출 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브라질로 진출하여 본격적으로 농장을 설립하고 있다.

둘나라 한농은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기에 전 세계에서 브라질이 가장 적합한 나라로 인식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브라질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브라질 농업의 가장 큰 장점은 농업 강대국이라는 것이다. 브라질의 총 곡물 생산량은 1억 3천만톤(대두 5,800만톤, 옥수수 5,300만톤, 쌀 1,200만톤, 밀 380만톤 등)으로 세계농산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바이오 에탄올의 최대 생산국이다. 또한 브라질은 농산물 수출액이 548억불로 브라질 전체 수출액의 1/3을 차지하는 농업 강국이다. 또한, 다민족 국가로 타민족에 대하여 개방적·친화적이며 잠재 성장력이 높아 외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

둘나라 한농의 브라질 농업개발의 목적은 콩, 옥수수, 밀, 사탕수수 등 식량 및 바이오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 Non-GMO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둘나라 한농의 브라질 개발 단계는 시범농장으로 상파울로주 라란자우 농장 300ha를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바이아주 포로모자시 1,400 ha를

임대하였으며 바이아주 카나브라바 농장 11,000 ha를 매입하여 농장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 115,000 ha를 임대할 예정으로 있다.

바. 농식품산업의 해외농업개발투자 성공요인

과거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들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 향후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공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철저하게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 판로개척, 기술개발 등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진출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며, 목표시장 접근 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 기업 전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동반 진출할 수 있다면 동반 진출하여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최대한 얻어야 한다.

둘째, 투자대상국의 위험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생산, 판매상황뿐 아니라 투자 대상국의 외환상황, 정국불안, 급격한 환율 변동 등 투자대상국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 대상국의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투자 대상국을 선정하도록 한다.

셋째, 합작투자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원활한 관계를 설정 한다. 합작투자자와 명확한 권한·의무관계 설정, 서류화 등 제반 사전조치를 실시한 후에 투자한다. 그리고 합작투자자의 기술력, 영업능력, 추가투자능력, 경영방식, 신용상태 등을 철저하게 사전에 분석한다. 합작투자자의 도산, 비협조, 책임회피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합작투자자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넷째, 현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현지법인의 독립채산적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현지법인 고유의 기술력과 판로를 개발하며, 현지 주민 및 종업원의 종교·전통 등 관습적인 요소를 중시한다. 또한, 현지 인력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 여러 유인책을 마련하고 현지 종업원과 주민과 밀착화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시장수요를 예측한다. 진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수요를 예측하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생산제품 및 기술력에 대하여 관련 산업의 수요 등을 예측하도록 한다.

여섯째, 적극적으로 생산과 영업 활동을 한다. 기술 및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다. 그리고 OEM방식 및 자체 Brand 생산을 적절히 배합하며, Brand Making, 자체 영업망 구축 등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생산제품의 수급변화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며, 현지 기업협의회 등 구성으로 현지법인간 과도하게 경쟁하지 않도록 하며, 외환상황, 환차손 등의 영업외손익 저하 및 기업 리스크 증가에 대하여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과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며, 현지법인 위주로 경영하며, 전문 경영자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모기업과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외에도 투자국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5. 국내 농식품산업의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시사점과 과제

5.1. 시사점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국내 농식품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적으나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으며, 진출 분야도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농산물 도소매업 등 유통업, 농자재업 및 식음료업 등 농업 관련 산업 등 다양하다. 더욱이 최근 국제 곡물시장구조의 변화, 기상이후 등으로 국제식품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국내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보다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최고에 달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은 아시아 국가들이며, 이중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이다. 향후 농식품 기업들의 진출 지역도 아시아의 비중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 각 국가들에 대한 농식품 산업과 지역에 관한 유효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아시아 농식품 전문가 양성에도 많은 노력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에 따르면 타 산업에 비하여 투자수익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농식품 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보다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농식품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자금지원, 외교 지원, 관련 인프라 보완조치, 정보 수집·활용 체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5.2. 과제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 도소매업, 광업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하여 농식품 산업 투자의 비중이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국내 농식품산업들은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지 법인들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진출전략, 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핵심역량으로 파악하는 전략,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우선 진출하는 전략, 추진 주체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컨서시움, 투자방식은 합작투자 및 통합형 전략,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전략, 가치사슬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기능·역할 및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전략 등이다.

국내 농식품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투자가 보다 활성화 되려면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연관 산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대 농업 기업들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농지 취득에 있어서의 법적인 제약, 저수익 고위험 사업특성 등 직접 경작하는 형태의 해외직접투자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 식품기업이 많은 사업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식음료업, 도소매업, 농자재업 등 다양한 분야로 동반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농업 관련 산업에 있어서는 현지 사업이 안정화된 이후 기존의 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는 노력과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농업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전략, 영업 전략, 재무관리 전략 등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시아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매우 높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다.

농식품산업은 수익창출이란 산업적 측면 이외에도 식량 안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농식품기업의 해외농업개발투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녹색 산업 지정, 자연 재해 발생 시 손실 보전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의 유상 원조(EDCF) 지원과 연계하여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공기업들이 직접 해외에서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 자원을 개발을 늘리고 있으므로 농식품산업과 자원개발을 함께 진출하는 패키지 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완배. 2008. 9. “러시아 연해주지역 농업개발 및 협력방안”. 서울대학교.
- 김완배. 2009. 1. “식품·식량자원 분야의 동아시아 협력증진 방안”. 서울대학교.
- 김용택·김배성. 2007. 11. 「한국농업의 해외식량자원 확보 전략」 C2007-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택. 2008. 9. 「해외농업개발 장기전략 및 실행계획」 C2009-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택·김배성·김정승. 2009. 1.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과 대응” 「농업전망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택 외. 2010. “식량안보에 대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2/3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 2009.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 성명환 외. 2000. 「21세기 식량안보 확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명환 외. 2008.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곡물가격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경수. 2005. “세계 알로에 시장재패를 위한 북미 농장 개발.” 「농어촌과 환경」 88.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이정환·송주찬. 2007. 12. “일본의 사료원료 확보시스템과 수급안정제도”. 한국사료협회.
- 장세진, 2005.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영 사례집. 박영사
- 장세진, 2010. 글로벌 경영 :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제경영. 박영사.
- 허장·김용택. 2008. 「해외농업개발 지역별·대상작물별·유형별 실행계획」 C2009-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장·김경덕·송주호·이대섭·김정승. 2009.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확보 방안(1/3차 년도)」 D 2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창영. 2005. “우리 농업의 세계 진출 방안.” 「농어촌과 환경」 88.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UN. 2010. Foreign land purchases for agriculture: what imp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novation Briefs.
- UNIDO. 2009. World Investment Report.

〈부표 1〉 식음료 제조업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개, 천USD)

| | 업종중분류 | 업종소분류 | 신규법인수 | 투자금액 |
|--------------------|------------|---------------------------|-------|---------|
| 식음료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도축업 | 2 | 345 |
| |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338 | 218,406 |
| |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20 | 255,264 |
| |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8 | 2,130 |
| |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0 | 7,553 |
| |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4 | 2,633 |
| |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8 | 2,954 |
| |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38 | 10,411 |
| | |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3 | 12,670 |
| |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6 | 58,789 |
| | |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2 | 639 |
| | | 액상시유, 기타 농제품제조업 | 92 | 277,039 |
| | | 아이스크림,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 14 | 9,286 |
| | | 곡물 도정업 | 158 | 203,077 |
| | | 곡물 제분업 | 6 | 2,021 |
| | |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 7 | 46,142 |
| |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14 | 22,600 |
| |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8 | 23,365 |
| | | 떡류 제조업 | 0 | 0 |
| | | 빵류 제조업 | 33 | 19,515 |
| | |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 21 | 386,423 |
| | | 면류, 마카로니, 유사식품 제조업 | 17 | 26,116 |
| |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2 | 166 |
| |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542 | 778,203 |
| | | 장류 제조업 | 6 | 9,442 |
| |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3 | 8,448 |
| | | 커피 가공업 | 3 | 653 |
| | | 차류 가공업 | 4 | 2,775 |
| | |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2 | 1,655 |
| |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8 | 15,160 |
| | | 인삼식품 제조업 | 6 | 3,918 |
| |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14 | 6,722 |
|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3 | 223 |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7 | 1,308 | | |
|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47 | 149,914 | | |

| | 업종중분류 | 업종소분류 | 신규법인수 | 투자금액 |
|-----|--------|-------------------|-------|-----------|
| |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35 | 42,974 |
| | 음료 제조업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1 | 70 |
| |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4 | 480 |
| | | 주정 제조업 | 3 | 53,612 |
| |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3 | 1,627 |
| | | 생수 생산업 | 11 | 38,151 |
| |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11 | 451,579 |
| | 담배 제조업 | 담배제품 제조업 | 7 | 146,905 |
| 합 계 | | | 1,571 | 3,301,362 |

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전망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황한준 교수





Profile

황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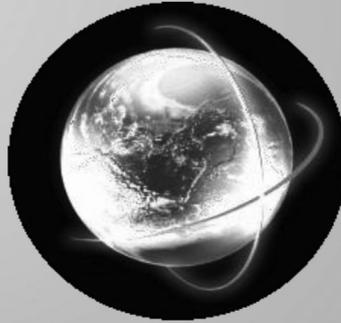
학 력

고려대학교 식품공학 농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식품미생물학 농학석사
독일 Hohenheim Univ. 식품미생물학 이학박사

경 력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식약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한구식품영양과학회 부회장

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



2011. 3. 31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황한준

발표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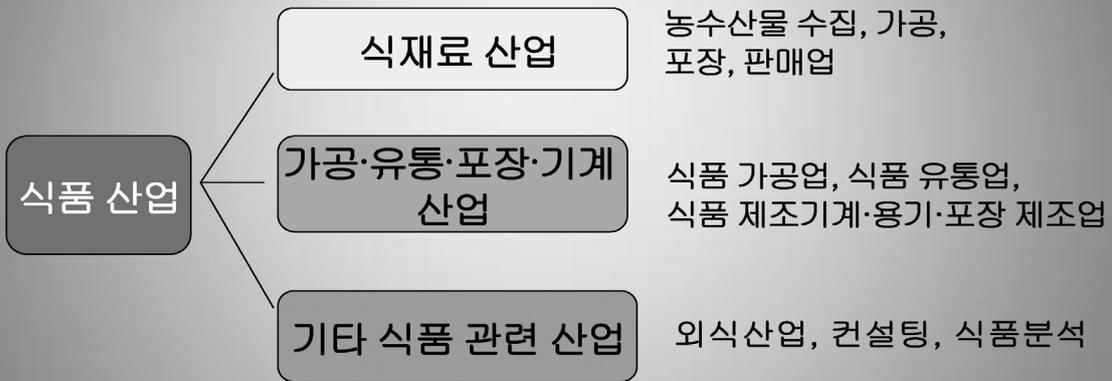
- 서언: 식품산업의 범위
- 식품산업 현황
 - 세계 식품산업 규모 현황
 - 국내식품산업 및 소비시장의 규모 현황
 - 국내 가공식품군별 규모 현황
 - 식품 원재료군 (농/수/축산) 별 생산 및 수입 규모 현황
 - 식품산업계의 주변 환경 및 변화
- 식량 안보적 관점
- 미래 식품산업에 대한 기대
- 결론

식품산업의 범위

- ◆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식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 ◆ 식품산업 진흥법 (농식품부, 2011.3.9)
식품: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식품산업: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
음식료품 제조업: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낙농 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 ◆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IPET): '생명산업의 현황과 전망 (2010. 2)' 동향 레포트
 - 생명산업(Life science or Bioscience Industry): 생명자원 그 자체 또는 이를 관리·가공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익한 부가가치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생명공학산업, 종자, 의학
 - 농림수산물(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농자재), 및 식품가공, 유통(전통발효식품 포함)

식품산업



세계 가공식품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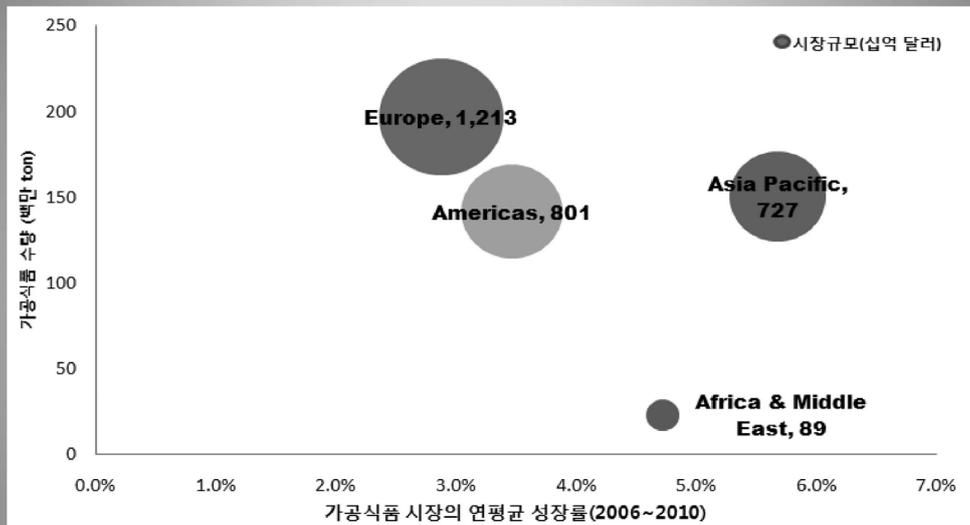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연평균 성장률 ('06~'14) |
|-----------|-------|-------|-------|-------|-------|-------|-------|-------|-------|-------------------|
| 가공식품 세계시장 | 2,439 | 2,530 | 2,627 | 2,725 | 2,830 | 2,939 | 3,054 | 3,174 | 3,297 | 5.2 |
| 전년대비 증가율 | 3.6 | 3.7 | 3.8 | 3.7 | 3.9 | - | - | - | - | |

▶ 세계 가공식품의 시장규모

- ▶ 2010년 2조 8,300억 달러(시장가격 기준)로 추정
- ▶ 2006 ~ 2014년 기간 동안 연평균 5.2% 증가하여 2014년 3조 2,9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계 식품산업의 규모 현황



- 유럽의 가공식품 시장의 규모는 약1조1천2백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약 41%
- 아시아 지역의 가공식품 시장성장률이 가장 높음(약 6%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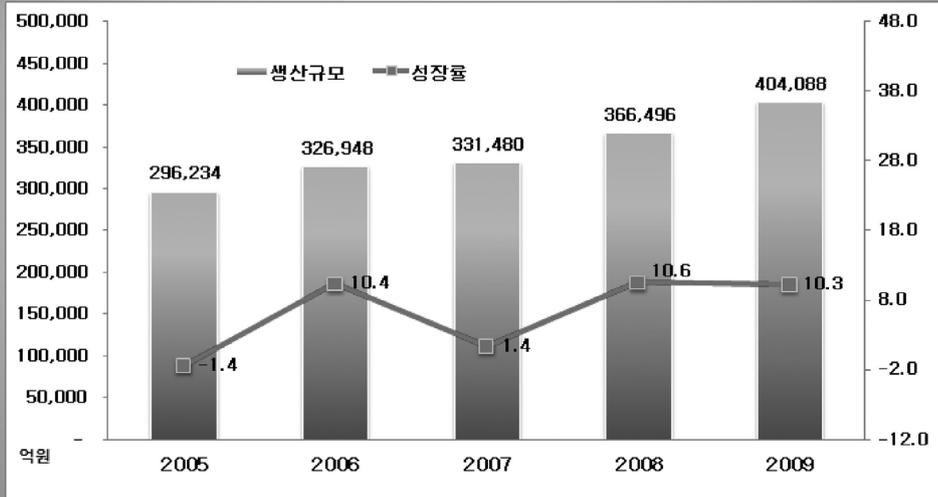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식품산업의 규모 현황

국내 식품산업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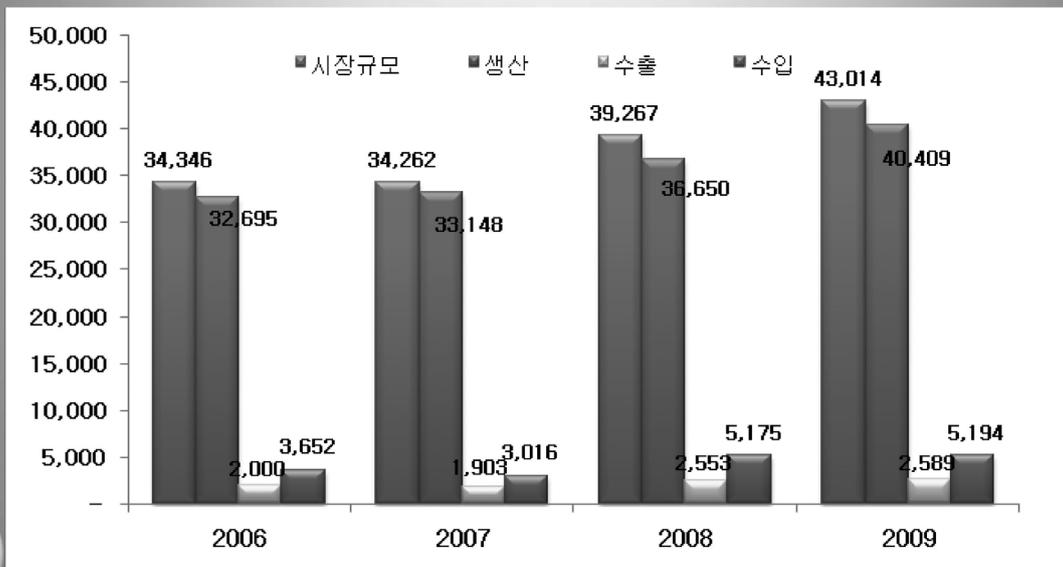
- '09년도 국내 식품의 총 생산액은 40.4조원으로 전년 대비 10.3% 성장하였고, 매출액(국내출하액+수출액)은 44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3.1%증가
- '09년도 국내식품산업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는 43조원 (전년 대비 10.3% 성장), '09년도 세계시장(2조7,250억 달러)의 1.2% 차지
- 식품 수출액은 20억 2천만 달러, 수입액은 40억 6천만 달러
- 우리나라 식품의 총 생산액은 제조업 GDP(국내총생산) 대비 15.2%, 전체 GDP 대비 3.8%에 해당하는 규모
- 펩시,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제조기업의 영업이익률 12~18%, 국내 식품기업은 7%로 절반 수준

식품제조산업 생산규모 및 성장률



- 식품제조산업 = 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용기.포장지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가공품
-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제조산업 시장규모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유형별 생산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09 비중 | CAGR ('05-'09) |
|---------------|-----|---------|---------|---------|---------|---------|------------|-------------------|
| 식품 | 생산액 | 197,423 | 211,957 | 208,975 | 245,041 | 263,677 | 65.3 | 7.5 |
| | 성장률 | 1.2 | 7.4 | -1.4 | 17.26 | 7.61 | | |
| 기구·용기 ·포장지 | 생산액 | 28,690 | 33,619 | 33,159 | 36,228 | 39,684 | 9.8 | 8.4 |
| | 성장률 | 2.5 | 17.2 | -1.4 | 9.26 | 9.54 | | |
| 식품첨가물 | 생산액 | 7,507 | 9,664 | 9,214 | 9,954 | 12,389 | 3.1 | 13.3 |
| | 성장률 | -5.7 | 28.7 | -4.7 | 8.03 | 24.46 | | |
| 건강기능식품 | 생산액 | 5,026 | 4,929 | 7,215 | 5,886 | 6,972 | 1.7 | 8.5 |
| | 성장률 | 176.9 | -1.9 | 46.4 | -18.41 | 18.45 | | |
| 축산물가공품 | 생산액 | 57,588 | 66,778 | 72,918 | 69,387 | 81,366 | 20.1 | 9.0 |
| | 성장률 | -14.8 | 16.0 | 9.2 | -4.84 | 17.26 | | |
| 계 | 생산액 | 296,234 | 326,948 | 331,480 | 366,496 | 404,088 | 100.0 | 8.1 |
| | 성장률 | -1.4 | 10.4 | 1.4 | 10.56 | 10.26 | | |

자료: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등 유형별 매출현황

(단위: 억원,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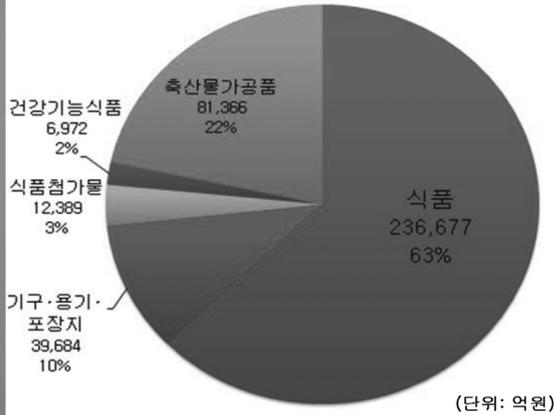
| 구분 | | 2005 |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
| | | 금액 | 성장률 | 금액 | 성장률 | 금액 | 성장률 | 금액 | 성장률 | 금액 | 성장률 |
| 식품 | 국내출하액 | 207,378 | 2.0 | 223,121 | 7.6 | 231,299 | 3.7 | 246,578 | 6.6 | 277,054 | 12.4 |
| | 국외출하액 | 1,614.8 | 16.4 | 1,459.9 | -9.6 | 1,444.3 | -1.1 | 1,698.6 | 17.6 | 1,449 | -14.7 |
| | 매출액 | 223,913 | 1.8 | 237,063 | 5.9 | 244,716 | 3.2 | 265,306 | 8.4 | 295,553 | 11.4 |
| 기구·용기·포장지 | 국내출하액 | 28,205 | 3.6 | 32,625 | 15.7 | 33,571 | 2.9 | 35,061 | 4.4 | 36,784 | 4.9 |
| | 국외출하액 | 321.2 | 1.1 | 402.1 | 25.2 | 367.4 | -8.6 | 371.5 | 1.1 | 313 | -15.7 |
| | 매출액 | 31,494 | 1.4 | 36,465 | 15.8 | 36,984 | 1.4 | 39,157 | 5.9 | 40,781 | 4.1 |
| 식품첨가물 | 국내출하액 | 6,637 | -0.8 | 5,642 | -15.0 | 5,403 | -4.2 | 5,877 | 8.8 | 8,639 | 47.0 |
| | 국외출하액 | 218.6 | -3.0 | 170.2 | -22.1 | 173.6 | 2.0 | 174.0 | 0.2 | 128 | -26.6 |
| | 매출액 | 8,876 | -5.5 | 7,268 | -18.1 | 7,016 | -3.5 | 7,795 | 11.1 | 10,269 | 31.7 |
| 건강기능식품 | 국내출하액 | 6,332 | 179.7 | 6,637 | 4.8 | 6,888 | 3.8 | 7,516 | 9.1 | 9,183 | 22.2 |
| | 국외출하액 | 41.3 | 104.3 | 38.9 | -5.9 | 37.1 | -4.5 | 39.3 | 5.7 | 35 | 10.9 |
| | 매출액 | 6,756 | 169.5 | 7,009 | 3.7 | 7,233 | 3.2 | 7,949 | 9.9 | 9,598 | 20.7 |
| 축산물가공품 | 국내출하액 | 62,117 | -9.4 | 68,966 | 11.0 | 77,470 | 12.3 | 72,374 | -6.6 | 86,699 | 19.8 |
| | 국외출하액 | 19.1 | -12.4 | 23.3 | 21.7 | 25.7 | 10.5 | 36.0 | 39.9 | 102 | 183.6 |
| | 매출액 | 62,313 | -9.4 | 69,189 | 11.0 | 77,709 | 12.3 | 72,771 | -6.4 | 88,002 | 20.9 |

주) 매출액 = 국내출하액 + 국외출하액(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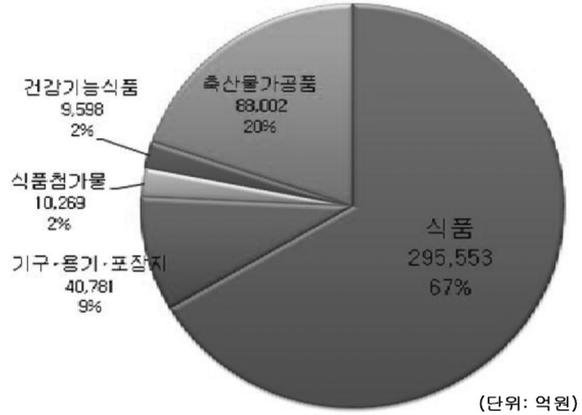
자료: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식품 등 유형별 생산 및 매출 현황

생산현황



매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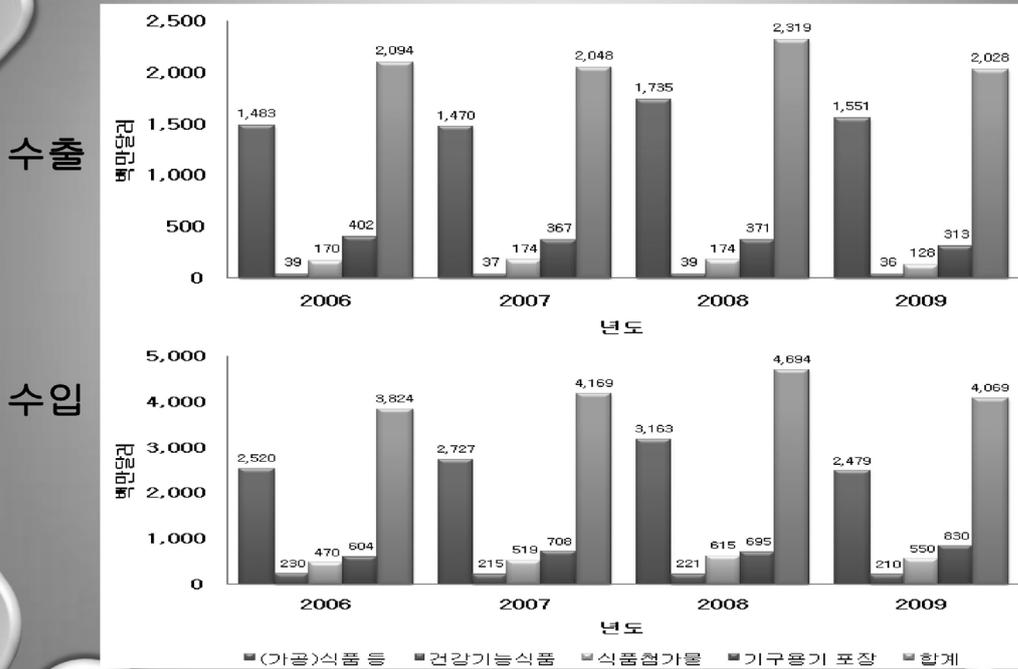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국민 다소비 식품 세부품목 순위

| 순위 | 품목군 | 품목명 | 생산량(T) | 국내출하액 (억 원) | 수출액 (백만달러) |
|----|------------|------------|-----------|-------------|------------|
| 1 | 기타 식품류 | 밀가루 | 1,633,322 | 11,490 | 4.3 |
| 2 | 설탕 | 백설탕 | 1,249,516 | 7,158 | 128.1 |
| 3 | 기타 식품류 | 즉석섭취식품(기타) | 1,113,579 | 1,715 | 0.1 |
| 4 | 음료류 | 탄산음료 | 1,112,575 | 10,547 | 9.7 |
| 5 | 음료류 | 혼합음료 | 522,623 | 6,182 | 25.5 |
| 6 | 음료류 | 과·채음료(가열) | 490,163 | 5,095 | 18.2 |
| 7 | 식용유지류 | 콩기름(대두유) | 373,623 | 5,578 | 4.4 |
| 8 |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 기타기공품 | 373,299 | 8,339 | 68.2 |
| 9 | 엿류 | 물엿 | 372,994 | 2,225 | 0.1 |
| 10 | 빵 또는 떡류 | 떡류 | 352,322 | 2,934 | 2.6 |
| 11 | 면류 | 유당면류(봉지라면) | 351,697 | 12,863 | 51.6 |
| 12 |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 곡류기공품 | 345,405 | 4,198 | 9.5 |
| 13 | 두부류 또는 묵류 | 두부 | 336,484 | 4,248 | 0.0 |
| 14 | 조미식품 | 소스류 | 327,987 | 6,170 | 9.2 |
| 15 | 김치류 | 배추김치 | 324,499 | 4,996 | 75.3 |
| 16 | 기타 식품류 | 기타전분 | 259,936 | 1,327 | 14.6 |
| 17 | 과당 | 액상과당 | 257,414 | 1,276 | 4.1 |
| 18 | 빵 또는 떡류 | 빵류(기타) | 252,608 | 7,096 | 3.2 |
| 19 | 절임식품 | 절임류 | 221,140 | 2,900 | 3.8 |
| 20 |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 수산물가공품(어류) | 219,587 | 7,072 | 165.4 |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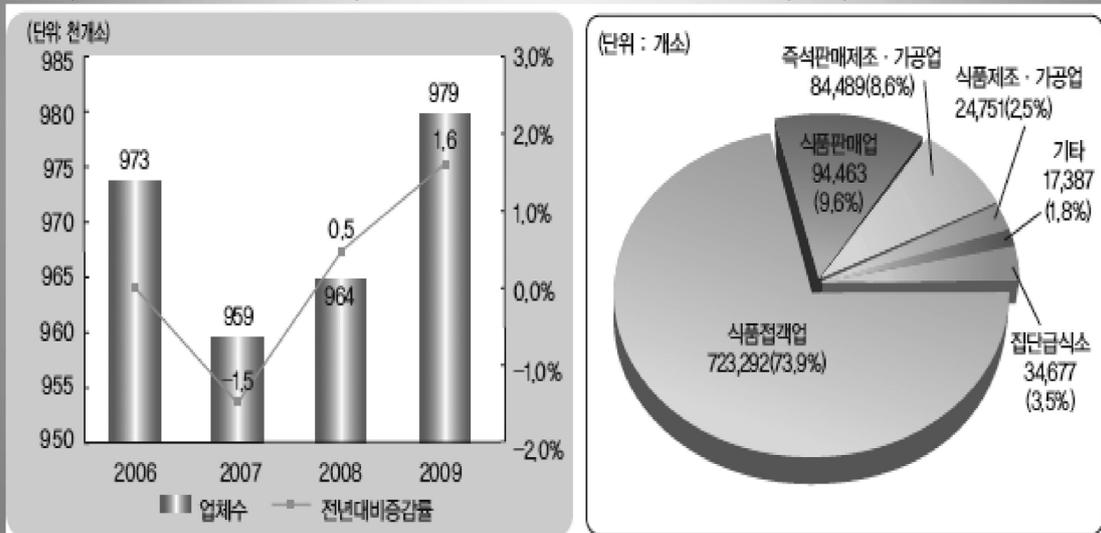
식품제조산업 수출입 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검사연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식품 제조 유통 판매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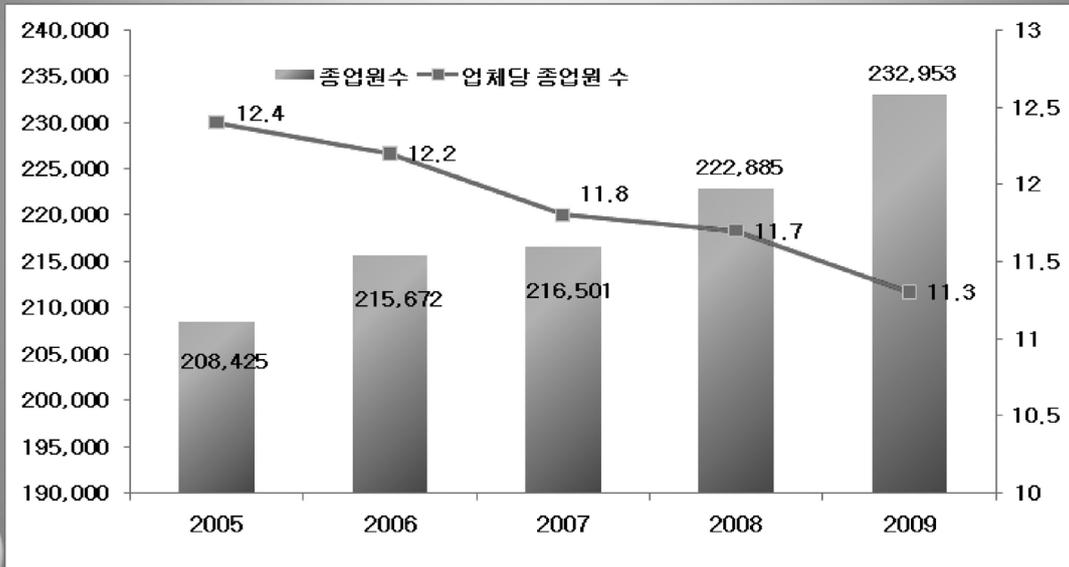
- 식품 제조·유통·판매 업체는 식품접객업체 72만 개소 (전체 대비 71.7%)를 포함하여 총 98만개소('09)



※ 기타: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의약품통계연보-201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첨가물 업체 종업원 현황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매출액 기준 상위 식품제조업체 매출 현황

| 순위 | 업체명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CAGR (05-09) |
|----|------------|--------|--------|--------|--------|--------|-----|-------|--------------|
| | | | | | | 매출액 | 점유율 | 성장율 | |
| 1 | 씨제이제일제당(주) | 12,744 | 14,691 | 16,421 | 18,725 | 20,047 | 5.8 | 7.1 | 12.0 |
| 2 | 농심(주) | 14,300 | 14,325 | 14,767 | 15,283 | 20,006 | 5.8 | 30.9 | 8.8 |
| 3 | 롯데칠성음료(주) | 11,011 | 10,637 | 10,722 | 11,717 | 12,001 | 3.5 | 2.4 | 2.2 |
| 4 | 롯데제과(주) | 7,496 | 8,762 | 9,456 | 7,860 | 8,234 | 2.4 | 4.8 | 2.4 |
| 5 | 오뚜기(주) | 4,737 | 6,753 | 6,804 | 5,745 | 7,816 | 2.3 | 36.0 | 13.3 |
| 6 | 동서식품(주) | 7,380 | 8,225 | 8,615 | 7,711 | 7,803 | 2.3 | 1.2 | 1.4 |
| 7 | 대상(주) | 4,319 | 4,529 | 4,342 | 4,802 | 6,331 | 1.8 | 31.8 | 10.0 |
| 8 | 오리온(주) | 3,834 | 5,811 | 4,753 | 5,131 | 5,734 | 1.7 | 11.8 | 10.6 |
| 9 | 코카콜라음료(주) | 5,514 | 5,692 | 5,102 | 5,137 | 5,636 | 1.6 | 9.7 | 0.5 |
| 10 | 사니(주) | 2,018 | 2,006 | 2,268 | 2,496 | 5,588 | 1.6 | 123.9 | 29.0 |
| 11 | 해태제과식품(주) | 3,879 | 3,591 | 3,421 | 3,515 | 4,481 | 1.4 | 27.5 | 3.7 |
| 12 | 삼양사(주) | 3,958 | 3,761 | 3,692 | 3,828 | 4,504 | 1.3 | 17.7 | 3.3 |
| 13 | 한국네슬레(주) | 2,628 | 2,362 | 2,378 | 3,163 | 3,299 | 1.0 | 4.3 | 5.8 |
| 14 | 오뚜기라면(주) | 2,161 | 2,483 | 2,815 | 3,313 | 3,291 | 0.9 | -0.7 | 11.1 |
| 15 | 롯데삼강(주) | 2,452 | 2,418 | 2,372 | 2,518 | 3,083 | 0.9 | 22.4 | 5.9 |
| 16 | 삼양식품(주) | - | - | - | - | 3,049 | 0.9 | - | - |
| 17 | 대한제분(주) | 2,428 | 2,521 | 2,554 | 3,292 | 2,995 | 0.9 | -9.0 | 5.4 |
| 18 | 대한제당(주) | 834 | 776 | 2,215 | 2,215 | 2,672 | 0.8 | 20.6 | 33.8 |
| 19 | 테크팩솔루션(주) | - | - | - | - | 2,598 | 0.7 | - | - |
| 20 | 해태음료(주) | 2,824 | 3,161 | 3,145 | 3,483 | 2,596 | 0.7 | -25.5 | -2.1 |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이후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련 주요 정책

| 구분 | 주요내용 |
|------------------|---|
| 원산지 표시위반 과징금 강화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징금 부과대상을 기존 수입업자에서 판매업자까지로 확대 |
|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제 | 수입쇠고기 중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 유통이력 추적제 실시 |
| 유기가공품 인증제 | 가공식품에 '유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증을 받도록 규정 |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 비만 등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 |
| OEM 수입식품 표시 강화 |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의 경우 해당 사실을 주표시면에 제품명 크기의 1/2이상 또는 12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명시 |
| GMO 식품표시 확대 | 원료함량과 관계없이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확대 시행 |

자료 : 한국신용평가, KIS Industry Outlook,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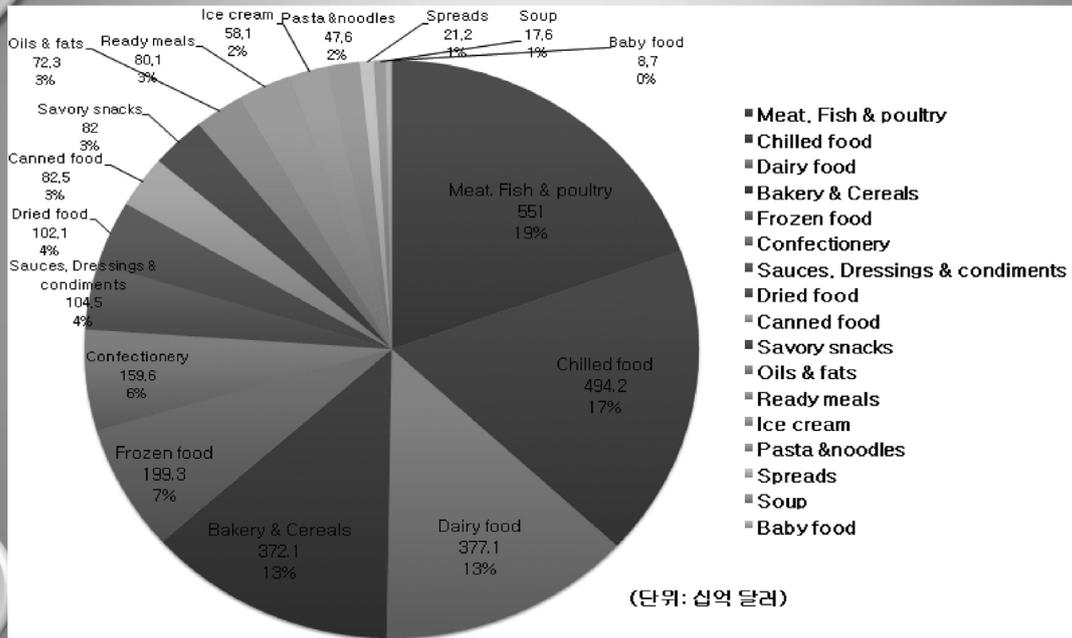
품목별 가공식품 세계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 품목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성장률 | |
|--------------------------------|-------|-------|-------|-------|-------|------|----------|----------------|
| | | | | | 시장규모 | 비중 | 전년대비 성장률 | CAGR ('06-'10) |
| Meat, fish & poultry | 476.4 | 494.0 | 511.9 | 531.0 | 551.0 | 19.5 | 3.8 | 3.7 |
| Chilled food | 424.6 | 441.3 | 457.9 | 475.6 | 494.2 | 17.5 | 3.9 | 3.9 |
| Dairy food | 317.3 | 331.4 | 348.1 | 360.6 | 377.1 | 13.3 | 4.6 | 4.4 |
| Bakery & Cereals | 328.5 | 338.5 | 348.9 | 360.5 | 372.1 | 13.1 | 3.2 | 3.2 |
| Frozen food | 172.1 | 177.7 | 184.7 | 191.8 | 199.3 | 7.0 | 3.9 | 3.7 |
| Confectionery | 141.1 | 145.9 | 150.7 | 155.1 | 159.6 | 5.6 | 2.9 | 3.1 |
| Sauces, dressings & condiments | 91.1 | 94.2 | 97.5 | 100.9 | 104.5 | 3.7 | 3.5 | 3.5 |
| Dried food | 88.6 | 91.8 | 95.1 | 98.6 | 102.1 | 3.6 | 3.6 | 3.6 |
| Canned food | 74.5 | 76.4 | 78.4 | 80.4 | 82.5 | 2.9 | 2.6 | 2.6 |
| Savory snacks | 67.1 | 70.4 | 73.8 | 77.9 | 82.0 | 2.9 | 5.4 | 5.2 |
| Oils & fats | 58.7 | 61.6 | 64.6 | 68.7 | 72.3 | 2.6 | 5.3 | 5.4 |
| Ready meals | 68.5 | 70.9 | 73.9 | 76.9 | 80.1 | 2.8 | 4.1 | 4.0 |
| Ice cream | 50.0 | 51.8 | 53.8 | 55.9 | 58.1 | 2.1 | 4.0 | 3.8 |
| Pasta & noodles | 39.8 | 41.6 | 43.6 | 45.5 | 47.6 | 1.7 | 4.4 | 4.5 |
| Spreads | 18.5 | 19.1 | 19.9 | 20.5 | 21.2 | 0.8 | 3.4 | 3.6 |
| Soup | 15.1 | 15.7 | 16.3 | 16.9 | 17.6 | 0.6 | 3.8 | 3.8 |
| Baby food | 7.6 | 7.9 | 8.1 | 8.4 | 8.7 | 0.3 | 3.3 | 3.3 |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년 품목별 가공식품 세계시장 규모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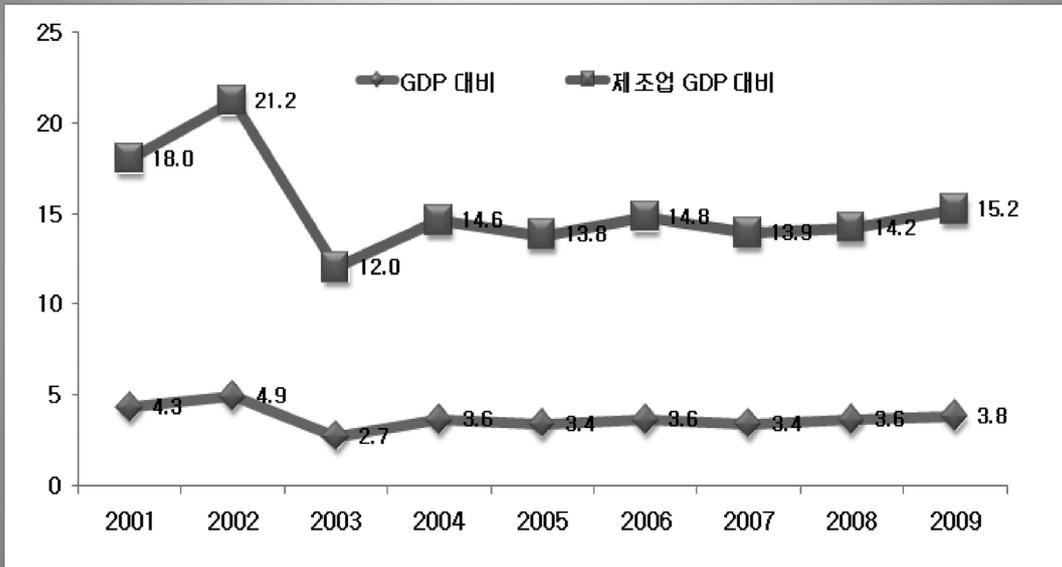
국내 산업 대비 식품제조산업의 비중

(단위: 십억 달러, %)

| 구분 | 국내총생산 (GDP) | 제조업 GDP | 식품제조산업 총생산액 | 식품제조산업 비중 | |
|------|-------------|---------|-------------|-----------|----------|
| | | | | GDP대비 | 제조업GDP대비 |
| 2001 | 651,415 | 153,952 | 27,685 | 4.25 | 17.98 |
| 2002 | 720,539 | 167,192 | 35,388 | 4.91 | 21.17 |
| 2003 | 767,114 | 175,924 | 21,046 | 2.74 | 11.96 |
| 2004 | 826,893 | 205,826 | 30,045 | 3.63 | 14.60 |
| 2005 | 865,241 | 213,646 | 29,579 | 3.42 | 13.84 |
| 2006 | 908,744 | 220,940 | 32,695 | 3.60 | 14.80 |
| 2007 | 975,013 | 238,611 | 33,148 | 3.40 | 13.89 |
| 2008 | 1,023,938 | 258,638 | 36,650 | 3.58 | 14.17 |
| 2009 | 1,063,059 | 265,783 | 40,408 | 3.80 | 15.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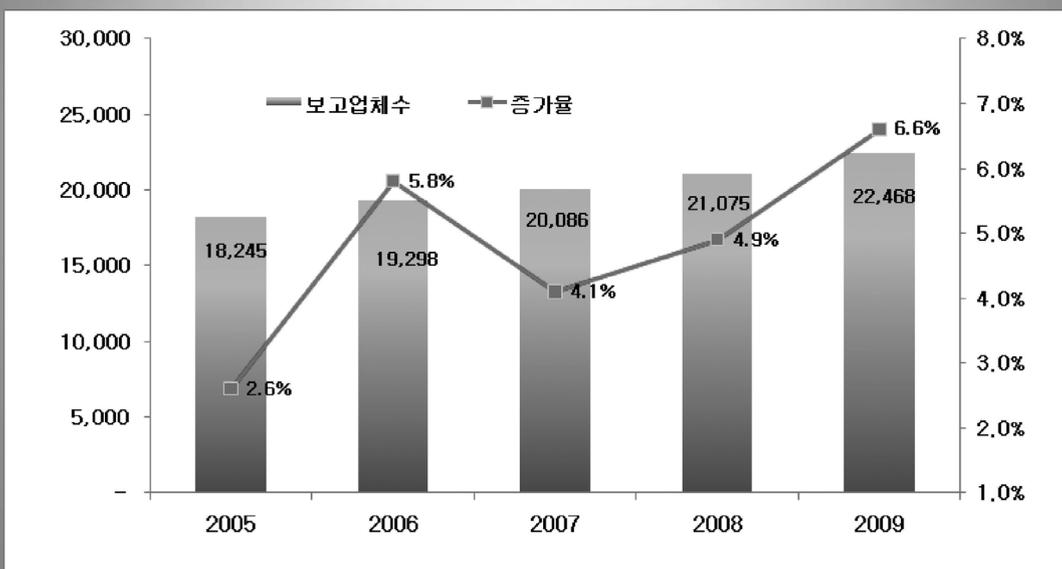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국내 산업 대비 식품제조산업의 비중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제조산업 업체수 현황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제조산업 유형별 업체수 현황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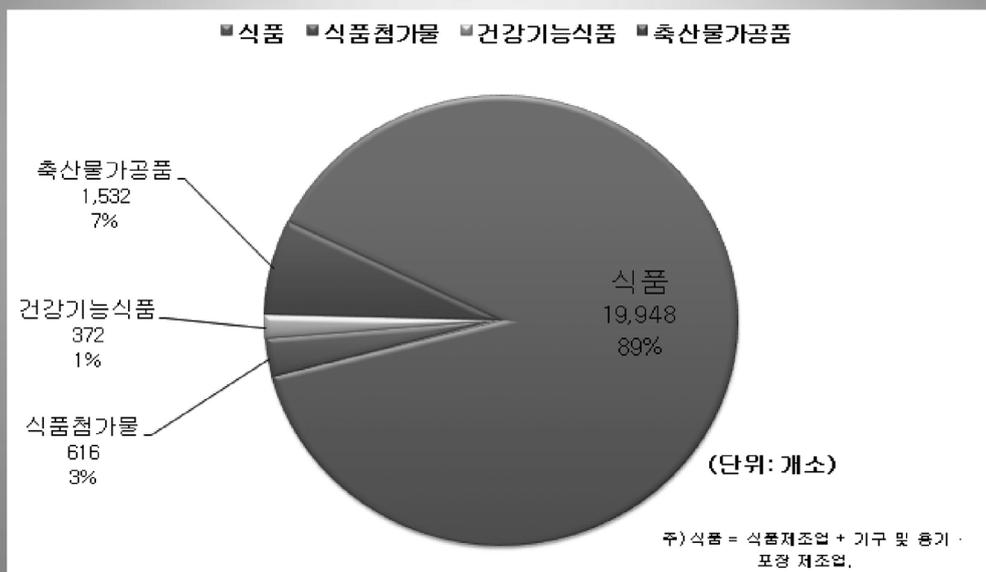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증가율 ('08-'09) | CAGR ('05-'09) |
|---------|--------|--------|--------|--------|--------|---------------|----------------|
| 식품 | 16,292 | 17,203 | 17,889 | 18,579 | 19,948 | 7.3 | 5.2 |
| 식품첨가물 | 515 | 508 | 515 | 545 | 616 | 13.0 | 4.6 |
| 건강기능식품 | 283 | 337 | 345 | 356 | 372 | 4.4 | 7.1 |
| 축산물가공품 | 1,155 | 1,250 | 1,337 | 1,595 | 1,532 | -3.9 | 7.3 |
| 총 보고업체수 | 18,245 | 19,298 | 20,086 | 21,075 | 22,468 | 6.6 | 5.3 |

주) 식품 = 식품제조업 +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업.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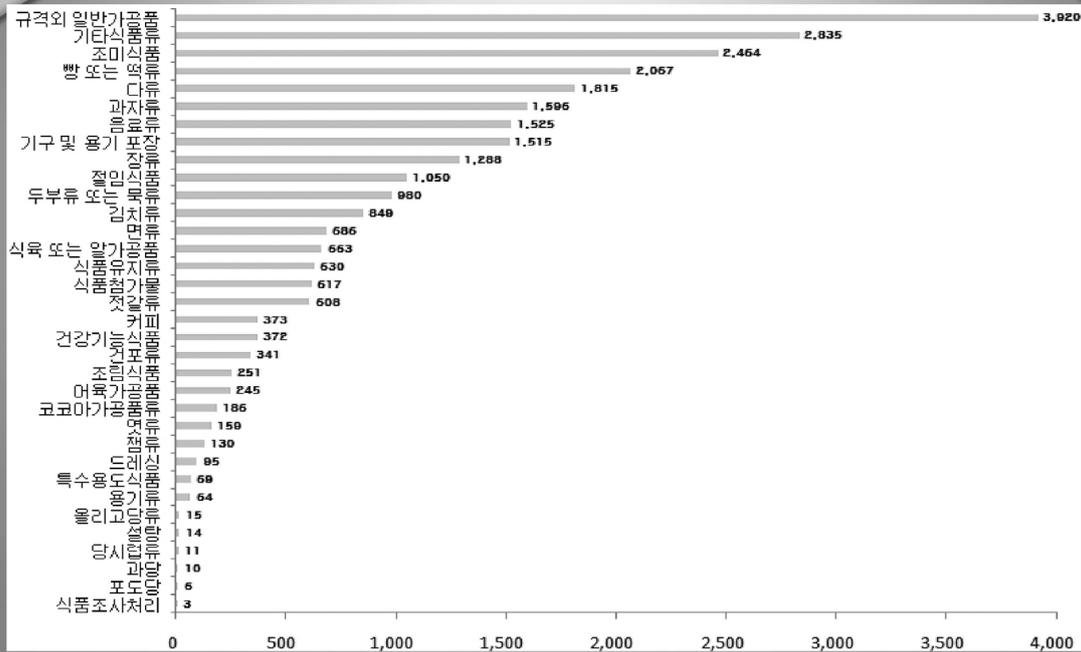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식품제조산업 유형별 업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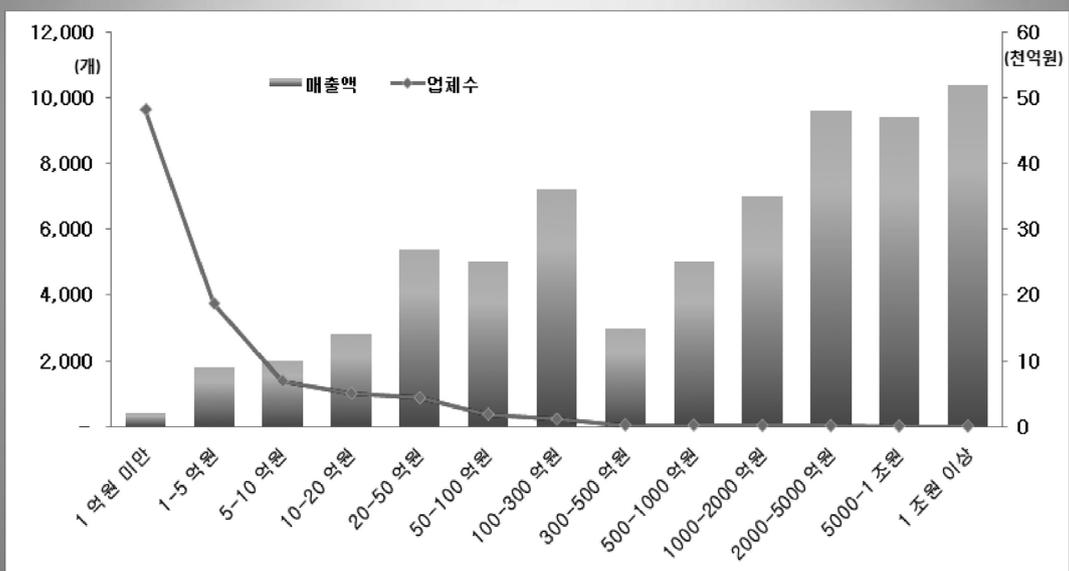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품목별 업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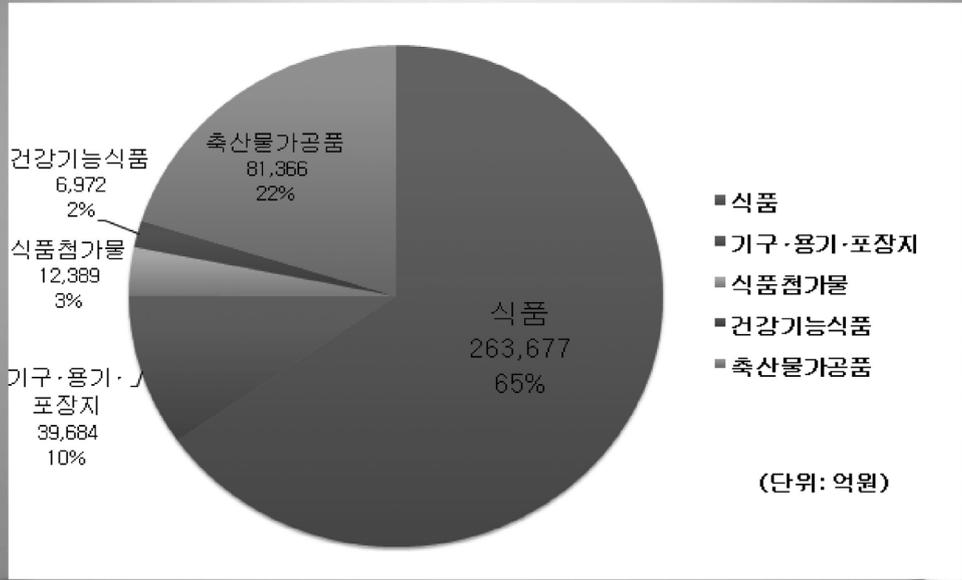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매출액 규모별 업체 현황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도 식품유형별 생산현황



자료: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식품품목군별 생산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08 | | 2009 | | |
|---------------|---------|-------|---------|-------|-------|
| | 생산금액 | 점유율 | 생산금액 | 점유율 | 성장률 |
| 유가공품 | 49,570 | 13.5 | 51,216 | 12.7 | 3.3 |
| 기구및용기·포장 | 36,228 | 9.9 | 39,684 | 9.8 | 9.5 |
| 기타식품류 | 27,445 | 7.5 | 28,932 | 7.2 | 5.4 |
|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25,219 | 6.9 | 28,892 | 7.1 | 14.6 |
| 식육가공품 | 18,360 | 5.0 | 28,015 | 6.9 | 52.6 |
| 음료류 | 29,269 | 8.0 | 25,947 | 6.4 | -11.4 |
| 과자류 | 22,608 | 6.2 | 25,743 | 6.4 | 13.9 |
| 면류 | 17,610 | 4.8 | 21,253 | 5.3 | 20.7 |
| 빵또는떡류 | 17,382 | 4.7 | 19,753 | 4.9 | 13.6 |
| 조미식품 | 16,783 | 4.6 | 18,237 | 4.5 | 8.7 |
| 식용유지류 | 13,375 | 3.6 | 13,702 | 3.4 | 2.5 |
| 식품첨가물 | 9,954 | 2.7 | 12,382 | 3.1 | 24.4 |
| 설탕 | 6,173 | 1.7 | 8,648 | 2.1 | 40.1 |
| 커피 | 9,335 | 2.5 | 8,620 | 2.1 | -7.7 |
|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 7,273 | 2.0 | 7,901 | 2.0 | 8.6 |
| 김치류 | 6,574 | 1.8 | 7,302 | 1.8 | 11.1 |
| 장류 | 6,811 | 1.9 | 7,282 | 1.8 | 6.9 |
| 건강기능식품 | 5,886 | 1.6 | 6,972 | 1.7 | 18.4 |
| 두부류또는묵류 | 3,929 | 1.1 | 5,226 | 1.3 | 33.0 |
| 도시락 | 5,964 | 1.6 | 5,136 | 1.3 | -13.9 |
| 다류 | 4,418 | 1.2 | 4,985 | 1.2 | 12.8 |
| 어육가공품 | 4,754 | 1.3 | 4,935 | 1.2 | 3.8 |
| 식육또는연가공품 | 2,617 | 0.7 | 3,157 | 0.8 | 20.6 |
| 절임식품 | 3,865 | 1.1 | 2,962 | 0.7 | -23.4 |
| 건포류 | 2,113 | 0.6 | 2,373 | 0.6 | 12.3 |
| 드레싱 | 1,992 | 0.5 | 2,317 | 0.6 | 16.3 |
| 젓갈류 | 2,248 | 0.6 | 2,258 | 0.6 | 0.4 |
| 엿류 | 2,063 | 0.6 | 2,244 | 0.6 | 8.8 |
| 말가공품 | 1,457 | 0.4 | 2,135 | 0.5 | 46.6 |
| 특수음도식품 | 1,828 | 0.5 | 1,861 | 0.5 | 1.8 |
| 과당 | 1,157 | 0.3 | 1,280 | 0.3 | 10.6 |
| 젤류 | 794 | 0.2 | 964 | 0.2 | 21.5 |
| 조림식품 | 722 | 0.2 | 914 | 0.2 | 26.6 |
| 포도당 | 424 | 0.1 | 423 | 0.1 | -0.2 |
| 올리고당류 | 157 | 0.0 | 255 | 0.1 | 62.7 |
| 응기류 | 115 | 0.0 | 164 | 0.0 | 42.7 |
| 당시럽류 | 16 | 0.0 | 10 | 0.0 | -39.2 |
| 식품조사처리 | 9 | 0.0 | 8 | 0.0 | -11.9 |
| 총계 | 366,496 | 100.0 | 404,088 |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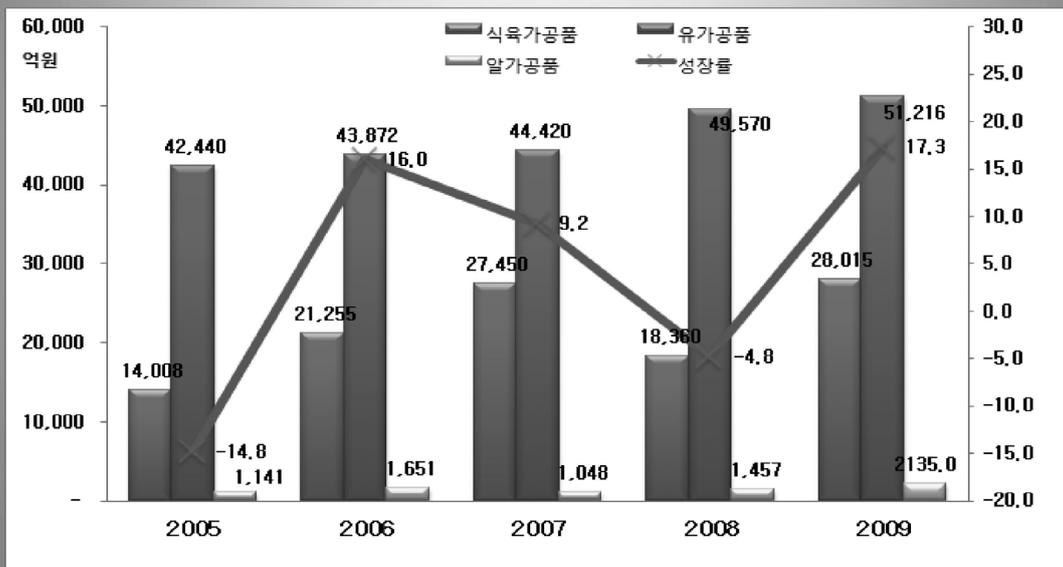
자료: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주요 품목군의 세부품목별 생산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 생산금액 | 점유율 | 구분 | | 생산금액 | 점유율 |
|------------------|-------------------|---------------|------|------------------|------------|---------------|------|
| 기타 식품류 | 말가루 | 1,035,989,534 | 30.4 | 규격외 일반 가공품 | 수산물가공품(어류) | 934,946,651 | 32.4 |
|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 493,605,934 | 14.5 | | 기타가공품 | 856,739,735 | 29.7 |
| | 식물성크림 | 346,645,868 | 10.2 | | 곡류가공품 | 418,112,871 | 14.5 |
| | 조미김 | 330,060,613 | 9.7 | | 수산물가공품(기타) | 336,897,826 | 11.7 |
| 음료류 | 탄산음료 | 673,066,072 | 25.9 | 빵 또는 떡류 | 빵류(기타) | 631,940,070 | 32.0 |
| | 과·채음료(가열) | 482,930,503 | 18.6 | | 빵류(케이크) | 353,689,044 | 17.9 |
| | 혼합음료 | 461,103,754 | 17.8 | | 만두류 | 308,908,491 | 15.6 |
| | 과·채주스(가열) | 306,799,374 | 11.8 | | 떡류 | 275,863,728 | 14.0 |
| 가구 및 용기 포장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 1,634,010,792 | 41.2 | 면류 | 유탕면류(봉지라면) | 1,090,452,090 | 51.3 |
| |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 517,841,485 | 13.0 | | 유탕면류(용기면) | 503,936,123 | 23.7 |
| | 금속관 | 412,614,544 | 10.4 | | 국수(건면) | 158,731,555 | 7.5 |
| | 기타 | 352,763,981 | 8.9 | | 국수(숙면) | 80,260,439 | 3.8 |
| 과자류 | 과자(비스킷류) | 702,764,795 | 27.3 | 조미 식품 | 복합조미식품 | 573,909,629 | 31.5 |
| | 과자(스낵과자류) | 695,612,563 | 27.0 | | 소스류 | 567,242,826 | 31.1 |
| | 과자(기타) | 360,207,789 | 14.0 | | 고추가루 | 274,608,333 | 15.1 |
| | 추잉껌(기타) | 230,954,178 | 9.0 | | 향신료조제품 | 110,351,280 | 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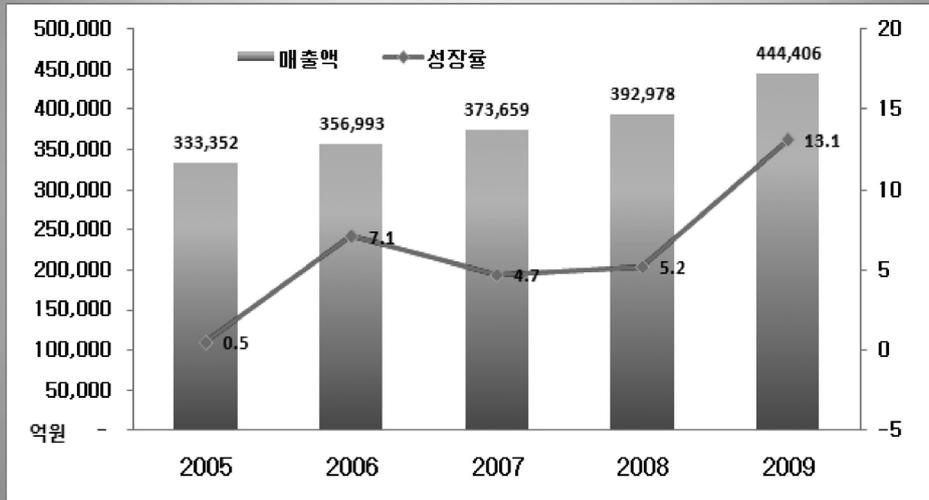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생산현황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연도별 식품제조산업 매출액 및 성장률



- 1) 식품제조산업 = 식품 + 기구, 용기, 포장지 + 식품첨가물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가공품
 2) 매출액 = 국내출하액 + 국외출하액(수출액)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식품 유형별 국내출하 현황

(단위: 억 원, %)

| 구분 | 2005 |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
| | 국내 출하액 | 성장률 | 국내 출하액 | 성장률 | 국내 출하액 | 성장률 | 국내 출하액 | 성장률 | 국내 출하액 | 성장률 |
| 식품첨가물 | 6,637 | -0.8 | 5,642 | -15.0 | 5,403 | -4.2 | 5,877 | 8.77 | 8,636 | 46.9 |
| 건강기능식품 | 6,332 | 179.7 | 6,637 | 4.8 | 6,888 | 3.8 | 7,516 | 9.12 | 9,183 | 22.2 |
| 축산물가공품 | 62,117 | -9.4 | 68,966 | 11.0 | 77,470 | 12.3 | 72,374 | -6.58 | 86,699 | 19.8 |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생산량 기준 국민다소비 식품품목 순위

(단위: 톤, 억원, 백만달러, %)

| 순위 | 품목군 | 생산량 (T) | 생산액 (억원) | 국내출하량 (T) | 국내출하액 (억원) | 수출량 (T) | 수출액 (백만달러) |
|-----------|------------|------------|----------|------------|------------|-----------|------------|
| 1 | 기구 및 용기·포장 | 8,975,428 | 39,684 | 8,300,960 | 36,785 | 322,175 | 313.1 |
| 2 | 식품첨가물 | 5,990,410 | 12,382 | 3,918,594 | 8,636 | 49,955 | 127.4 |
| 3 | 기타 식품류 | 5,152,938 | 34,068 | 4,646,103 | 33,277 | 141,102 | 266.3 |
| 4 | 음료류 | 2,715,166 | 25,947 | 2,419,124 | 34,059 | 67,642 | 77.6 |
| 5 | 설탕 | 1,388,356 | 8,648 | 1,067,881 | 8,535 | 290,587 | 28.9 |
| 6 | 규격외 일반기공식품 | 1,224,721 | 28,892 | 1,149,763 | 25,131 | 171,444 | 382.3 |
| 7 | 빵 또는 떡류 | 1,088,267 | 19,753 | 954,881 | 20,867 | 6,661 | 12.1 |
| 8 | 조미식품 | 886,172 | 18,237 | 934,230 | 20,457 | 17,868 | 45.2 |
| 9 | 식용유지류 | 800,609 | 13,702 | 713,201 | 13,805 | 6,011 | 11.9 |
| 10 | 면류 | 741,531 | 21,253 | 675,784 | 23,782 | 39,898 | 120.2 |
| 11 | 장류 | 631,030 | 7,282 | 531,121 | 9,192 | 21,208 | 29.0 |
| 12 | 과자류 | 511,421 | 25,743 | 415,485 | 23,410 | 15,118 | 58.3 |
| 13 | 김치류 | 426,834 | 7,302 | 392,072 | 7,268 | 27,411 | 77.4 |
| 14 | 커피 | 403,225 | 8,620 | 336,738 | 13,013 | 11,588 | 52.3 |
| 15 | 엿류 | 401,595 | 2,244 | 378,344 | 2,512 | 285 | 0.2 |
| 16 | 두부류 또는 묵류 | 384,219 | 5,226 | 331,493 | 5,194 | 2,102 | 1.6 |
| 17 | 과당 | 258,396 | 1,280 | 240,991 | 1,295 | 12,549 | 4.1 |
| 18 | 다류 | 236,987 | 4,985 | 197,926 | 5,130 | 20,399 | 40.0 |
| 19 | 절임식품 | 226,381 | 2,962 | 196,903 | 3,306 | 1,056 | 4.4 |
| 20 | 식육 또는 알기공품 | 192,856 | 3,157 | 187,119 | 3,295 | 970 | 3.6 |
| 상위 20개 합계 | | 32,636,542 | 291,367 | 27,988,713 | 298,949 | 1,226,029 | 1,655.9 |
| 총 계 | | 33,451,413 | 315,750 | 28,660,133 | 322,633 | 1,274,884 | 1,890.5 |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생산량 기준 국민다소비 식품세부품목 순위

(단위: 톤, 억원, 백만달러, %)

| 순위 | 식품품목군 | 식품품목명 | 생산량(T) | 국내출하액 (억 원) | 수출액 (백만달러) |
|----|------------|------------|-----------|-------------|------------|
| 1 | 기타 식품류 | 밀가루 | 1,633,322 | 11,490 | 4.3 |
| 2 | 설탕 | 백설탕 | 1,249,516 | 7,158 | 128.1 |
| 3 | 기타 식품류 | 즉석섭취식품(기타) | 1,113,579 | 1,715 | 0.1 |
| 4 | 음료류 | 탄산음료 | 1,112,575 | 10,547 | 9.7 |
| 5 | 기타 식품류 | 어업응얼음 | 740,605 | 383 | 0.6 |
| 6 | 음료류 | 혼합음료 | 522,623 | 6,182 | 25.5 |
| 7 | 음료류 | 과·채음료(가열) | 490,163 | 5,095 | 18.2 |
| 8 | 식용유지류 | 콩기름(대두유) | 373,623 | 5,578 | 4.4 |
| 9 | 규격외 일반기공식품 | 기타기공품 | 373,299 | 8,339 | 68.2 |
| 10 | 엿류 | 물엿 | 372,994 | 2,225 | 0.1 |
| 11 | 빵 또는 떡류 | 떡류 | 352,322 | 2,934 | 2.6 |
| 12 | 면류 | 유당면류(봉지라면) | 351,697 | 12,863 | 51.6 |
| 13 | 규격외 일반기공식품 | 곡류기공품 | 345,405 | 4,198 | 9.5 |
| 14 | 두부류 또는 묵류 | 두부 | 336,484 | 4,248 | 0.0 |
| 15 | 조미식품 | 소스류 | 327,987 | 6,170 | 9.2 |
| 16 | 김치류 | 배추김치 | 324,499 | 4,996 | 75.3 |
| 17 | 기타 식품류 | 기타진분 | 259,936 | 1,327 | 14.6 |
| 18 | 과당 | 액상과당 | 257,414 | 1,276 | 4.1 |
| 19 | 빵 또는 떡류 | 빵류(기타) | 252,608 | 7,096 | 3.2 |
| 20 | 절임식품 | 절임류 | 221,140 | 2,900 | 3.8 |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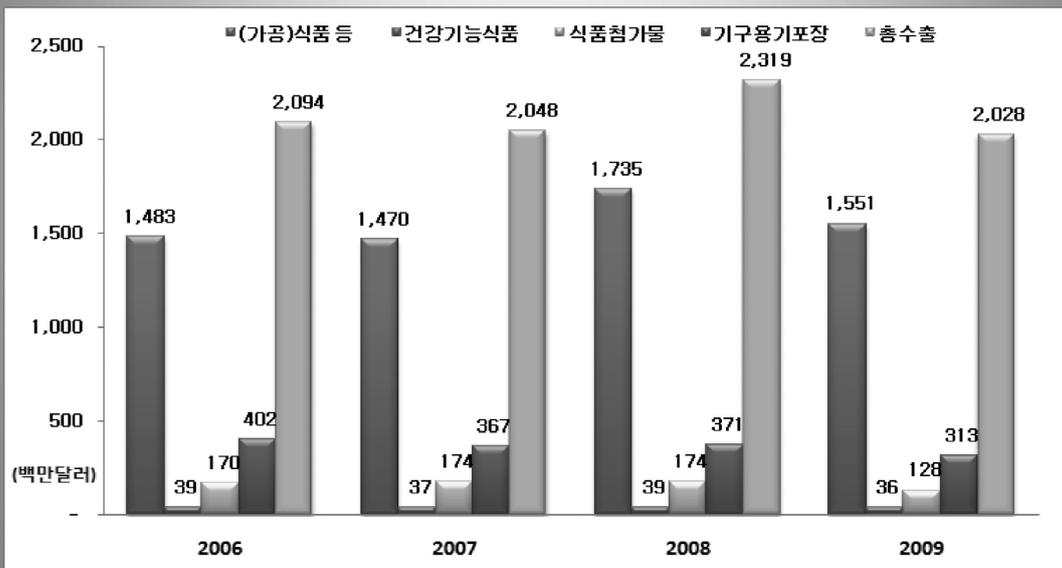
식품제조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 2006 | 2007 | 2008 | 2009 | 08년 대비 증가율 |
|----------|------|--------|--------|--------|--------|---------------|
| (가공)식품 등 | 수출 | 1,483 | 1,470 | 1,735 | 1,551 | -10.6 |
| | 수입 | 2,520 | 2,727 | 3,163 | 2,479 | -21.6 |
| | 무역수지 | -1,037 | -1,257 | -1,428 | -928 | 적자감소 |
| 건강기능식품 | 수출 | 39 | 37 | 39 | 36 | -7.7 |
| | 수입 | 230 | 215 | 221 | 210 | -5.0 |
| | 무역수지 | -191 | -178 | -181 | -174 | 적자감소 |
| 식품첨가물 | 수출 | 170 | 174 | 174 | 128 | -26.4 |
| | 수입 | 470 | 519 | 615 | 550 | -10.6 |
| | 무역수지 | -300 | -345 | -441 | -422 | 적자감소 |
| 기구용기 포장 | 수출 | 402 | 367 | 371 | 313 | -15.6 |
| | 수입 | 604 | 708 | 695 | 830 | 19.4 |
| | 무역수지 | -202 | -341 | -324 | -517 | 적자증가 |
| 합계 | 수출 | 2,094 | 2,048 | 2,319 | 2,028 | -12.5 |
| | 수입 | 3,824 | 4,169 | 4,694 | 4,069 | -13.3 |
| | 무역수지 | -1,730 | -2,121 | -2,375 | -2,041 | 적자감소 |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유형별 수출 현황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보건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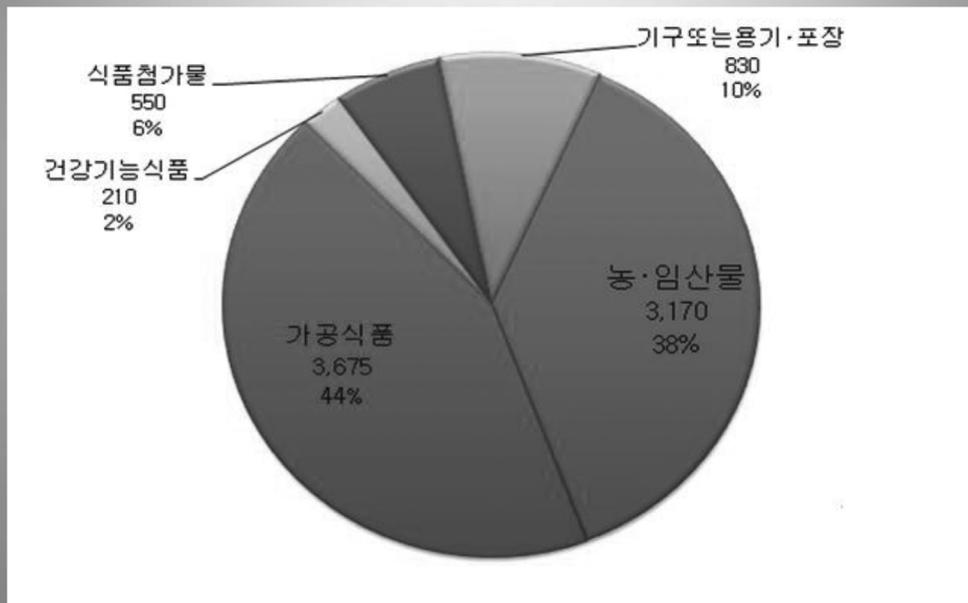
식품품목군별 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달러, %)

| 품목군 | 2006 | 2007 | 2008 | 2009 | 증가율 (‘08-’09) | CAGR (‘06-’09) |
|-----------|-------|-------|-------|-------|------------------|-------------------|
| 농·임산물 | 3,049 | 3,121 | 3,991 | 3,170 | -20.6 | 1.3 |
| 가공식품 | 3,460 | 3,885 | 4,340 | 3,675 | -15.3 | 2.0 |
| 건강기능식품 | 230 | 215 | 221 | 210 | -4.9 | -3.0 |
| 식품첨가물 | 470 | 519 | 615 | 550 | -10.6 | 5.4 |
| 기구또는용기·포장 | 604 | 708 | 695 | 830 | 19.4 | 11.2 |
| 총계 | 7,812 | 8,449 | 9,861 | 8,434 | -14.5 | 2.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각 년도.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식품품목군별 수입액 현황



자료 :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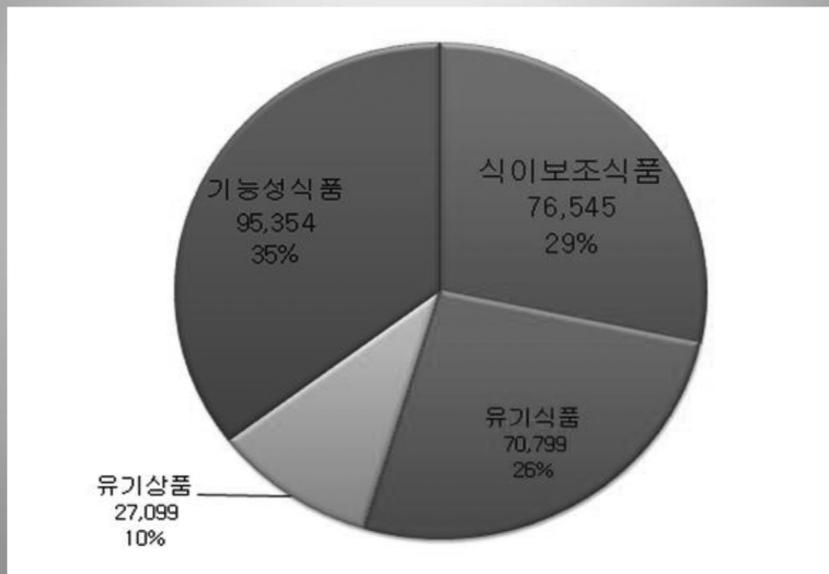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 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04-'08 (CAGR) |
|--------------------------------------|---------|---------|---------|---------|---------|----------------|
| 식이보조식품 (Dietary Supplements) | 61,104 | 64,957 | 68,275 | 72,231 | 76,545 | 5.8 |
| 유기식품 (Natural & Organic Foods) | 44,865 | 50,058 | 56,064 | 63,235 | 70,799 | 12.1 |
| 유기상품 (Natural & Organic Products) | 17,006 | 18,841 | 21,043 | 24,309 | 27,099 | 12.4 |
| 기능성식품 (Functional Foods) | 73,705 | 79,505 | 85,196 | 90,112 | 95,354 | 6.7 |
| 계 | 196,679 | 213,361 | 230,578 | 249,886 | 269,797 | 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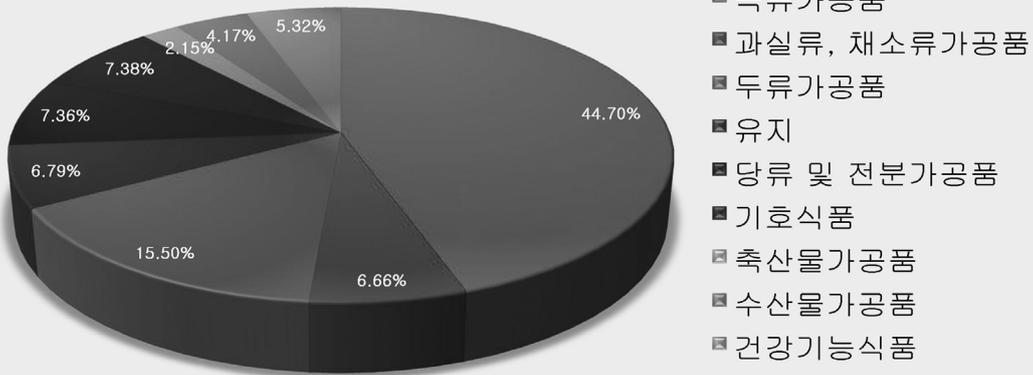
자료 : Nutrion Business Journal,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USA, 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8년 건강기능식품 분류별 매출액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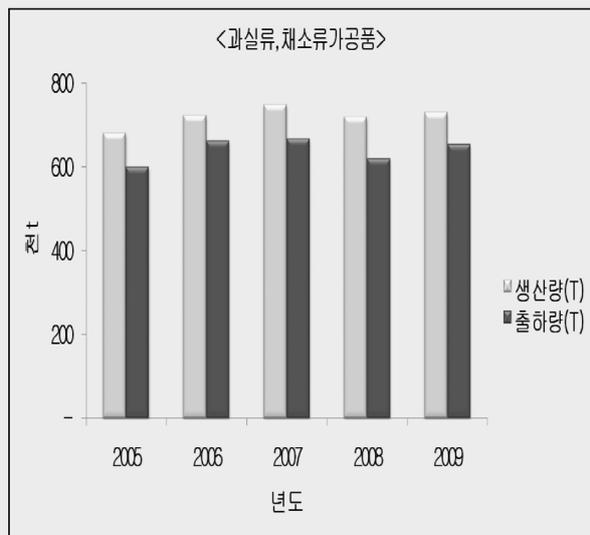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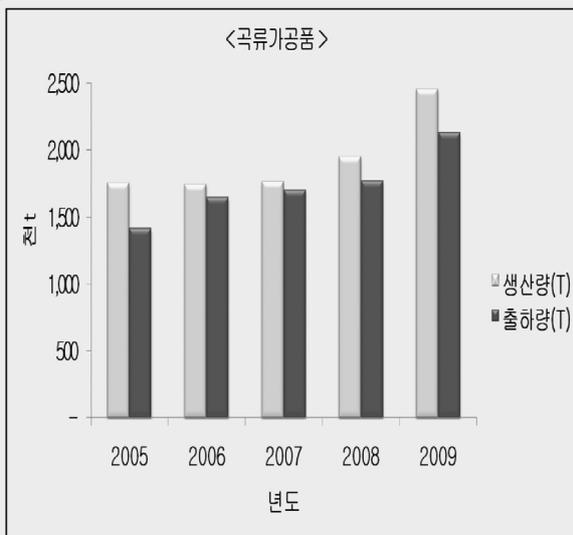
자료 : Nutrion Business Journal,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USA, 2010.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도 품목별 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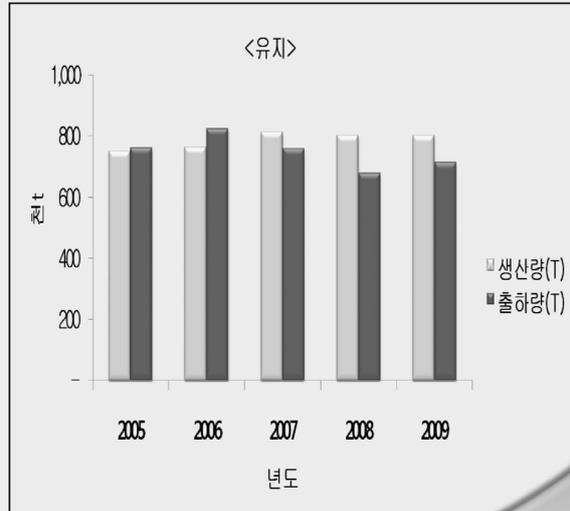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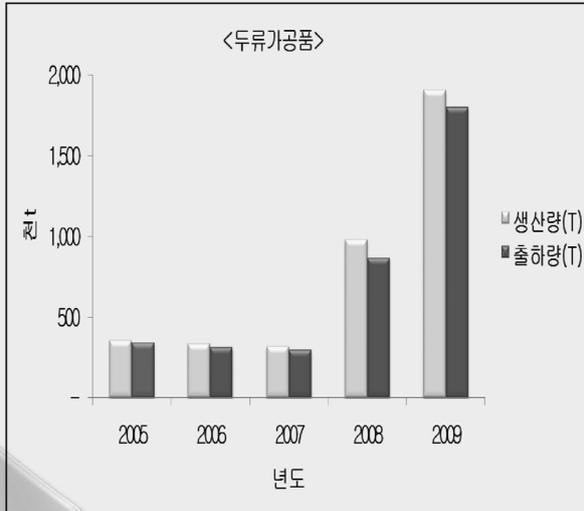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12호). 2010

식품군별 생산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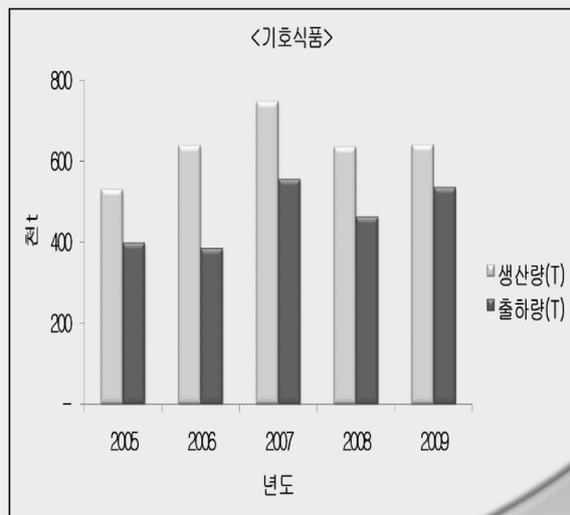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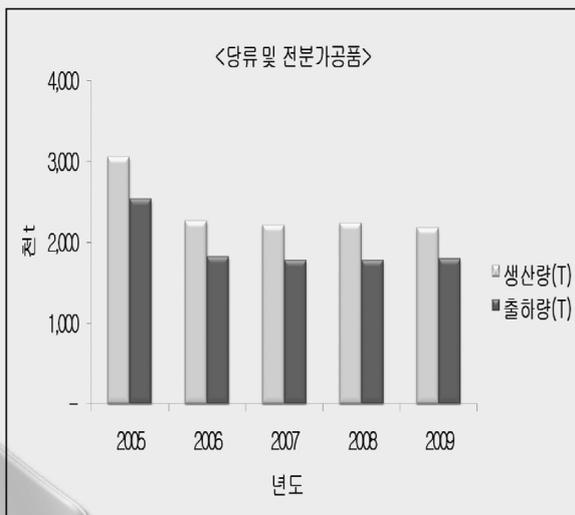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식품군별 국내생산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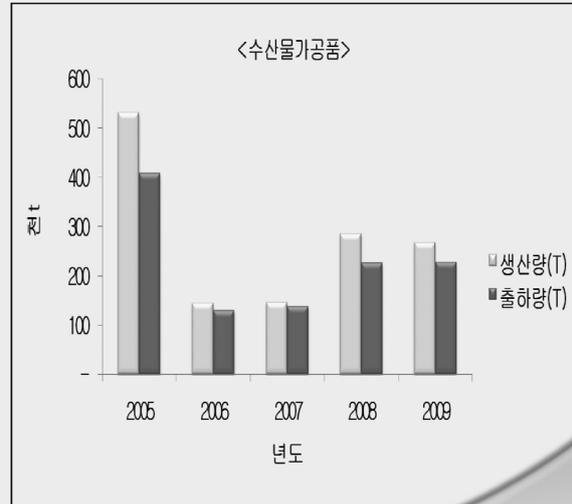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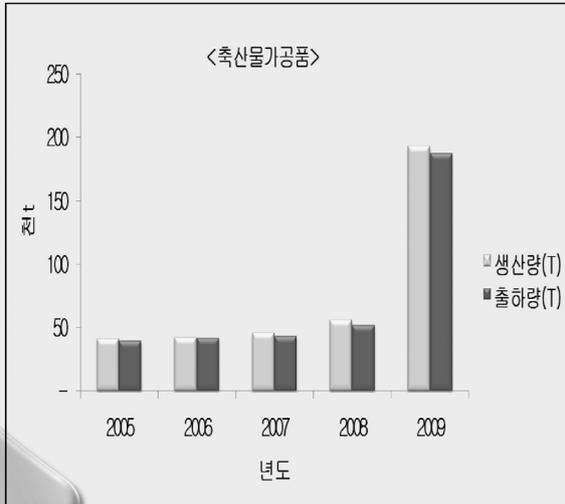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식품군별 국내생산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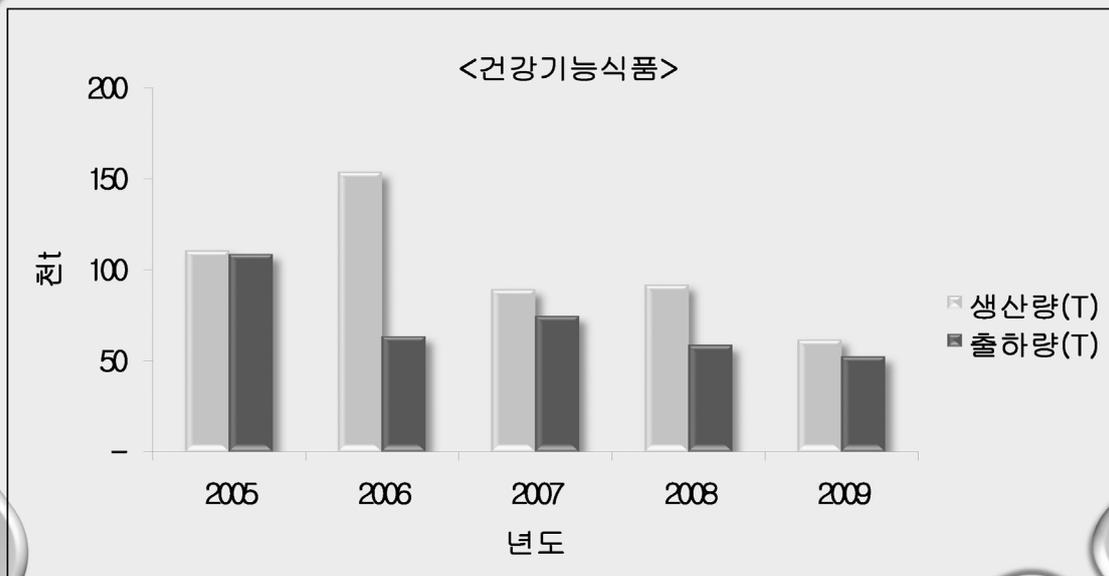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식품군별 국내생산실적 현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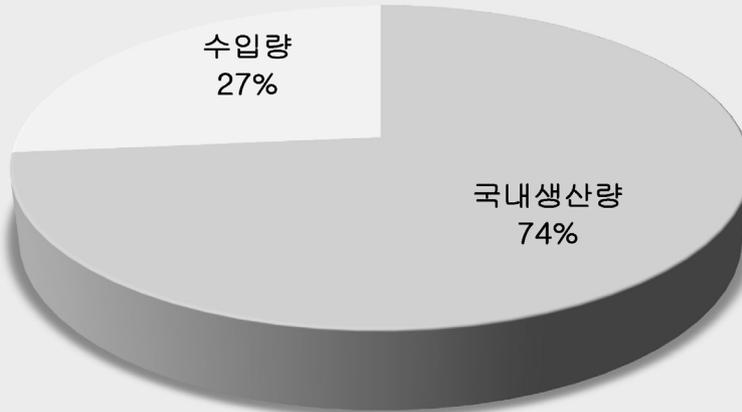
식품군별 국내생산실적 현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농축수산물 생산 및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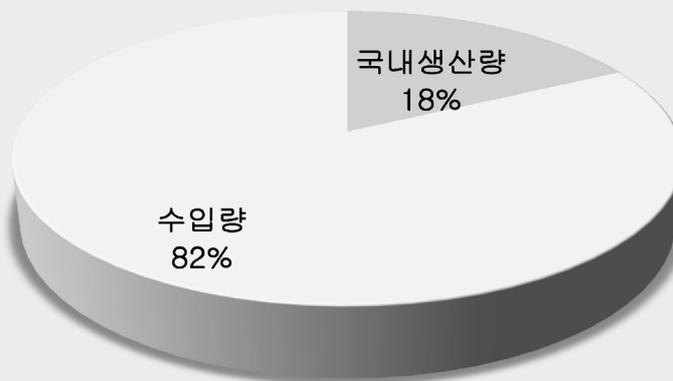
축산물(200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0)

농축수산물 생산 및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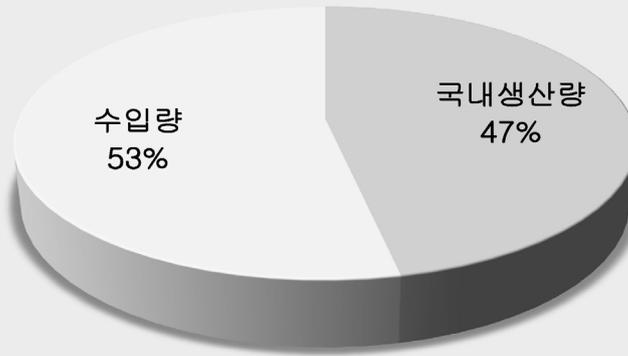
농산물(200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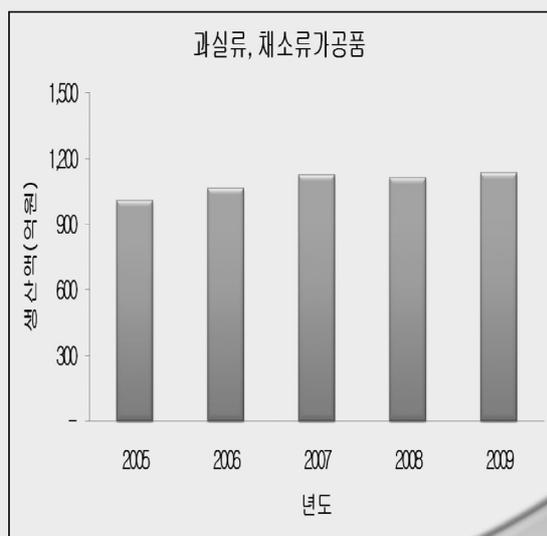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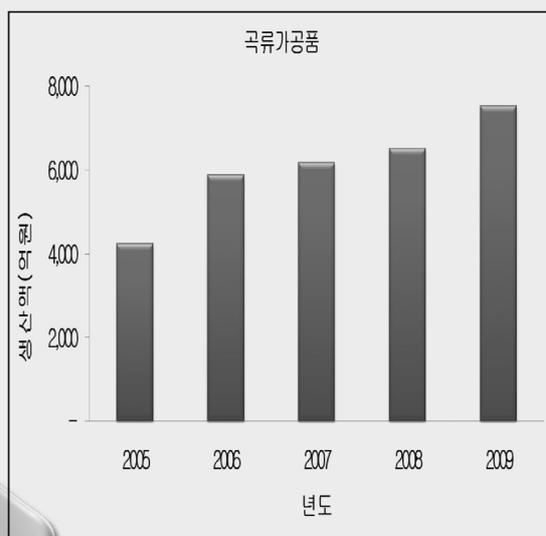
농축수산물 생산 및 수입현황

수산물(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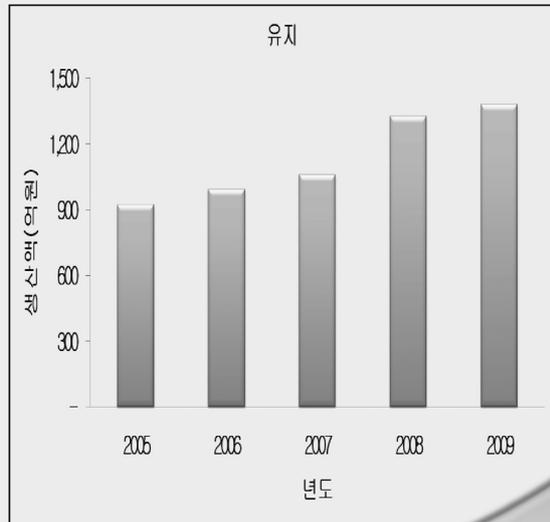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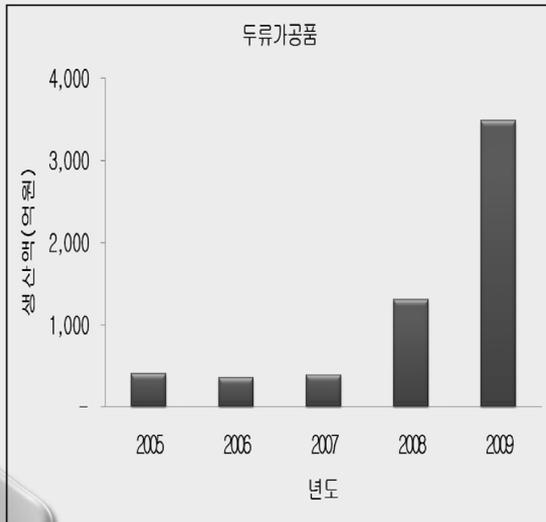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0)

식품군별 국내생산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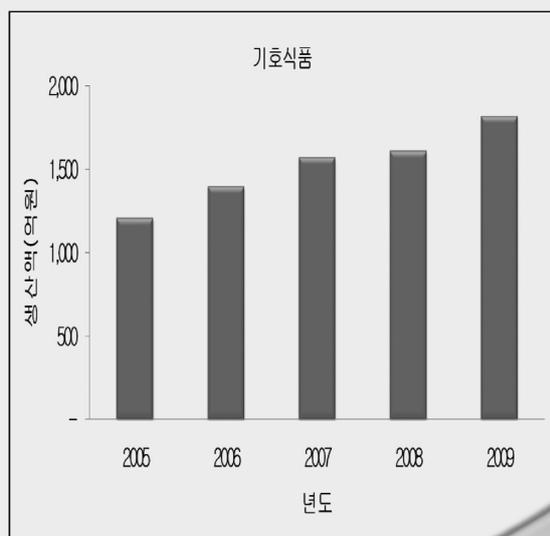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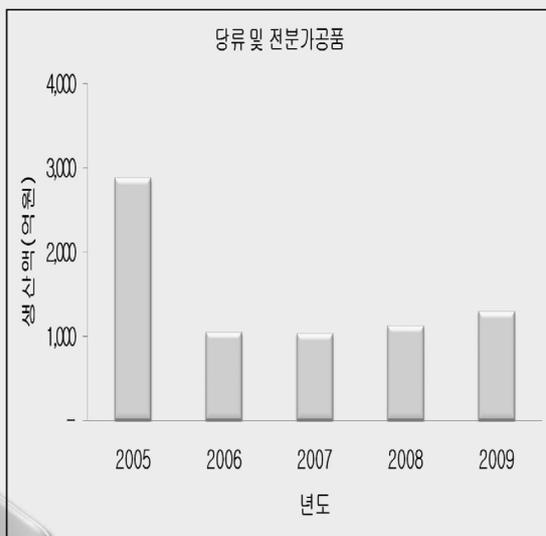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식품군별 국내생산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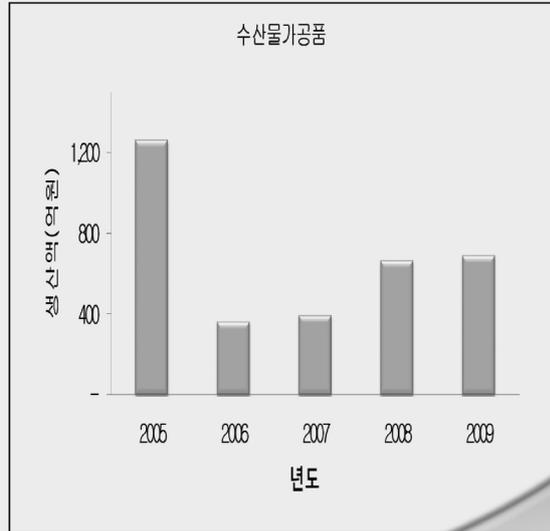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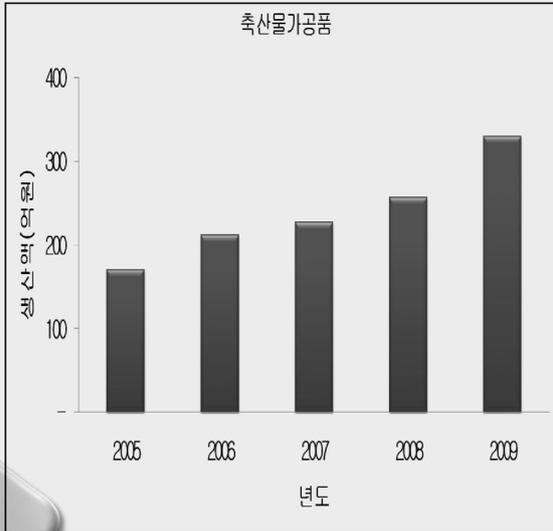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식품군별 국내생산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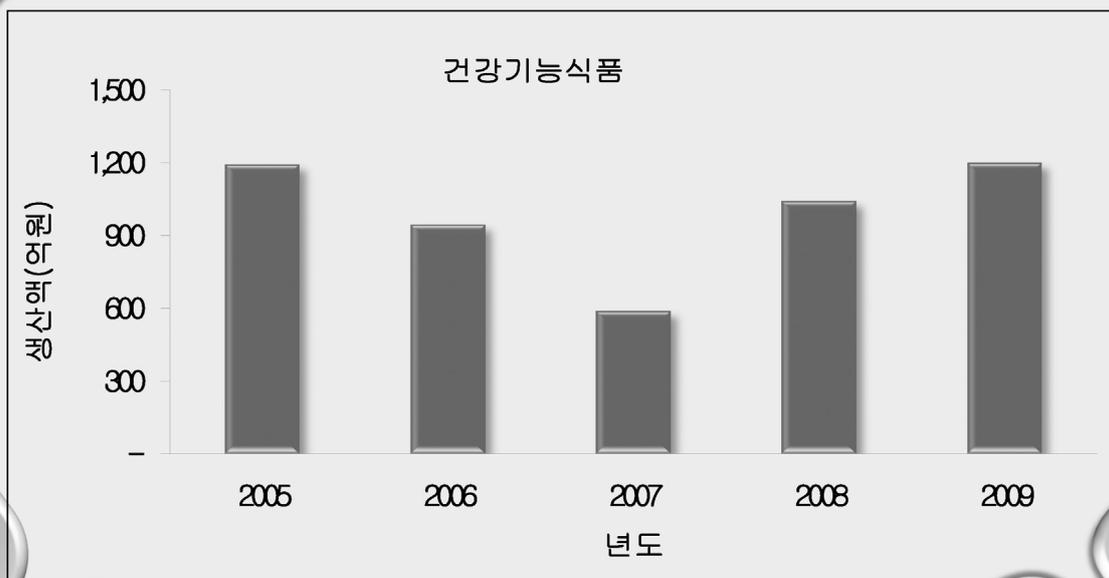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식품군별 국내생산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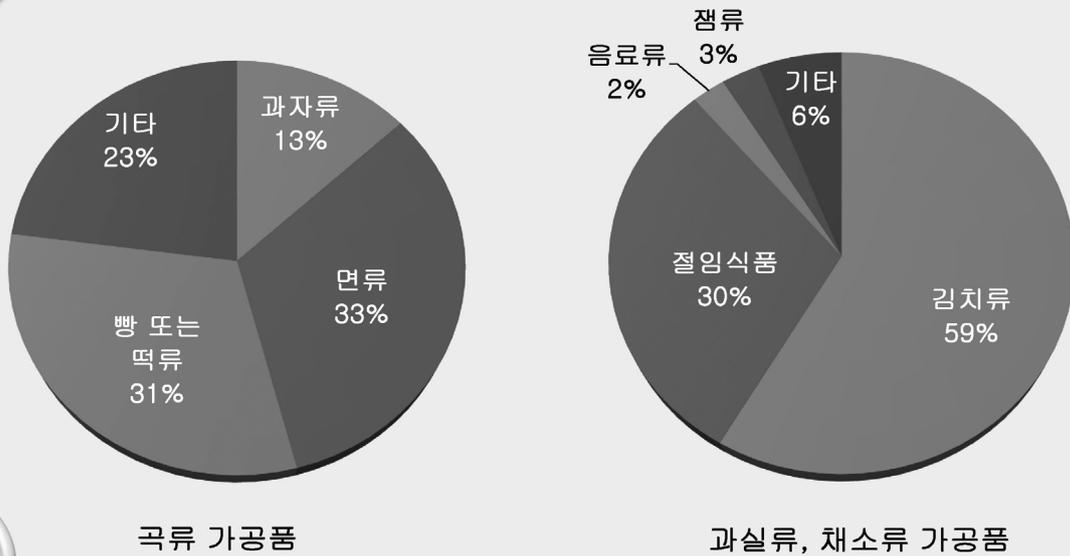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식품군별 국내생산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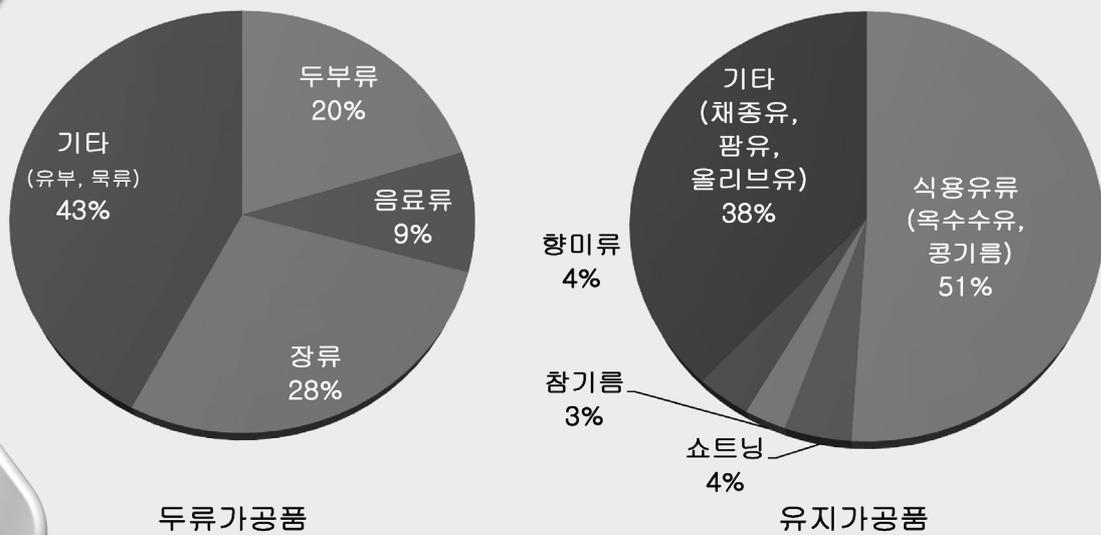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2009년도 생산량대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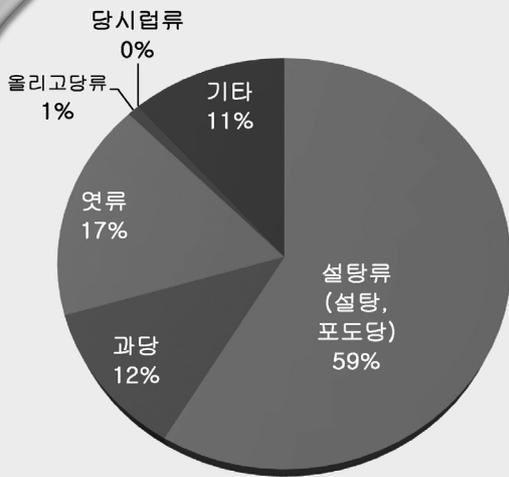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2010)

2009년도 생산량대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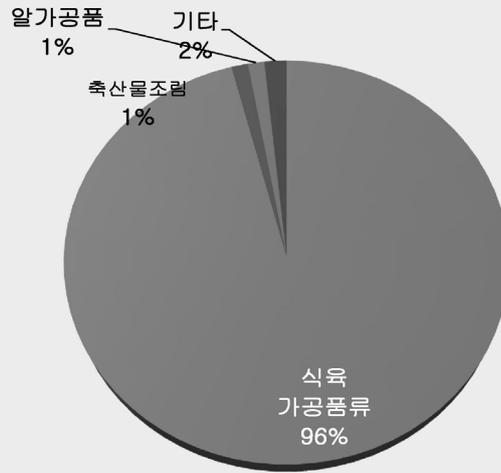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2010)

2009년도 생산량대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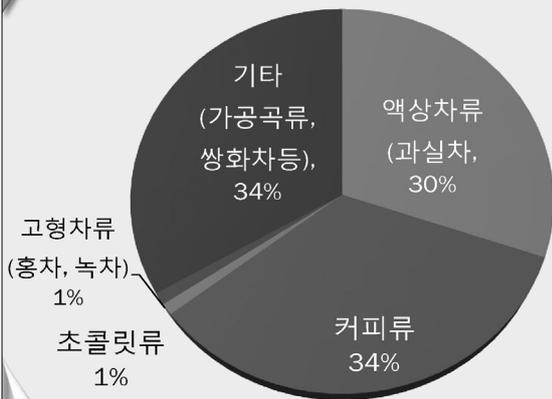
당류 및 전분 가공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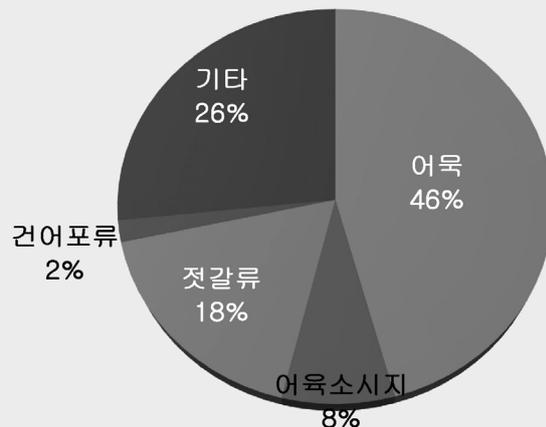
축산물 가공품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2010)

2009년도 생산량대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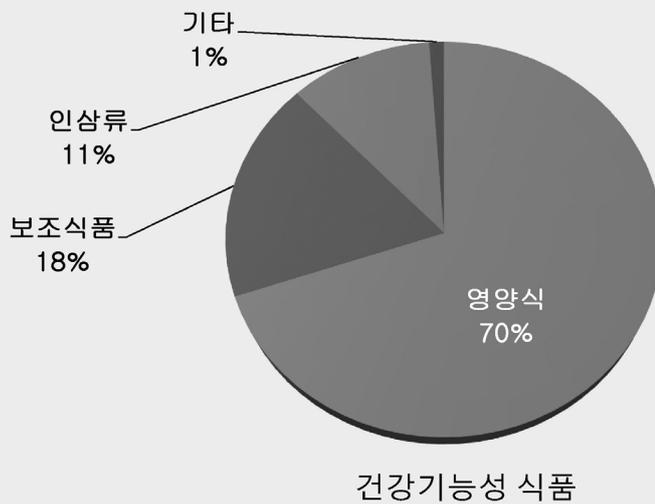
기호식품



수산물가공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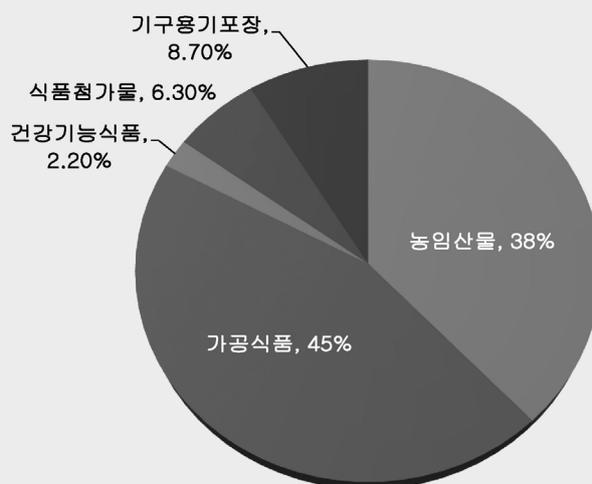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2010)

2009년도 생산량대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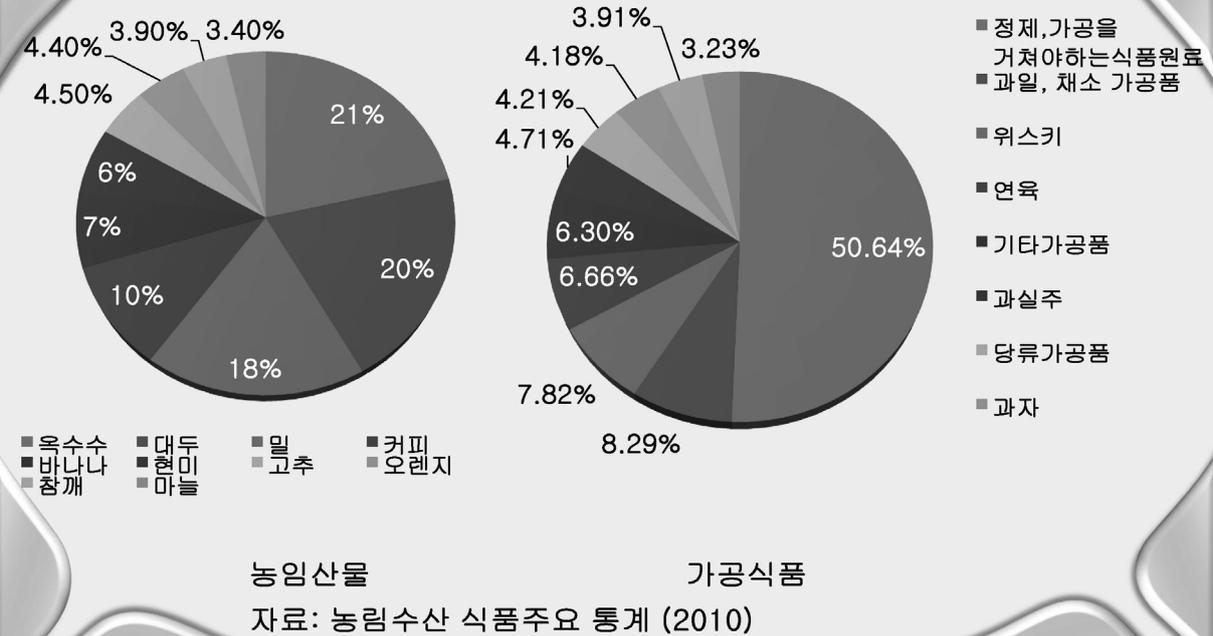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2010)

2009년 품목군별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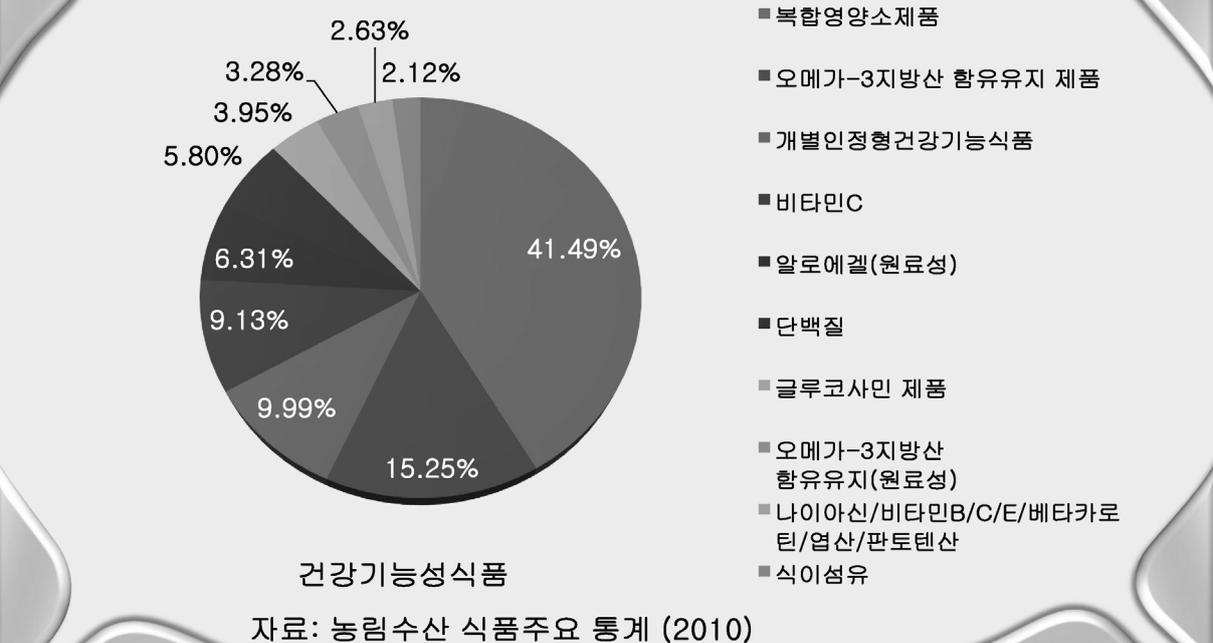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 식품주요 통계 (2010)

2009년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별 수입현황



2009년 가공식품 수입 실적 상위품목

| 순위 | 수입금액 | | | | 수입중량 | | | |
|----|------------|-------|---------|-------|------------|-------|---------|-------|
| | 품목명 | 건수 | 중량 | 금액 | 품목명 | 건수 | 중량 | 금액 |
| 1 | 과·채가공품 | 6,236 | 126,084 | 181.9 | 천일염 | 162 | 319,869 | 20.7 |
| 2 | 기타가공품 | 6,260 | 67,398 | 165.9 | 정제소금 | 147 | 152,869 | 8.7 |
| 3 | 연육 | 3,577 | 98,456 | 124.8 | 배추김치 | 6,823 | 148,002 | 63.3 |
| 4 | 당류가공품 | 4,000 | 146,538 | 79.6 | 당류가공품 | 4,000 | 146,538 | 79.6 |
| 5 | 과자 | 6,741 | 20,866 | 77.9 | 과·채가공품 | 6,236 | 126,084 | 181.9 |
| 6 | 곡류가공품 | 3,500 | 75,245 | 70.3 | 연육 | 3,577 | 98,456 | 124.8 |
| 7 | 서류가공품 | 2,646 | 64,315 | 66.7 | 곡류가공품 | 3,500 | 75,245 | 70.3 |
| 8 | 조콜릿가공품 | 3,003 | 9,872 | 63.3 | 기타가공품 | 6,260 | 67,398 | 165.9 |
| 9 | 배추김치 | 6,823 | 148,002 | 63.3 | 물엿 | 1,172 | 65,781 | 24.1 |
| 10 | 조미간어포류 | 1,233 | 15,326 | 62.6 | 서류가공품 | 2,646 | 64,315 | 66.7 |
| 11 | 캔디류 | 3,747 | 12,424 | 54.7 | 두류가공품 | 1,898 | 54,986 | 54.1 |
| 12 | 두류가공품 | 1,898 | 54,986 | 54.1 | 당면 | 2,347 | 54,506 | 44.1 |
| 13 | 복합조미식품 | 2,145 | 10,935 | 48.8 | 텍스트린 | 781 | 52,577 | 19.6 |
| 14 |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 2,614 | 34,171 | 46.7 | 식염절임 | 2,054 | 46,822 | 19.8 |
| 15 | 소스류 | 4,369 | 19,766 | 44.5 | 향신료조제품 | 1,803 | 40,205 | 35.5 |
| 16 | 당면 | 2,347 | 54,506 | 44.1 | 감자전분 | 199 | 38,269 | 27.5 |
| 17 | 수산물가공품 | 1,742 | 7,718 | 37.0 | 팝유 | 84 | 38,244 | 23.9 |
| 18 | 볶은커피 | 4,497 | 3,304 | 36.7 |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 2,614 | 34,171 | 46.7 |
| 19 | 건어포류 | 758 | 4,497 | 36.6 | 영양강화밀가루 | 240 | 25,883 | 14.6 |
| 20 | 향신료조제품 | 1,803 | 40,205 | 35.5 | 중력밀가루 | 313 | 25,027 | 9.9 |

주)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 원료, 주류는 제외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12호), 보건산업진흥원

수입식품 상위 수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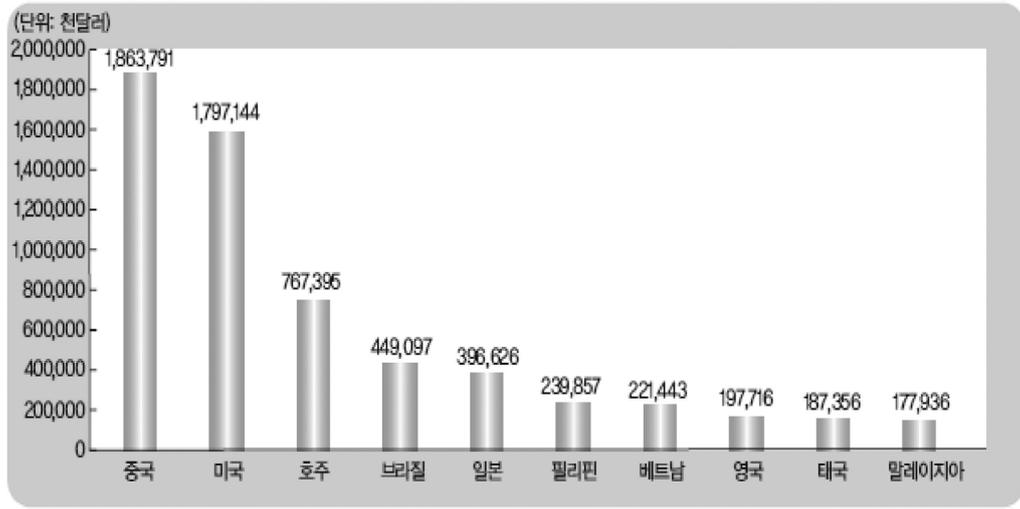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구분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
| |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 1 | 중국 | 2,227.4 | 29.4 | 2,113.7 | 25.7 | 1,969.3 | 20.4 | 1,863.7 | 22.1 |
| 2 | 미국 | 1,578.6 | 20.8 | 1,601.5 | 19.4 | 2,379.8 | 24.7 | 1,797.1 | 21.3 |
| 3 | 호주 | 614.6 | 8.1 | 597.5 | 7.3 | 820.1 | 8.5 | 767.4 | 9.1 |
| 4 | 브라질 | 379.4 | 5.0 | 522.3 | 6.3 | 481.2 | 5.0 | 449.1 | 5.3 |
| 5 | 일본 | 305.2 | 4.0 | 414.4 | 5.0 | 380.7 | 3.9 | 396.6 | 4.7 |
| 6 | 필리핀 | 244.5 | 3.2 | 265.9 | 3.2 | 250 | 2.6 | 239.8 | 2.8 |
| 7 | 베트남 | 151 | 2.0 | 165.7 | 2.0 | 278.6 | 2.9 | 221.4 | 2.6 |
| 8 | 영국 | 227.6 | 3.0 | 264.9 | 3.2 | 261 | 2.7 | 197.7 | 2.3 |
| 9 | 태국 | 132.3 | 1.7 | 143.7 | 1.7 | 242.3 | 2.5 | 187.3 | 2.2 |
| 10 | 말레이시아 | 104.8 | 1.4 | 172.3 | 2.1 | 256.3 | 2.7 | 177.9 | 2.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12호),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국가별 수입현황

-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식품 등 수입액의 74.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12호).

식량 위기 도래

국제 곡물가격 급등

- 국제 쌀 가격 → 2004년 대비 3배 폭등
2004년 200달러 → 2009년 600달러 (톤당, 태국산 기준)

식량 수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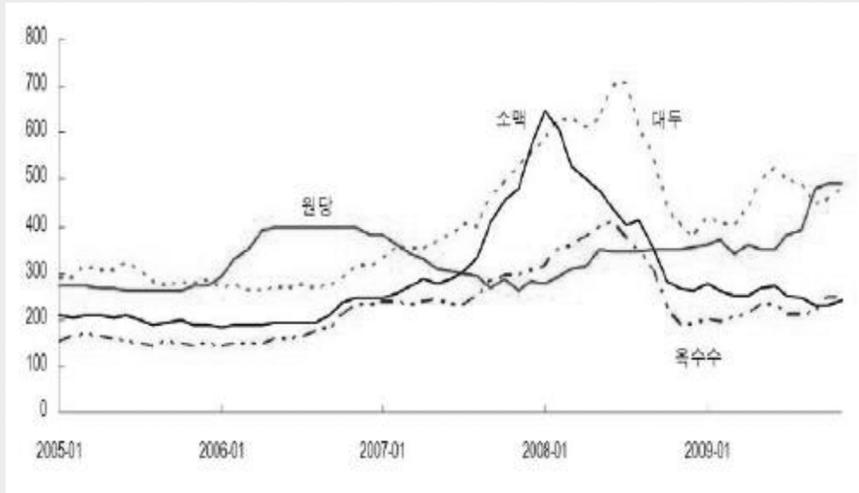
- 중국 → 농산물 및 가공품 수출관세 부과 (5 ~ 25 %)
- 아르헨티나 → 밀, 콩, 옥수수 수출관세 대폭 인상
- 러시아 → 밀, 보리 수출관세 부과 (10 ~ 30 %)
- 인도 → 쌀, 밀 수출 중단
- 베트남 → 신규 수출계약 중단

식량폭동

- 아프리카 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 필리핀은 쌀가게에 군대배치

자료: 한국인정원, 식품안전정책 및 ISO22000 설명회, 식품산업현황과 추진과제(농식품부 산업정책과)

- 식품산업은 생산원가 중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내 식품산업은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국제곡물가격이 2007년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급등 양상



자료 : 한국수입업협회, 수입원자재 오퍼가격동향(2010), 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식품산업계의 주변 환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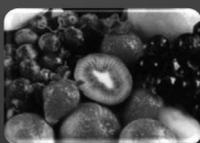
식품안전 관심 고조



수입농식품 증가, 외식소비확대 등으로
식품안전 불확실성 증대



AI virus, 구제역,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사태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 증가



웰빙식품 수요 급증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 증가 및 유기가공식품 소비 확대

자료: 한국인정원, 식품안전정책 및 ISO 22000 설명회, 식품산업현황과 추진과제(농식품부 산업정책과)

식량안보 달성 전략

21세기 식량안보 달성

식량공급의 안정성

식량 확보의 질과 양적 체질 강화

- 국내 공급능력 제고 및 체질 개선
 - 유희농지 및 간척지 개발로 생산능력 제고
 - 농업 및 환경분야 R&D예산의 획기적 증대, 민간역량 활용 극대화
- 수입구조 개선 및 능력 제고
 - 해외 식량기지 건설
 - 곡물수입가격 위험 관리
 - 조기경보체제 구축
 - 북한과의 농업협력

식량의 안전성

안전한 식량확보와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체계 수립

-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친환경 농가 지원 강화
 - 온실가스 배출감축
 - 기후변화 적응능력 배양
- 식량안전 및 접근성 제고
 - 안전(인증)식량 인지도 제고
 - 식량유통과정 안전성 확보
 - 수입농산물 검역 확대 실시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신 식량안보전략(2011. 2)

식품산업 비전 2020(농식품부)

식품산업 글로벌화

- ❖ 식품산업 매출액 : ('08) 120조 → ('20) 260조원
- ❖ 식품산업 고용 : ('08) 174만명 → ('20) 212만명

식품

- ✓ 매출액 10조 이상 기업 5개 육성
 - 현재 국내 1조 클럽은 13개 기업
-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익산)를 아시아식품시장 허브로 육성
 - '20년까지 10조원 매출, 10만명 고용

시장창출

- ✓ 기능성 식품, 의약 대체식품 개발 등 수요 창출
- ✓ 동북아 식품 시장 선점 ⇨ 전 세계로 확대

한식세계화

- ✓ '세계에서 사랑 받는 한식세계화' 프로젝트 추진
 - G20, 한국 방문의 해 등을 활용한 국제적 마케팅
 - 막걸리, 비빔밥 등 우리 음식 문화 세계화

수출

- ✓ 2020년 300억불 수출,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

자료: 한국인정원, 식품안전정책 및 ISO 22000 설명회, 식품산업현황과 추진과제(농식품부 산업정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식품부 정책 추진과제

- ① 핵심 인프라 조성
- ② 식품 R&D 강화
- ③ 외식산업화 촉진
- ④ 한식세계화
- ⑤ 농식품 수출확대
- ⑥ 전통식품 산업화
- ⑦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 ⑧ 식생활 교육 운동 확산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 ❖ 주요 3대 글로벌 트렌드 - 건강, 편의, 전통
 - 전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 ※ 유기식품: '04년 450억 달러 → '08년 710억 달러 (연평균 12.1%↑)
 - 기능성식품: '04년 740억 달러 → '08년 950억 달러(연평균 6.7%↑)
 - 소득증가, 도시화로 인한 편의식품 (ex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시장의 빠른 성장
 - ※ Ready meals: '06년 690억 달러 → '10년 800억 달러 (연평균 4.0%↑)
 - Frozen food: '06년 1,720억 달러 → '10년 1,990억 달러 (연평균 3.7%↑)
 - 전통식품의 세계화 전략을 통한 식품산업육성 -에스닉푸드
 - 일식인구 배증계획(일본): 연간 1회 이상 취식자를 '10년 12억명까지 증가 목표
 - 키친 오브 더 월드(태국): '04년부터 태국음식세계화를 강력 추진

국내 식품기업의 발전 방향

-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새로운 식품시장 개척, 한식의 세계화 등 노력 필요
 - 고부가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고가(高價)의 제품가격으로 국내 식품제조기업의 외형을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무슬림(Muslim) 문화권의 할랄(Halal)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 한식(韓食)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여 국내 식품산업 해외 진출의 발판 마련

출처: 식품산업 분석보고서(2010), 보건산업진흥원

결언

- 농수산물: 국내 생산량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 시급 - 국내 농작물 생산 정책에 대한 숙고, 해외식량기지 등
- 안전성 제고
 -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 수입검역 강화: 병충해, 미생물, 농약, 중금속 등 기타 유해물질
- 부가가치 제고
- 전문가 활용 강화 및 확대
 - 농식품부 식품직렬 신설
 - 식품분석 및 식품위생안전 전문가 양성, 면허 제도 확대 실시
 - 식품산업체에서도 식품전문가 적극 활용하고 수용해야...
 - 국제곡물시장과 금융 전문가 양성
- R&D 강화

식품산업의 식량공급기능에 대한 한·일 비교

중앙일보 식품전문 박태균 기자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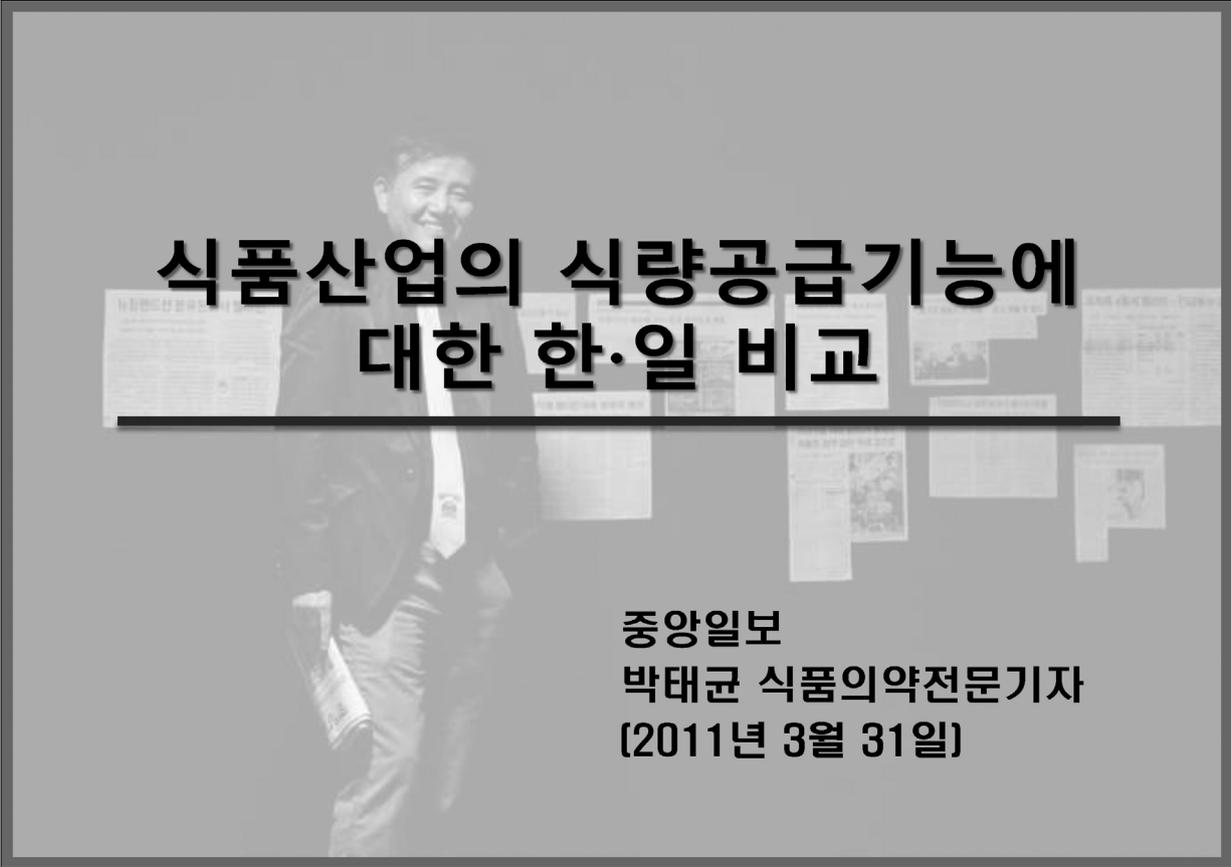
박 태 균

학 력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수의공중보건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수의공중보건학(식품위생) 박사

경 력

중앙일보 편집국 사회부문 부장, 전문기자
경향신문 편집국 기자
미국 조지아대학 연구원
동아일보 기자



식품산업의 식량공급기능에 대한 한·일 비교

중앙일보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2011년 3월 31일)

목 차

1. 한국과 일본의 식량자급률
2. 한일 식품제조업 현황 비교
3.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국내산 및 수입산 식재료 이용 현황
4. 한일 식품산업의 해외 농업 개발 비교
5. 한일의 주요 곡물 수입 비교
6. 결론

2

1. 한국과 일본의 식량자급률

- 식품안보(Food Security)
- 식량 위기의 근본 원인
-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한·일 대책 비교
- 한일 곡물 자급률
- 한일 주요식품 자급률
- 한일의 연간 1인당 쌀 공급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
- 한일의 연간 1인당 육류 공급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

식품안보 (Food Security)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늘 자신의 섭취 욕구와 식품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분이 있는 식품을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

(A SITUATION THAT EXISTS WHEN ALL PEOPLE, AT ALL TIME, HAVE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HAT MEETS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AND HEALTHY LIFE)

4



식량 위기의 근본 원인

- 주요 식량수출국들의 수출제한으로 인한 물량 확보 곤란
- 식품가공원료와 사료곡물 확보 곤란
- 경제난과 맞물리면 곡물 확보가 더 어려울 가능성
- 국제 곡물가격 상승
- 선진국들의 보조금과 농산물 과잉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한
현행 자유무역주의 체제
- 선진국들의 바이오 연료 확대
- 달러 약세 등 국제거시경제의 변화
- 특히 식량수입국 · 개발도상국 · 저소득층 · 취약계층 등에
식량 위기 집중
-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JOSTTLE SHEERAN
"A SILENT TSUNAMI"
- AGFLATION을 넘어서 정치 ·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

6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한일 대책 비교

| 한국 | 일본 |
|---------------------------------|------------------------------|
| 국내 식량생산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
| 선물시장 확대 · 장기 계약 등 안정적인 수입 방안 | 국산 농산물을 축으로 한 식과 농의 연결 강화 |
| 비축관리제도의 운영 |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 |
| 해외농업개발 | 국내 시장 활성화 |
|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제도 개선 | 해외농업 투자 등 해외사업기반 강화 |
| | 국제 협력 추진 |

7

한일 곡물 자급률

| | 한국 | 일본 |
|---------|--|--|
| 곡물 자급률 | 26.7%(식용+사료 용, 2009) 26.2%(식용+사료 용, 2008) 51.4%(사료용 제외, 2009) 60.5%(주식용 곡물, 2008) | 28%(식용+사료용, 2008) 61%(주식용 곡물, 2008) |
| 사료 자급률 | | 25%(2009) |
| 칼로리 자급률 | 48.7%(2008) | 41%(2008) |

8

한일 주요 식품 자급률

| | 한국(2008) | 일본(2009) |
|---------|----------|----------|
| 채소 | 91.0% | 94.2% |
| 과일 | 84.8% | 40.1% |
| 육류 | 78.6% | 28.5% |
| 우유, 유제품 | 72.3% | 86.3% |
| 어패류 | 80.8% | 31.5% |
| 유지류 | 3.3% | 13.9% |

9

한일의 연간 1인당 쌀 공급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

| 연도 | 한국(Kg) | 일본(Kg) |
|-------|--------|--------|
| 1965년 | | 111.7 |
| 1975년 | 123.6 | 88.0 |
| 1985년 | 128.1 | 74.6 |
| 1990년 | 119.6 | 70.0 |
| 1995년 | 106.5 | 67.8 |
| 2000년 | 93.6 | 64.4 |
| 2005년 | 80.7 | 61.4 |
| 2009년 | 74.0 | 59.0 |

10

한일의 연간 1인당 육류 공급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

| 연도 | 한국(Kg) | 일본(Kg) |
|-------|--------|--------|
| 1965년 | | 9.2 |
| 1975년 | | 17.9 |
| 1985년 | 2.9 | 22.9 |
| 1990년 | 4.1 | 26.0 |
| 1995년 | 6.7 | 28.5 |
| 2000년 | 8.5 | 28.8 |
| 2005년 | 6.7 | 28.5 |
| 2009년 | 8.1 | 28.5 |

11

2. 한일 식품제조업 현황 비교

- 세계 식품시장 규모
- 한일 식품 교역의 비교
- 한일 식품 소비지출의 비교
- 한일 식품 제조업 규모의 비교
- 한일 가공식품 시장 규모 비교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

단위 10억 달러

| 구분 | 2009년 | 2010년 |
|---------|---------|---------|
| 세계 식품시장 | 4,142.8 | 4,277.9 |
| 유럽 | 1,787.1 | 1,831.7 |
| 아시아-태평양 | 972.4 | 1,021.0 |
| 북미 | 913.3 | 938.3 |
| 중남미 | 367.8 | 371.6 |
| 중동 아프리카 | 112.4 | 117.2 |

출처:DATAMONITOR

13

한일 식품 교역의 비교 (200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한국 | 일본 |
|--------|----------|----------|
| 세계 순위 | 25위 | 9위 |
| 식품 수입액 | 13,522.7 | 51,856.1 |
| 식품 수출액 | 3,044.0 | 3,304.0 |
| 식품 교역액 | 16,566.7 | 55,160.1 |
| 한일 비교 | 1 | 3.3 |

출처:EUROMONITOR(2009)

14

한일 식품 소비지출의 비교 (2002, 2008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 한국 | 일본 |
|-------|--------|---------|---------|
| 2002년 | 세계 순위 | 16위 | 2위 |
| | 식품 지출액 | 66,502 | 488,065 |
| | 한일 비교 | 1 | 7.3 |
| 2008년 | 세계 순위 | 16위 | 2위 |
| | 식품 지출액 | 119,065 | 673,253 |
| | 한일 비교 | 1 | 5.7 |

출처:EUROMONITOR(2009)

15

한일 식품 제조업 규모 비교 (2003, 200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 한국 | 일본 |
|-------|-------|--------|---------|
| 2003년 | 세계 순위 | 15위 | 2위 |
| | 판매액 | 25,693 | 241,242 |
| | 한일 비교 | 1 | 9.4 |
| 2007년 | 세계 순위 | 15위 | 2위 |
| | 판매액 | 37,791 | 244,651 |
| | 한일 비교 | 1 | 6.5 |

출처:EUROMONITOR(2009)

16

한일 가공식품 시장 규모 비교 (200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한국 | | 일본 | |
|------|--------|-------|---------|-------|
| | 판매액 | 비중 | 판매액 | 비중 |
| 포장식품 | 23,305 | 66.0% | 160,877 | 65.8% |
| 음료 | 12,009 | 34.0% | 83,774 | 34.2% |

출처:IBID.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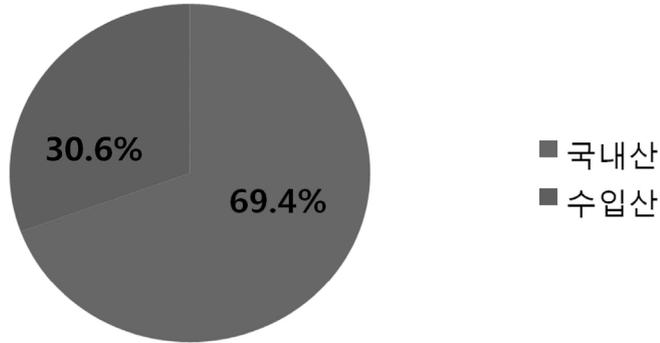
3.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국내산 및 수입산 식재료 이용 현황

-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수입산 이용률
-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 이유
- 식품제조업의 수입 식재료 사용 이유
- 외식업체의 국내산 및 수입산 식재료 사용 비율
- 유통업체의 국내산 및 수입산 식재료 사용 비율
- 국내 주요 식재료의 기업,기관별 수입 현황

식품 제조업의 국내산, 수입산 이용률

구매 금액

단위 :십억원



| 국내산 | 수입산 |
|-------|-------|
| 9,777 | 4,259 |

출처:2009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19

식품제조업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 이유

단위 %

| 주원료 | 맛과 품질 우수 | 적기 조달 가능 | 안전성 | 가격 저렴 | 국내만 생산 | 소비자 국내산 선호 | 기타 |
|-------|----------|----------|------|-------|--------|------------|-----|
| 돼지고기 | 35.2 | 12.5 | 4.5 | 4.0 | 4.0 | 36.4 | 3.4 |
| 쇠고기 | 32.7 | 13.5 | 1.9 | 3.8 | 1.9 | 38.5 | 7.7 |
| 조기 | 42.5 | 5.0 | 0.0 | 0.0 | 5.0 | 45.0 | 2.5 |
| 콩(대두) | 33.3 | 3.3 | 10.0 | 13.3 | 6.7 | 30.0 | 3.3 |

출처: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

식품제조업의 수입산 식재료 사용 이유

단위 %

| 주원료 | 맛과 품질 균일 가격 | 적정 수급 가능 | 안전성 | 가격 저렴 | 국내 생산 없는 품목 | 특정 계절 일시 수입 | 수입/국내산 선호차 적음 | 기타 |
|-------|-------------|----------|-----|-------|-------------|-------------|---------------|-----|
| 돼지고기 | 14.5 | 27.3 | 1.8 | 47.3 | 0.0 | 0.0 | 7.3 | 1.8 |
| 쇠고기 | 2.4 | 29.3 | 2.4 | 51.2 | 2.4 | 2.4 | 7.3 | 2.4 |
| 조기 | 14.8 | 22.2 | 0.0 | 25.9 | 11.1 | 11.1 | 11.1 | 3.7 |
| 콩(대두) | 2.9 | 26.1 | 4.3 | 50.7 | 1.4 | 0.0 | 10.1 | 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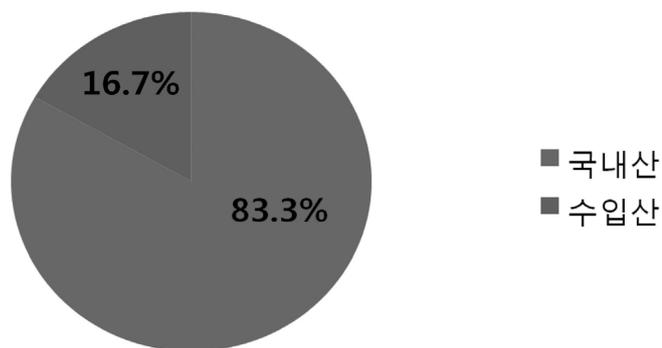
출처: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1

외식업체의 국내산 및 수입산 식재료 사용 비율 (1)

구매 금액

단위 :십억원



| 국내산 | 수입산 |
|--------|-------|
| 10,590 | 2,120 |

출처:2009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22

외식업체의 국내산 및 수입산 식재료 사용 비율 (2)

단위 :%

| 구분 | 국내산 | 수입산 |
|-------|------|------|
| 쌀 | 99.9 | 0.1 |
| 콩(대두) | 88.2 | 11.8 |
| 고춧가루 | 84.1 | 15.9 |
| 쇠고기 | 46.5 | 53.5 |
| 돼지고기 | 70.4 | 29.6 |
| 닭고기 | 58.2 | 41.8 |
| 명태 | 31.6 | 68.4 |
| 조기 | 44.7 | 5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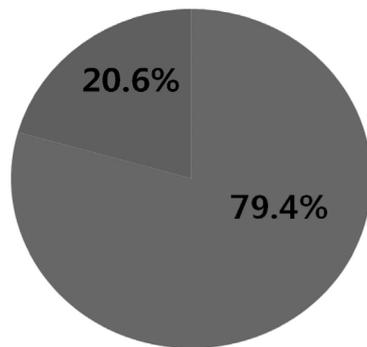
출처:2008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23

유통업체의 국내산 및 수입산 식재료 사용 비율

구매 금액

단위 :십억원



■ 국내산
■ 수입산

| 국내산 | 수입산 |
|--------|--------|
| 44,643 | 11,558 |

출처:2009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24

국내 주요 식재료의 기업, 기관별 수입현황 (1)

단위 :천\$

| 밀 | | 콩 | | 옥수수 | |
|-----------|---------|------------|--------|-------------|---------|
| 사업자 | 과세가격 | 사업자 | 과세가격 | 사업자 | 과세가격 |
| 대한제분(주) | 127,722 | 농수산물유통공사 | 29,916 | 대상(주) | 139,637 |
| CJ제일제당(주) | 65,241 | 한국제합식품공업협동 | 2,927 | (주)삼양제넥스 | 71,136 |
| CJ제일제당(주) | 74,725 | (주)대두식품 | 2,228 | (유)콘프로덕츠코리아 | 67,474 |
| 주)삼양밀맥스 | 56,105 | 제이아이통상 | 1,005 | (주)삼양제넥스 | 66,548 |
| 동아원(주) | 54,096 | (주)굿모닝서울 | 880 | (주)신동방씨피 | 61,502 |
| 대선제분(주) | 52,811 | 가온상사 | 667 | (유)콘프로덕츠코리아 | 61,107 |
| 한국제분(주) | 39,133 | 이배통상 | 632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 50,212 |
| 동아원(주) | 37,296 | (주)가덕통상 | 607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 46,454 |
| 주)팜스코 | 34,834 | 양지통상 | 566 | 주)팜스코 | 44,928 |
| 대한제분(주) | 27,123 | 신성상사 | 520 | 제일사료(주) | 44,857 |

출처:2010 관세청

25

국내 주요 식재료의 기업, 기관별 수입현황 (2)

단위 :천\$

| 쇠고기 | | 돼지고기 | | 닭고기 | |
|-------------|--------|-----------|--------|-------------|--------|
| 사업자 | 과세가격 | 사업자 | 과세가격 | 사업자 | 과세가격 |
| (주)한중푸드 | 89,873 | (주)한화 | 39,247 | (주)사세통상 | 15,385 |
| 오케이미트(주) | 69,512 | (주)우성물류 | 28,100 | (주)계림물산 | 14,796 |
| (주)동아푸드 | 44,719 | (주)미트앤미트 | 25,043 | (주)아워홈 | 12,180 |
| (주)한국관광용품센터 | 35,383 | (주)제니스유통 | 22,689 | (주)지엠식품 | 11,945 |
| (주)하이랜드푸드 | 30,987 | CJ제일제당(주) | 18,643 | (주)한국관광용품센터 | 10,913 |
| CJ프레시웨이(주) | 30,846 | (주)푸르밀 | 16,934 | (주)크랜파크 | 10,906 |
| (주)신세계푸드 | 28,711 | (주)하이랜드푸드 | 15,729 | | 9,648 |
| (주)한결엘에스 | 28,619 | (주)태원트레이드 | 14,735 | (주)제니스유통 | 5,244 |
| (주)제니스유통 | 23,720 | (주)판코상사 | 13,625 | (주)동해식품 | 5,230 |
| (주)한화 | 22,911 | (주)공식유통 | 13,086 | 맥키코리아(유) | 4,3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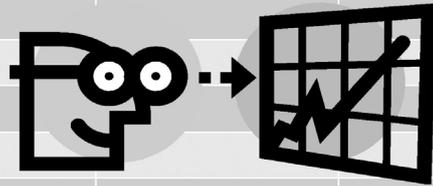
출처:2010 관세청

26

국내 주요 식재료의 기업, 기관별 수입현황 (3)

단위 :천\$

| 명태 | | | | | |
|---------|--------|--|--|--|--|
| 사업자 | 과세가격 | | | | |
| (주)동남 | 39,108 | | | | |
| 한성기업(주) | 30,393 | | | | |
| 성경수산(주) | 28,905 | | | | |
| (주)사조오양 | 21,034 | | | | |
| 사조산업(주) | 20,079 | | | | |
| 신라교역(주) | 18,944 | | | | |
| (주)사조대림 | 16,280 | | | | |
| 극동수산(주) | 15,959 | | | | |
| 인성실업(주) | 13,193 | | | | |
| (주)해성상사 | 9,386 | | | | |



출처:2010 관세청 ²⁷

4. 한일 식품산업의 해외 농업 개발 비교

- 한일 초기 해외농업개발의 특징 비교
- 한일 식품 산업의 해외 농업 개발 비교
- 미츠이 물산
- 미츠비시 상사
- 젠노 그레인
- R10 프로젝트
- 우리나라의 국제곡물사업추진단

한일 초기 해외농업개발의 특징 비교

| 구분 | 한국 | 일본 |
|----------|-------------------------------|-------------------------|
| 해외이주 개념 | 인구분산, 국위선양 | 개발력의 현지이동 |
| 해외농업개발방식 | 사전연구 불충분 상대적 대규모 | 충분한 사전연구 고부가가치 소형단지 |
| 재정지원 | 이주 수속비용 과다 도항비 자부담 | 수속비용 최소, 도항비와 준비금 지급 |
| 사후관리 | 부족, 거의 없음 | 간접 지원 현지 생활여건 조성 |
| 관련기관 | 보사부, 외무부, 경제 기획원, 노동청, 법무부 | 외무성, 국제협력사업 단(JICA) |

한일 식품 산업의 해외 농업 개발 비교 (한국)

- ▶ 1980년대부터 민간이 해외농장 개발사업 착수
- ▶ 1981년 선경그룹 :
 - 미국 워싱턴주에 3,300ha 넓이의 옥수수 농장 개발에 나서 수확에 성공
 - 옥수수를 해외로 실어나를 유통망을 구하지 못함 (유통시설을 곡물 메이저들이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
- ▶ 1994년 대륙개발 :
 - 중국 헤이룽장성 삼각평원에 3만8,000ha 규모의 농장 건립 추진
 - 농장이 습지대에 위치, 과다한 기반시설 비용으로 사업 포기
- ▶ 1990년대 많은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식량 기지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사전조사 미흡, 유통망 확보 실패 등으로 대부분 철수한 상태

30

한일 식품 산업의 해외 농업 개발 비교 (일본)

- ▶ 현지인과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농장 개발
‘해외 식민지 건설’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
 - ▶ 2007년 기준 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
경지 면적은 자국 내 경지 면적의 3배에 달하는 1,200만ha
 - ▶ 일본 정부는 농수산성 산하에 사단법인 ‘해외농업개발협회’를
두고 매년 정부 예산을 편성해 해외농장 개발사업 지원 민간
기업이 해외농업 투자를 원하는 경우 투자환경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고 50%, 민간 자부담 50%의 비율로 부담
 - ▶ 옥수수·콩 등 수요가 큰 사료곡물의 경우 재배에 직접 참여
하기보다는 현지 농가와 계약재배 형식으로 물량을 확보
 - ▶ 배합사료 원료 사용량 연간 2,400만톤 중 30%를 전농에서
직수입, 나머지는 종합상사(35%)와 일반사료회사(35%)에서
수입 (한국사료협회)
- 특히 전농과 미츠비시는 미국 현지의 자회사를 통해 전량 직구매, 미츠이
· 마루베니 · 이토추 등 종합상사들은 현지에서 곡물 메이저 통해 구입

31

미츠이 물산 (三井物産)

- ▶ 산하 식량소매본부의 곡물유지부, 사료축산부에서 대두, 밀,
옥수수 등 취급
- ▶ 사업목표 : 식량자원 확보, 원재료 수입, 해외시장 판매
- ▶ M&A를 통한 해외시장 비즈니스 확대
- ▶ 미츠이물산이 대주주인 WISLEY는 미국 최대 농협과 50%씩
투자해 VENTURA FOODS(미국 최대 규모 가공유지 식품제
조업체체인) 설립
- ▶ 브라질 현지 농업개발 투자 확대(2007년 11월)
- ▶ 브라질에 곡물 수출기지 운영
- ▶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검토

32

미츠비시 상사 (三菱商社)

- ▶ 생활산업 그룹 농수산본부가 주도
- ▶ 미국, 호주에 거점을 만들어 농산물 집하
- ▶ 집하한 농산물을 원료가공업체에 공급
- ▶ 원제품인 밀가루, 설탕, 전분, 식용유, 사료 등을 식품가공업체 등 수요자에 판매

33

젠노 그레인 (ZenNoh Grain)

- ▶ 설립배경 : 1970년대 초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수급의 문제점 인식
- ▶ 1979년 뉴올리언스항에 엘리베이터 착공, 1982년 준공
- ▶ 1988년 CGB 인수: 젠노 50%+이토추상사 50%, 미국 내륙과 미시시피강 유역의 엘리베이터 확대
- ▶ 엘리베이터 항구 1곳, 저장능력 108,862MT, 선적능력 3.266MT(USDA-GIPSA, 2009)
- ▶ 일본으로 수송되는 곡물 전량이 이곳에서 선적 (일본 사료 곡물 수입의 약 30% 처리)
- ▶ C&F FLAT 방식 구매 배제, 주로 베이스(BASIS) 거래
- ▶ 국제 곡물가격 급등시 사료와 식용 곡물원료의 30%를 곡물 메이저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공급
- ▶ 과거 10년 평균 일본 곡물수입(2900만T)중 850만T 공급
- ▶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한 2006년 말-2008년 평균 10% 낮은 가격으로 회원사에 곡물 공급(젠노 내부자료)

34

R10 프로젝트

-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가루 소비량의 10%를 쌀가루도 대체하자는 운동
- ▶ 일본 쌀의 주산지인 니가타현에서 시작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 ▶ 니가타현은 2003년부터 학교급식에 쌀가루빵 도입,
현내 초등학교중 60%에서 쌀가루빵을 급식으로 제공
- ▶ 연간 491만톤에 이르는 밀가루 소비량의 10%인 약 50만톤의 쌀가루를 생산
- ▶ 도쿄 면적의 1.6배나 되는 10만ha 상당 휴경지 활용 가능성
- ▶ 50만T톤 정도의 밀 수입이 줄 경우, 캐나다 등으로부터의 밀 수송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20만9,000톤 줄이는 효과
- ▶ 니가타현 산하 농업종합연구소 식품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제분기술도 큰 기여

35

우리나라의 국제곡물사업추진단

- ▶ 우리나라에선 공기업인 AT가 국제곡물사업추진단을 신설
하고 곡물유통업 진출 가능성 검토
- ▶ 해운업체인 'STX팬오션'이 이토추·빙기와 손을 잡고 미국
서부의 포틀랜드항에 곡물 저장·수출 엘리베이터 건설 추진
- ▶ 이탈리아의 페루찌, 독일의 알프레도 튀퍼, 중국의 화싱,
벨기에의 인터콘, 네덜란드의 슈텐, 태국의 크론, 캐나다의
아그로 등이 국제 곡물시장에서 활동

36

5. 한일의 주요 곡물 수입 비교

- 선물거래와 직접 구매
- C&F 계약과 FOB 계약
-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수입물량)
- 밀 수입 방식의 한일 비교
- 옥수수 수입 방식의 한일 비교
- 대두 수입 방식의 한일 비교
- 한일 사료곡물 구매법
- 한일의 곡물 수입 단가 비교

선물거래와 직접구매

| 선물거래 | 직접구매 |
|--|---|
| 선물거래소 등 공인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상품의 수량·규격·품질 등을 규격화해 정해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형성된 시작가격(현물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인수·인도하고 결제하기로 결정하는 거래행위 | 수요자가 직접 수출국 현지에 진출해 구입하는 것. 일본의 젠노처럼 미국시장에 수출용 엘리베이터와 집하창고 등을 소유하면서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 베이스스 거래가 필수적이고 대량 거래선의 확보가 중요 |

C&F계약과 FOB계약

| C&F 계약 | CIF | FOB 계약 |
|--|---|---|
| Cost & Freight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의 가격에 도착항까지의 운 임을 합산하는 가격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 C & F 가격에 해상운송 보험료까지 합산하는 가 격조건 | Free On Board 공급자가 수출항에서 본선 에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가격조건 |

39

BASIS거래와 FLAT거래

- ▶ **베이스스거래 : 선물가격과 베이스스를 별도로 각각 확정하는 거래**
- 베이스스 : 곡물 수집비용+보관료+내륙운송비+보험료+이자

- ▶ **FLAT 거래 : 선물가격과 베이스스를 합해 수입가격을 한꺼번에 확정하는 거래, 국내 곡물수입 대부분이 FLAT 거래**

- ▶ **국내 도착 곡물가격: 선물가격+베이스스+해상운임**
IMF 이후 대부분 C & F 방식 채택: 대형 선박회사의 도산 여파

40

TRQ (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수입물량)

- ▶ 특정 품목의 수입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해당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 관세제도
- ▶ 저율 관세 적용으로 무역상대국의 국내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고율 관세 부과로 과도한 수입을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

41

밀 수입 방식의 한일 비교

| | 한국 | 일본 |
|------|---|---|
| 자급률 | 0.4%(2008), 0.5%(2009) 수입량 388만t(2009) 수입액 9억86백만달러 | 14%(2008) 수입량 수입액 1351억엔 |
| 수입관세 | 1980년대부터 수입자유화 관세 1.8%(사료용, 제분용)- 4.2%(밀가루) 쿼터 없음 | TRQ 물량 374만t 관세 kg당 55엔 |
| 수입 | 사료협회 제분공업협회 CJ 등을 통해 수입 월별로 각 회원사의 수입물 량 취합 뒤 공동용선해 구입 | 자국 곡물회사들이 수입담당 |
| 공급 | 4대 곡물메이저 47%+AWB 30% 미츠이, 미츠비시 등 일본계 회사 2.1%(4만9000t) 공급 (2008) | 마루베비, 미츠비시, 이토추, 미 츠이 등 일본계 곡물회사 젠노의 자회사인 '젠노 그레인' 이 일본 곡물 수입량의 30% 취 급 |

옥수수 수입 방식의 한일 비교

| | 한국 | 일본 |
|------|--|---|
| 자급률 | 1.0%(2008), 1.0%(2009) 수입량 735만t(2009) 수입액 16억47백만달러 | 수입량 수입액 3517억엔 |
| 수입관세 | TRQ 610만2100t 쿼터내 관세는 사료용, 팝콘 용, 전분 1.8%, 그외 3% | |
| 수입 | 사료협회: 공동구매, 주로 C&F Flat 구매 농협사료: 단독구매, Basis 거 래 비중 증가(50%대, 2009년) | 자국 곡물회사들이 수입담당 |
| 공급 | 4대 곡물메이저 61.8%+미츠 비시, 마루베니 등 일본계 회 사 10.1%(2008) | 마루베비, 미츠비시, 이토추, 미 츠이 등 일본계 곡물회사 젠노의 자회사인 '젠노 그레인' 이 일본 곡물 수입량의 30% 취 급 |

43

대두 수입 방식의 한일 비교

| | 한국 | 일본 |
|------|---|---|
| 자급률 | 1.0%(2008), 1.0%(2009) 수입량 111만t(2009) 수입액 6억4백만달러 | 수입량 수입액 1633억엔 |
| 수입관세 | 농수산물유통공사 통해 TRQ 수입 뒤 실수요자에게 정부 지정가격으로 판매(수입은 농안기금에 귀속) | |
| 수입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용대두 CJ제일제당, 사조해표: 채유 와 탈지대두박용(대두가공협 회 추천) | 자국 곡물회사들이 수입담당 |
| 공급 | 4대 곡물메이저 46.3%+마루 베니, 미츠비시 등 일본계 회 사 52.8%(2008) | 마루베비, 미츠비시, 이토추, 미 츠이 등 일본계 곡물회사 젠노의 자회사인 '젠노 그레인' 이 일본 곡물 수입량의 30% 취 급 |

한일의 사료곡물 구매법

| 구분 | 한국 | 일본 |
|----------|---|--|
| 수입량 | 8백만~9백만 톤 | 1천5백만~1천6백만 톤 |
| 구매형태 | 공개경쟁입찰 : 74% 수익계약 : 22% 베이스스 : 4% | 공개경쟁입찰 : 2% 수익계약 : 8% 베이스스 : 90% |
| 관세 | 양허관세 328% (쿼터 내 관세 1.8%) | 무세 (옥분용만 부과) |
| 구매장단점 비교 | - 구매시점에서 최저 가격 유도 및 구매의 투명성 - 구매시점 포착의 어려움 및 특정일 집중구매로 구매 리스크 상존 | - 구매시기 분산으로 가격 위험 감소 - 구매자별 구매가격 차이로 경쟁심화 가능성 |

45

한일의 곡물수입 단가 비교

단위 : 달러/t

| 연도 | 한국 | | | 일본 | | |
|---------------------|-------|-------|-------|-------|-------|-------|
| | 밀 | 옥수수 | 대두 | 밀 | 옥수수 | 대두 |
| 2005 | 183.9 | 142.6 | 296.7 | 224.7 | 155.3 | 340.6 |
| 2006 | 187.9 | 146.3 | 289.1 | 239.9 | 153.2 | 317.1 |
| 2007 | 263.4 | 213.3 | 354.9 | 309.4 | 230.7 | 399.0 |
| 2008 | 479.1 | 313.1 | 603.6 | 567.9 | 339.5 | 638.1 |
| 2008 전년대비 변화율 | 81.9% | 46.8% | 70.1% | 61.1% | 29.2% | 40.4% |

출처 : KATI 일본농림수산성

46

6. 결론

- 식품산업의 식품공급기능에 대한 통계 미비
- 한국과 일본은 식량안보 문제에 있어서 높은 유사성
- 한국은 밀, 옥수수, 콩 등 자급기반 사실상 상실
- 연간 1,300만t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권의 곡물 수입국 이면서도 국제 곡물유통업에 진출한 국내 기업 전무
- 카길, 에이디엠, 루이스 드레피스, 병기 등 4대 곡물메이저와 일본계 곡물회사에 의존
-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곡물메이저가 가격 불안정기에 공급가격 높여 식량파동 초래

6. 결론

- 일본의 곡물회사들은 식량확보에 기여
-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한국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동 영역 확대
- 해외농업 개발도 필요하나 자체 곡물회사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곡물확보가 더 중요
- 현지 농장 개발이나 계약생산은 물론 생산지에서 국내 수입항 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물류 체계 구축 필요
- 국제적 곡물회사와 국제감각의 선물거래사 등 전문인력 육성 필요



토론회 좌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

학 력

고려대학교 농화학과(농학사)
덴마크 왕립농과대학 대학원 식품저장학교실(농학박사)

경 력

미국 M.I.T.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부설 식품가공핵심기술연구센터 소장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회장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회장
한국식품과학회장, 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 초대회장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 회장
Codex 제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의장
(현)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현)국제식품과학기술한림원(IAFoST) 회원
(현)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현)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민간위원협의회 의장
(현)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현)한국인정원 식품안전미래포럼 위원장
(현)미국 식품공학회(IFF) Fellow
(현)UN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Consultant)
(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현)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토/론/문

ILSI Korea 권익부 이사장





Profile

권익부

학 력

강원대학교대학원 발효공학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 석사
부산대학교 화학과 학사

경 력

ILSI Korea 이사장
롯데제과 중앙연구소장 사장
롯데제과 중앙연구소장 부사장
롯데제과 중앙연구소장 전무이사
롯데제과 연구담당 이사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현황과 전망 세미나

ILSI Korea 이사장 권익부

[1] 2011년도 배추파동 재현 방지대책

한국은 2010년 소위 배추파동을 겪었다. 그 직접원인은 배추종자 파종 후 발아시기에 장마, 폭우로 발아가 좋지 않아서 잘 자라지 않았고, 또 기형으로 되었기에 김장철(10~11月)을 앞두고 단기간이지만 보통 때의 3~4배 가격이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소비자가 줄을 서는 배추파동을 겪었는데 올해도 파종시기에 발아상태 점검이 제일 중요한 요체이다. 이시기에 전국적으로 3개월 후의 성장상태 추정, 경작지 추정, 소비형태, 소비량을 잘 점검하여야 한다. 2010년에 한국 농산물유통공사에서도 긴급으로 중국 청도지사를 통해서 13,000ton(톤 당 320\$) kg당 352원으로 들어왔으나 국내 소비자에게서 품질을 믿지 못하겠다며 외면을 당했다. 그 이후 한국배추가격은 내려갔으나, 이 과정에서 급하게 찾아 보니 한국배추와 동일 품질은(위해지역) 선 계약이 있어 수입이 안 되고 흑룡강성에서 수입을 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품질은 아니었다.

금년만은 파종시기의 작황 점검을 빨리 하여 중국에 조치를 취하는 방안 혹은 한국 배추종자를 특정지역과 연계하여 한국배추와 거의 같은 품질을 지키면서 가격면에서 merit가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2011 봄배추(4月~6月)는 작황이 좋아서 오히려 배추 값이 내려갈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는 듯하다. 중국도 2010년을 되돌아보면 마늘파동, 고추파동, 녹두파동 [7유엔(1130원)→24유엔(4080원)]이 있었으므로 중국 사정도 잘 파악 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정부가 신선 채소류, 일부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사태는 없을까?

한국은 배추파동만 겪은 반면, 중국은 자국의 식량자급률이 95%인데도 가물어서, 밀파동이 겨울철에도 계속 되고 있고, 2010년에 녹두파동, 마늘파동, 고추파동을 겪었다.

한·중 농산물 수출 및 수입금액(\$기준)을 보면 한국과 중국의 농업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1. 대중국 수입·수출액 (2006~2010)

(US \$ 기준)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대중국 수입총액 | 32억3816만 | 41억7340만 | 38억1271만 | 38억7600만 | 43억2320만 |
| 대중국 수출총액 | 3억 3680만 | 4억 5210만 | 5억 3860만 | 5억 8520만 | 7억 8740만 |

2010년 한국의 해외 전체에 대한 농산물 수출총액이 59억\$이었고, 대중국 수출은 7억 8740만불이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수입액은 2010년 기준으로 43억 2320만\$이다. 주요 곡물, 신선 채소, 양념류 등 정말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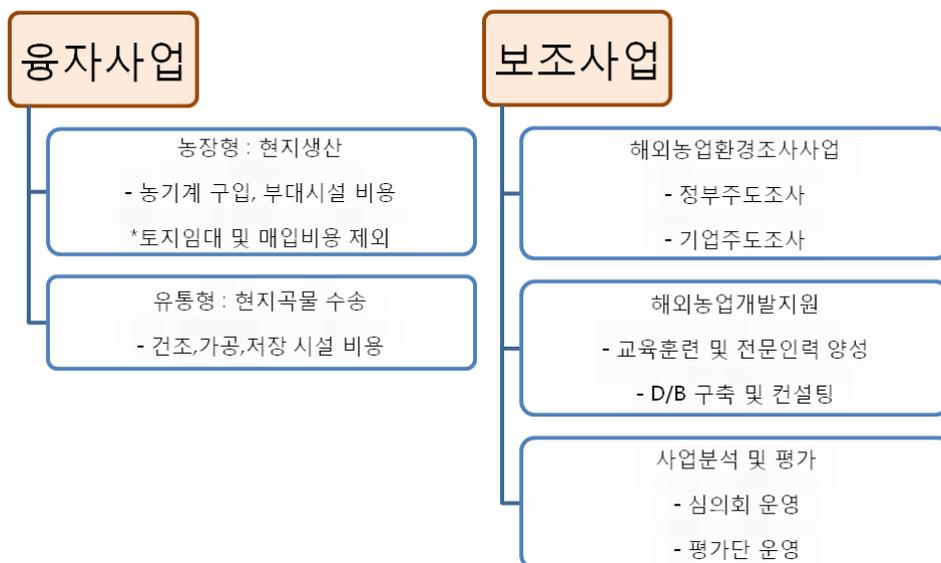
광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다. 한국으로서는 급할 때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찾는 곳이 중국이다. 이는 중국가격이 뛰면 국내 식탁, 밥상 물가도 치솟게 되어있어 소위 China-f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내 식량수급이 가능한 나라이며,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현정부의 자존심이자 자랑이다. 금년 3월 14일 원자바오 총리의 양해(중국인민대표자회의)를 마친 기자회견에서 각 성의 성장은 곡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은 신선 야채류를 공급하는 책임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로켓과 대포, 비행기를 동원한 인공강설을 하는 등 자국 농업생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내 7개성에서 22억ton의 눈과 비가 내렸지만 중국언론은 해갈이 멀었다고 보고 있고 3월 중순 이후에나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기상이변과 농식품 생산 현황이 국내 농산물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겪어 왔다. 거의 우리 식탁을 완전히 직·간접으로 점령하는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인플레는 호랑이 같아 풀어두면 가두기 어렵다고”고 인용하면서 3月7일자 대국민 보고에서 밀 1억 톤을 비축,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며 10,000위안화(170만원) 미만 절대 빈곤층을 10년 내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했으며, 중동지역(이집트 리비아 기타 등등) 자스민 혁명도 빵 값이 올라서 촉발되었다는 점에 주목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기상재해로 인해 밀 등 감산(-27%)으로 수출을 중단 했고, 중국도 과거에 수출보조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서 우리나라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3] 해외 농업 개발사업 추진 체계



〈김종훈 식량원예정책관 발표자료 중 발췌〉

정부는 에너지 안보대책 및 희토류광물 대책으로 지경부에서 3000억을 들여 석유자원, 광물, 희토류, 광물자원 채굴 개발을 위해 그 개발비의 1/3을 정부가 대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에 큰 incentive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은 2008년 4.2%에서 2010년 10.8%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UAE 방문 후 상황을 종합하면 15%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일본의 20% 까지 가려면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까지 기업이 약

60여건 석유가스 유전을 개발했음)

해외 개발사업 추진 체제를 도표에서 보았듯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소한의 incentive 금액을 설정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용택 선임연구원님도 지적했듯이 농식품산업은 수익 창출이란 산업적 측면 이외에도 식량안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농식품 기업의 해외 농업 개발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공기업들이 직접 해외에서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자원 개발을 늘리고 있으므로 농식품산업과 자원개발을 함께 진출하는 패키지도 고려의 대상이다.

토/론/문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김성훈 교수





Profile

김 성 훈

학 력

Purdue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농업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경제학 학사)

경 력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한국농업정책학회 이사

농민신문 시론 고정 필진

한국농업정책학회 논문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림수산식품부 OECD 자문위원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 자료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 성 훈

-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곡물 등의 식량에 대한 국제 투기 세력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 식량안보에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문제를 식품산업의 시각에서 해결하고자하는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됨. 식품산업에 대한 논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 식품산업 내지는 식량안보 각각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적지 않았지만, 양자를 연계시켜서 하는 논의는 적었던 것이 사실임.
- 본 주제에 대해 여러 발표자분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분석 및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서 식재료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흔히 식재료와 관련된 식량안보 논의는 해외에서 식재료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짐. 이는 기본적으로 국산 식재료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평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농산물의 주기적인 가격 변화성과 식재료의 저장성 및 수요 예측 가능성을 감안하면 국산 식재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모두가 잘 알다시피 농산물은 가격의 계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성출하기에는 가격이 급락하고 이후 가격이 급등하는 특성임. 이러한 농산물 가격의 계절성은 저장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이 일시에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인데, 이때의 국산 농산물의 가격은 수입산 보다 낮은 경우가 다반사임. 심지어는 산지 폐기 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이 현실임. 이때 원료를 확보하여 식재료 가공을 하면 수개월 내지는 일 년 정도 저장이 가능함. 이것이 가능하면 국산 농산물의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폭등락을 완화시킬 수 있고, 식재료 원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어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먼저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구매 바이어들의 모임인 “외식업체 구매자협의회”가 있는데, 이들이 나서서 수입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대체한 사례가 있음. 구체적인 업체명을 밝힐 수 없지만, 구운 사과(사과를 썰어서 겉을 살짝 그릴에 구운 것)의 경우 그동안 미국산을 사용하던 것을 국산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업체에서는 kg당 8천원 하던 미국산 구운 사과를 6~7천원짜리 국산 구운 사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양이 연 20톤 정도임. 또한 고구마 다이스(고구마를 잘게 썰어 익힌 것)의 경우 중국산이 kg당 2천원하는데, 국산을 2천5백원 수준에서 확보가 가능함. 현재 연 100톤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그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물론, 중국산 식재료 원료의 경우 중국 위안화 문제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이 국산과의 가격 격차를 줄인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중국산 원료도 얼마든지 국산화 가능한 품목이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식재료는 원료 농산물의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맞지 않아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에, 시장에 팔지 못하고 버려지는 농산물(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의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렇게 국산 원료 농산물의 가격 계절성을 활용한 수입산 대체는 식재료 가공을 거친 원료 농산물의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착안한 것임. 즉 생물이 농산물이 공산품화되어지는 것인데, 이를 십분 활용하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의 식량안보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함.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김치의 식재료인 절임 배추만 사전에 충분히 생산 및 저장되어 재고량이 적절하게 유지되었다면 작년에 국가적으로 홍역을 치렀던 “배추 파동” 문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임.
- 다만, 선결 조건이 있는데 장기 저장에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저장 기술 개발과 저장 시설 확대, 저장 비용 문제 해결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면 어렵지 않게 대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토/론/문

농수산물유통공사 곡물사업팀 이 필 형 팀장





Profile

이 필 형

학 력

건국대학교 농학과 졸업(90)

경 력

농수산물유통공사 입사(92)

국영무역처 원예특작과장('01)

농수산물유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03)

국영무역처 품질관리차장('07)

해외시장분석팀장('09)

곡물사업팀장(현재)

식량 안보체계 강화방안

-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

2011. 3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I .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 ❖ 기상이변에 의한 생산 감소와 인구증가·바이오 연료 등 수요확대로 국제 곡물 수급불안의 지속전망 및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곡물가격 급등 예상
 - ❖ 연간 곡물 도입량(1,400만 톤, 53억\$)의 30%(400만 톤) 장기 안정적 도입
- *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량 2,700만톤의 70% 조달

1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전략

■ 곡물메이저(Major) 의존도를 낮추는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 곡물메이저는 농지보유 보다 **곡물유통시설**을 점유하여 세계시장의 80~90% 지배

현지생산 → 매입(확보) → 현지운송 → 수출선적 → 해상운송 → 국내반입 → 국내소비

- 곡물메이저 영향력이 적은 틈새시장에 진입
- 관심이 적은 Non GM품목 우선도입과 견제가 적은 지역선점을 위한 유통시설보유

■ 리스크 최소화 및 조기안정화 추구를 위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대규모 투자 및 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하며 민간 기업 독자진입 기피
- 유통공사(초기 투자부담 해소 및 식량안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실수요업체, 해운업체(내륙 및 해상 운송), 종합상사(글로벌 마케팅) 간 유기적 역할 분담
- '11년 투자규모 450억 원 : 공사(40%, 180억 원) 민간(60%, 270억 원)
- '15년까지 총 사업규모 3,000억 원 : 공사(40%인 1,200) 민간(60%인 1,800)

■ 전략적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식량안보체계 조기 달성

- 곡물의 국내반입 필수시설이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수출EL는 지분 참여 또는 장기 임대차계약으로 우선 선적 사용권을 확보
- ※ 양질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산지EL는 M&A 등으로 구입
- 투자효율성과 물류기능 극대화를 위해 수출→산지→강변EL 순으로 하되 수출·산지EL 우선 확보를 동시 추진하고 강변EL는 시장여건을 고려 임차

■ 국가곡물 조달시스템의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 수입곡물의 80%이상을 특정국가에서 수입하여 의존도가 높은 수출국이 수출 제한 시 마땅한 대비책 부재에 따른 식량위기상황 초래 방지
 - ※ '09 곡물(콩·밀·옥수수) 수입량 1,400만 톤 중 967만 톤을 미국·호주·중국 등 5개국에서 수입

■ 주요 생산·수출국이며 통상여건이 자유로운 미국 최우선 진출

- 콩·옥수수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최적의 곡물 유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즉시 활용가능하며 통상 투명성이 높아 최우선 진출
 - 구매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산지·수출 EL를 통한 안정적인 곡물 확보
 - ※ aT 사장 최적의 유통시설 확보로 물류기능의 최적화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미시시피 수계의 주요 산지·강변·수출EL 현장 확인('10.12.12~18)

■ 메이저 영향력이 적어 곡물사업의 선점효과가 높은 국가에 진출

- 브라질은 콩·옥수수 확보 및 수출환경이 양호하여 시장선점 필요
 - 미국 다음으로 수입량 많고 메이저 기 진출해 있으나 진출여지가 있는 지역
 - 메이저 견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바이아 주 지역에 수출 EL(1기) 확보
- 우크라이나는 메이저 진출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시장선점을 위해 진출 필요
 - 유럽의 곡창지대로 유럽 및 아프리카 등 주변국 트레이딩과 국내도입 가능
 - Country Risk 관리를 위해 정부와 유대관계가 강한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니콜라예프항에 수출 EL(1기) 및 인근지역 산지 EL(1기) 확보
- 연해주는 민간업체에서 생산한 물량확보가 가능하며 메이저 견제가 적음
 - 블라디보스톡항에 수출 EL(1기) 및 우수리스크 지역 산지 EL(1기) 확보
 - ※ 2월 중순경 브라질, 연해주 곡물조달시스템 조기구축을 위해 aT 사장 출장예정

■ 사업경과

- 곡물사업추진 전담팀 구성('10. 2월)
- “국제곡물사업추진팀”을 구성, 대내외 여건검토 등 기초조사 수행(2~4월)
- 국가별 생산·물류동향 및 진입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5~9월)
 - 일본, 우크라이나, 브라질, 미국 등
- 정부의 기본방침 확정(7월)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곡물사업 추진 전담기관으로 선정
- 곡물사업을 추진을 위해 미국에 사업 준비단 파견(9월)
-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컨소시엄 구성 우선 협상자 선정(12월)
 - 삼성물산(주), STX, (주)한진, CJ 제일제당
 - ※ 투자설명회 개최(11.26) 및 참여의향서 접수(12.2)를 통해 최종 선정
-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2011년 사업예산 200억원 확보(12월)
-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민·관 공동 TFT 운영('11. 1월~)
 - 참여사 업무영역, 지분투자 규모, 사업운영 방향 등 협의중

■ 향후 추진계획

- 민간기업과 미국지역 합작투자 계약식 체결(4월)
- 민간기업과 미국지역 합작투자 및 현지법인 설립(5월)
 - 미국의 유통시설 확보 및 Non GM 콩, 옥수수 등 도입 추진
- 브라질, 연해주 진출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6월)
- 브라질, 연해주 곡물사업 진출세부 계획 수립(8월)
- Non GM 콩, 옥수수 각각 5만톤 도입(11월)

1 곡물 수입현황 및 조달계획

□ 국가전체 주요곡물 도입현황('10년 기준)

(단위 : 천톤)

| 구 분 | 수 입 | | |
|-----|--------|--------|--------|
| | 총 계 | 국가별 물량 | |
| 콩 | 1,243 | 미 국 | 734 |
| | | 브 라 질 | 447 |
| | | 중 국 | 54 |
| | | 기 타 | 8 |
| 옥수수 | 8,560 | 미 국 | 7,282 |
| | | 브 라 질 | 288 |
| | | 헝 가 리 | 285 |
| | | 기 타 | 705 |
| 밀 | 4,458 | 미 국 | 1,431 |
| | | 호 주 | 917 |
| | | 캐 나 다 | 764 |
| | | 기 타 | 1,346 |
| 계 | 14,261 | 계 | 14,261 |

* 자료 : 통계청

□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한 곡물 도입계획(2011~2015년)

(단위 : 천 톤)

| 구 분 | |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 콩 (500) | 식용 (300) | 미 국 | 50 | 50 | 70 | 80 | 100 |
| | | 브라질 | - | - | 20 | 40 | 50 |
| | | 연해주 | - | - | 10 | 30 | 50 |
| | | 중 국 | - | - | 70 | 80 | 100 |
| | 채유용 (200) | 미 국 | - | 20 | 30 | 40 | 50 |
| | | 브라질 | - | - | 50 | 100 | 150 |
| 옥수수 (2,500) | 사료용 (1,500) | 미 국 | 50 | 500 | 700 | 800 | 1,000 |
| | | 브라질 | - | - | 200 | 300 | 500 |
| | 전분·당 (1,000) | 미 국 | - | 250 | 300 | 400 | 500 |
| | | 브라질 | - | - | 100 | 200 | 300 |
| | | 연해주 | - | - | 20 | 60 | 100 |
| | | 우크라이나 | - | - | 20 | 50 | 100 |
| 밀 (1,000) | 제분용 | 미 국 | - | 100 | 300 | 500 | 500 |
| | 사료용 | 우크라이나 | - | - | 50 | 250 | 500 |
| 합 계 | | | 100 | 920 | 1,940 | 2,930 | 4,000 |

토/론/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이 정 희 교수





Profile

이 정 희

학 력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대학원 응용경제학 박사

경 력

제13대 한국유통학회 회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정책 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정책 자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유통관리연계전공 주임교수
한국유통학회 이사
식품산업유통연구회 운영위원장

토/론/문

한국식품공업협회 이 기 식 이사





Profile

이 기 식

학 력

경북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경 력

제1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79)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장

국립식물검역원 검역기획과장

국립식물검역원 원장

(현) 한국식품공업협회 산업진흥이사

(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 (비상근)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토론자료

한국식품공업협회 산업진흥이사 이 기 식

□ 오늘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주최 측에 감사드리며 가공식품의 식량안보적 기능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함

○ 전통적 식량의 개념은 곡물을 중심으로 다루어왔으나 식품소비 성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가공식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공원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공식품이 식량안보 정책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

○ 세계적 기상이변과 질병·지진 등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식량의 생산 공급은 불안정한 반면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와 식량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식량부족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

○ 2008년 에그플레이션 이후 콩, 옥수수, 밀 등 주요곡물을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은 계속상승하고 있어 전 세계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채소가격의 급등과 구제역 등으로 소위 물가와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식품제조 업계는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 가공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식량수급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함

○ 국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민간 원료조달공동협력시스템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

- 주요생필품 가공식품 원료를 중심으로 수입 원료를 보다 싼값으로 안정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용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부 : 세계 식량 생산, 가격 및 시장 동향과 정보의 수집 제공, 국가 간 협력 사항, 식량수급 계획의 수립 및 정책자금 지원 등

- 기업 : 품목별 원료수요량 및 원료구매 관련정보의 공유, 협회 단체를 중심으로 한 원료공동 구매사업의 확대 등
- * 해외직영농장개발 보다는 생산국 생산자 조직 등을 통한 장기 계약재배 또는 계약구매 방식의 적극적 활용이 효과적으로 사료됨

○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한 자급 율 제고 종합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

- 원료농수축산물 생산자 조직과 가공원료 수요기업 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생산 계약구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틀 마련이 필요
- 논에 벼 이외 타작물재배, 가공용 벼 품종개발 및 생산 공급 등 시책강화
-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컨설팅, 품질고급화 및 가격차별화 등 정책지원

□ 식품표시제등 각종규제 및 식품유통관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지나친 가격 통제는 기업 활동 및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여 식품의 질 저하 및 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과도한 안전 및 표시규제는 원료확보 애로 및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므로 소비자 비용편익을 고려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
- 식품유통시장에서 불공정거래는 제조 및 생산자와 유통업 간 불균형 초래 및 공정사회 질서를 저해하므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식품 및 식량안보는 국민생존의 문제이므로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되어야 함

토/론/문

국립식량과학원 전혜경 원장





Profile

전혜경

학 력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박사

경 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식량안보포럼 토론회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전혜경

식량문제는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슈입니다. 최근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사료 및 바이오에너지 등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기상 재해로 인한 농축산물의 생산량 및 재고량 감소, 식량안보 차원의 수출 제한, 게다가 투기자본의 가세 등으로 전 세계가 곡물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의 식량문제에 관하여 낙관적, 혹은 비관적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관적 전망이 빚나가 식량이 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가 낙관적 전망이 어긋나 식량이 부족할 때 겪게 되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관적 전망 하에 식량안보를 위한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존과 결부되는 먹을거리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량안보는, 말 그대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1974년 세계식량 정상회의에서 식량의 단순한 양적공급능력만을 바탕으로 정의 된 이후 시대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1996년 세계 식량정상회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균형 잡힌 식량에 경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충분한 상태가 지속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즉, 식량안보를 단순한 공급능력이 아니라 군대의 역할처럼 국민 혹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개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국의 국가방위를 외국의 손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자국의 식량에 대한 자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밀 생산 감소로 촉발된 곡물파동이 전 세계를 강타하여 많은 나라에서 식량폭동이 발생하였고 튀니지, 이집트 등에서는 총리나 대통령이 퇴진하는 등 곡물 파동이 식량문제를 넘어 정치문제화하고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 곡물파동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그 주기가 짧아지고 영향 또한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곡물 파동의 발생원인은 크게 보면 공급 감소, 수요증가 및 경제 외적인 요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곡물생산의 구조적 불균형, 경지면적의 감소 및 기상재해에 의한 작황부진 등을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곡물생산의 구조적 불균형: 201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두류를 포함하여 2,435백만 톤으로 곡물생산량의 62%가 미국, 호주 등 상위 5개국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아프리카, 인도 등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북위 30도 이남 국가들의 식량생산량이 전체 곡물생산량의 25%에 불과한 곡물의 남북편차가 큰 것이 곡물파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인구증가가 이 지역에 편중됨으로써 곡물부족 문제는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경지면적 축소 : 전 세계 15억 ha에 달하는 경지면적은 간척지, 산림의 농경지화 등 경지면적 증가분을 합해도 사막화나 농지의 타 용도전용으로 감소하는 양을 대체하지 못하여 최근 10년간 거의 늘어나지 못하였으며 인구증가율이 경지면적증가율을 상회하여 세계 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26ha에서 0.23ha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3) 이상기상 : 최근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피해강도 또한 증가하여 곡물작황이 부진하여 생산성이 감소함으로 공급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흉수로 호주의 밀 생산량은 50%, 사탕수수는 20%의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가뭄피해로 인해 러시아 곡물생산이 38%, 브라질의 콩은 20%, 중국의 밀은 19%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봄까지 이어진 200년만의 가뭄으로 생산 감소 피해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 세계 곡물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요,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수요 및 고유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수요 등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1)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 : 세계인구는 현재 69억명에서 2050년에는 9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량수요도 증가하여 늘어난 인구부양을 위해서 자크 다우프 FAO 사무총장은 지금보다 곡류는 10억톤, 육류는 2억톤 등 70%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2) 육류소비증가에 따른 사료수요 증가 : 2010년 현재 생산된 곡물의 41%인 997백만톤이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고 특히 신흥개발국의 경제성장으로 육류소비가 4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사료용 곡물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육류소비 증가율은 인도 97%, 러시아 46% 순으로 높았으며 사료소비량 증가는 러시아 44%, 브라질 38% 순으로 높았고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3) 바이오에너지의 수요증가 : 미국은 바이오 에탄올 혼합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총 수송에너지에서 바이오에너지 사용비율을 5.7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미국에서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사용된 옥수수는 약 100백만톤으로 10년 전에 비해 5배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급 감소와 수요증가와는 별도로 식량안보자원의 곡물수출 제한이나 재고량 확대,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소요와 세계 곡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곡물메이저의 경제활동도 곡물파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2011년 밀 수확기까지 밀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이집트 폭동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우크라이나도 곡물 수출쿼터를 50%까지 제한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밀과 쌀은 자급하던 중국도 곡물부족에 대비하여 비축용 곡물 450만톤과 콩 570만톤 등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달러약세, 곡물수급 불안 등에 따라 투기자본에 의한 비상업용 매수 포지션이 증가세로 전환 되는 등 선물거래 확대가 곡물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곡물메이저의 곡물수급 및 가격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등 세계 곡물 시장의 여건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물수급 불안은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국내 물가도 동반상승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곡물 생산에 있어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거나 정치적 분쟁이 발생하여

세계 곡물소비량의 단 1%만이라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 곡물가격은 47%나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곡물수급은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거의 없는 매우 얇은 시장(thin market)으로 곡물부족은 가격폭등과 직결되므로 국민에게 적절한 가격에 안전한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국의 농업생산을 유지하고 자급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식량의 절반가량을, 사료를 포함하여 곡물의 3/4 가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확대, 비축제도 도입, 민관합동의 곡물메이저 육성, 해외식량기지 확보, 국제농업기술협력 강화, 연구개발 및 보급 강화 등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식량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 (1) 단위면적당 생산성 극대화, 동계 밀 재배확대 등을 포함한 경지이용률 제고, 수입 대체 조사료 생산 확대, 이상기상 대비 생산기반 구축, 비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 등 국내생산을 최대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와 투자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기후온난화 대비와 해외협력을 위하여 수량도 많고 밥맛도 좋으면서 열대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MS11품종을 육성하였으며 이미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지로부터 종자 분양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는 등 기술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겨울철 맥류 및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품종개발과 생산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 (2) 농식품부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국제곡물 위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중심의 공공비축을 밀, 옥수수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량도 주요곡물에 대해서는 연간 소비량의 12 내지 17%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가정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정량을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상대국과 공동투자와 공동개발을 등을 해외식량생산기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농업개발투자는 충분한 의의를 갖지만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농업개발은 대부분 저개발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 나라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 위기발생시 도입이 여의치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한 호혜적 관계형성을 위한 국제농업기술협력 확대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도 2008년부터 AFACI, KAFACI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 (4) 곡물의 도입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생산-수송 등을 전담할 국적 곡물메이저 육성 등 민관 합동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강력히 운영하고 수입대상국과 수입선의 다변화, 선물거래 참여 확대, 곡물 수입국과의 협력체 구성 등으로 곡물 수입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급확대와 함께 수요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물성지방의 균형적인 섭취 등 합리적인 식생활문화, 생활 속에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국민 실천 등과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국사기에 ‘農者政本이요 食惟民天’이라,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요, 먹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곡물파동이 식량문제를 넘어 정권붕괴로 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정부와 기업,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과학자 모두가 하나로 지혜를 모아 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실천할 때만이 국제곡물 파동을 극복하고 우리의 식량안보를 담당하게 지켜 낼 수 있습니다.